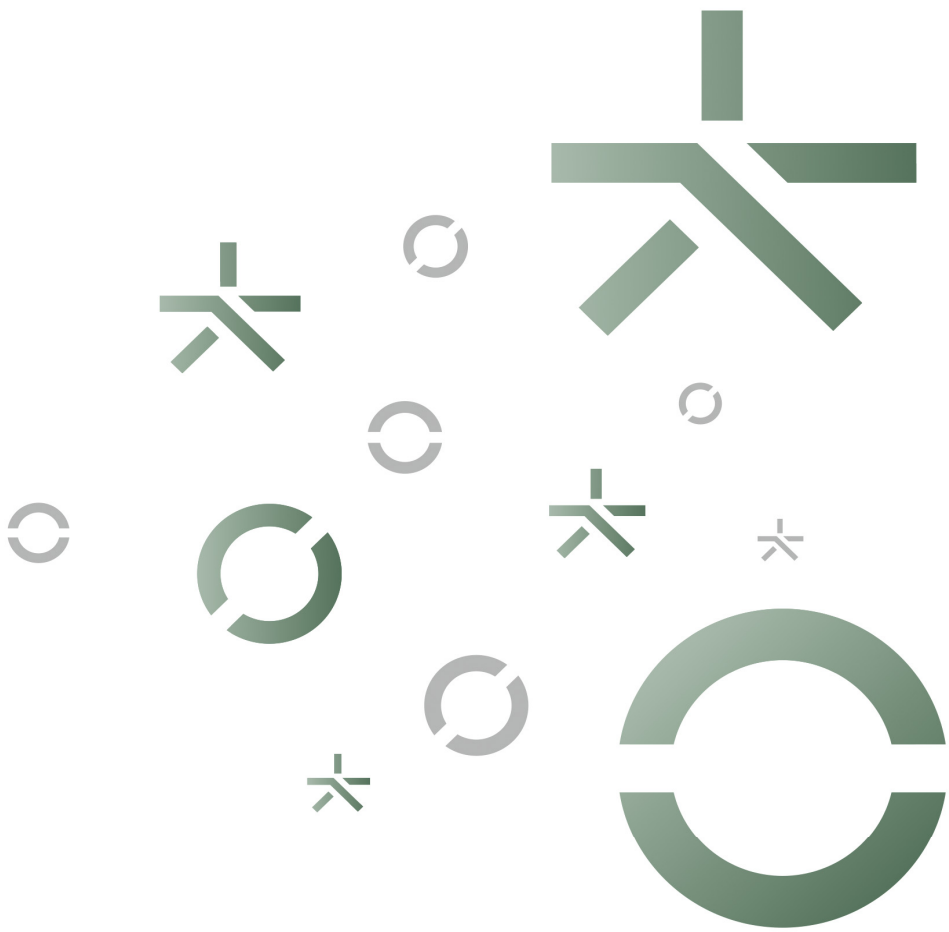
2025 센터기획연구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연구

서봉만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책임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

외부집필진

홍영의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
강옥엽 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이사

연구참여

홍승연 도시정보센터 전임연구원
김태윤 도시정보센터 초빙연구위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는 작업 필요

개별 자산 활용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가치화 전략 필요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은 시대별·지역별로 다양하나, 체계적 발굴과 활용을 위한 통합 전략은 미흡하다. 기존 연구는 시사 편찬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장소 기반 자산의 가치화 기획이 부족하다. '가치화'란 개별 자산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로,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 등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가치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성과 장소성의 결합, 히스토리텔링과 장소마케팅으로 실현

가치화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는 '역사 연구 현황'과 '가치화 사업' 간 접점을 마련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이 교차하는 '장소 기반'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생산·소비하는 히스토리텔링과 장소의 이미지·문화·역사를 자산화하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장소마케팅을 융합하는 것이 가치화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도시재생, 문화관광, 역사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결 가능한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주제별 심층 연구로 전환 필요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시사 편찬과 군·구사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나, 특정 주제 편중, 기초자료 부족, 연구 인력 한계

등 과제가 남아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제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발굴된 역사 자료를 가치화 기획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5개 테마 대표 자산 선정, 단계별 가치화 체계 구축

역사 전문가 자문 및 계층화 분석을 통해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후보군 58개를 구성하고, 역사성·지역성·대중성·활용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해석으로 재분류하여 5개 테마의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였다. ①고려시대 황도(강화군), ②산업유산(동구·부평구), ③건축자산·음식문화(중구), ④근대 스포츠(미추홀구), ⑤인천 역사의 시작(강화군·미추홀구)이다. 각 테마는 기획-발굴 및 보존-편찬 및 기록-활용의 가치화 체계에 따라 영역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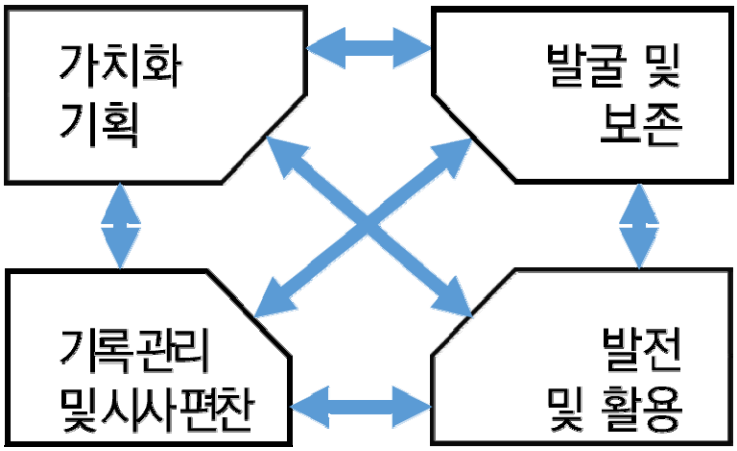
〔요약 표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주요 연구대상

연번	시대	장소	테마
1	고려, 조선	강화군	• 고려시대 황도 • 한국사에서 강화도의 중요성
2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동구, 부평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산업유산
3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중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건축자산, 음식문화
4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미추홀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스포츠
5	선사시대, 고대	강화군, 미추홀구(문학산 일대)	• 세계문화유산 • 인천 역사의 시작

사례 분석 통한 인천형 가치화 모델 제시

진주 〈의기 논개〉와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가치화 전략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진주는 고증이 미비한 역사적 소재를 히스토리텔링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결합한 장소 특화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수원은 기록유산 기반 고증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장소마케팅으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역시 개별 자산 활용을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전략 테마 발굴이 필요하다. 가치화는 기획-발굴-편찬·기록-활용으로 구성된 복합 영역으로, 4대 구성 요소 간 균형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다.

〔요약 표 2〕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4대 구성 요소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위한 정책제언

성공적인 가치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정례화하여 기관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협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제물포 일대 건축자산을 연계하는 '인문 로드'와 같은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모 사업을 통해 창의적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2~3년간 지속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인천기록담길과 같은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능은 공유하되 콘텐츠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자산의 활용이 아닌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테마와 스토리로 연결하여 시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가치화 전략

차례

TABLE OF CONTENTS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 4
3. 연구 방법 ····· 4

2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현황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개념 및 접근법 ····· 9
2. 정책 여건 ····· 12
3. 1차년도 진단 및 결과 ····· 31
4. 종합평가 ····· 34

3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1. 고려시대 주요 연구 현황 ····· 39
2. 조선시대 및 개항기 주요 연구 현황 ····· 79
3. 일제강점기 주요 연구 현황 ····· 92
4. 현대사 주요 연구 현황 ····· 104
5.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시사점 ····· 113

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모범 사례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 117
2. 진주: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 117
3.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 122

5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및 선정

1.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개요 ····· 131
2.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통합적 해석 및 재분류 ····· 135

차례

TABLE OF CONTENTS

6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전략

1.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현황 ····· 143
2.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방향 ····· 159
3.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사례 : 강도시기 강화 ····· 161

7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 169
2. 정책 제언 ····· 171

참고문헌 ····· 175

부록 ····· 193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13
〔표 2-2〕 문화유산과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 14
〔표 2-3〕「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 15
〔표 2-4〕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관련 기관 현황 ····· 16
〔표 2-5〕 인천시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 17
〔표 2-6〕 인천시립박물관 연혁 ····· 18
〔표 2-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기관 법규 ····· 19
〔표 2-8〕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 20
〔표 2-9〕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연혁 관련 법규 등 ····· 21
〔표 2-1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조사연구 현황 ····· 23
〔표 2-11〕 인하대학교 박물관 연혁 ····· 25
〔표 2-12〕 인천시사편찬 현황 목록 ····· 27
〔표 2-13〕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현황 ····· 28
〔표 2-14〕 인천관광공사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 30
〔표 2-15〕 인천문화재단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 31
〔표 3-1〕 인천(수주·인주)지역 공간 관련 문헌사·고고학 연구 논문 목록 ····· 56
〔표 3-2〕 인천지역 발굴 조사보고서(최근 10년간) 목록 ····· 58
〔표 3-3〕 강도 공간 관련 문헌사 연구 논문 목록 ····· 66
〔표 3-4〕 강도 공간 관련 고고·미술사 연구 논문 목록 ····· 69
〔표 3-5〕 강화도 발굴 조사보고서 목록 ····· 70
〔표 3-6〕『인천개항 100년사』의 주요 내용 ····· 80
〔표 3-7〕『인천시사』(1993)의 주요 내용 ····· 80
〔표 3-8〕『인천광역시사』(2002)의 주요 내용 ····· 81
〔표 3-9〕『인천광역시사』(2023)의 주요 내용 ····· 82
〔표 3-10〕『중구사』의 주요 내용 ····· 83
〔표 3-11〕『미추홀구사』의 주요 내용 ····· 85
〔표 3-12〕 군·구 문화원의 주요 발행 단행본 현황 ····· 90
〔표 3-13〕 인천역사문화총서 중 일문 자료 수집·번역 현황 ····· 100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4-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개요 ····· 117
〔표 4-2〕 1795년 정조대왕의 8일간 화성 행차 일정 ····· 123
〔표 5-1〕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 133
〔표 5-2〕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결과(상위 15개) ····· 134
〔표 5-3〕 역사문화자산 통합적 해석 ····· 135
〔표 5-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주요 연구대상 ····· 138
〔표 6-1〕 주요 연구대상 ① 가치화 체계 현황 ····· 146
〔표 6-2〕 주요 연구대상 ② 가치화 체계 현황 ····· 150
〔표 6-3〕 2019, 2024 인천시 건축자산 자치구별 선정 수 ····· 151
〔표 6-4〕 시대별 도시유적 현황 ····· 152
〔표 6-5〕 종별 도시유적 현황 ····· 152
〔표 6-6〕 인천시 중구 음식경연대회 우수업소 ····· 153
〔표 6-7〕 인천도시공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3호 개요 ····· 155
〔표 6-8〕 주요 연구대상 ③ 가치화 체계 현황 ····· 155
〔표 6-9〕 주요 연구대상 ④ 가치화 체계 현황 ····· 157
〔표 6-10〕 주요 연구대상 ⑤ 가치화 체계 현황 ····· 158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 흐름도 ····· 5
〔그림 2-1〕 전략적 가치화를 위한 접근법 ····· 12
〔그림 2-2〕 인천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2021) 활용 화면 ····· 26
〔그림 2-3〕 1차년도(2024) SWOT 분석 ····· 32
〔그림 2-4〕 1차년도(202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시나리오 ····· 33
〔그림 2-5〕 인천역사문화총서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표지 ····· 34
〔그림 3-1〕 고려시대·강화 강도시기 주제 학술회의 자료집 표지 ····· 46
〔그림 3-2〕 『중구사』와 『동구사』 표지 ····· 84
〔그림 3-3〕 『미추홀구사』와 『남동구 20년사』 표지 ····· 86
〔그림 3-4〕 『부평사』와 『서구사』 표지 ····· 87
〔그림 3-5〕 『신편 증보 강화사』와 『옹진군지』 표지 ····· 96
〔그림 3-6〕 『인천의 근대 각석』과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 표지 ····· 98
〔그림 3-7〕 『강화에서 피어난 독립의 불꽃』과 『금곡동 창영동』 표지 ····· 99
〔그림 4-1〕 2025년 5월 〈의기 논개〉 웹 포스터 ····· 118
〔그림 4-2〕 수상특설무대에서 실경역사뮤지컬을 관람 중인 관객들의 모습 ····· 120
〔그림 4-3〕 〈의기 논개〉 언론보도 화면 1 ····· 121
〔그림 4-4〕 〈의기 논개〉 언론보도 화면 2 ····· 122
〔그림 4-5〕 화성행행도 병풍 ····· 123
〔그림 4-6〕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웹 포스터 ····· 124
〔그림 4-7〕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에 따른 〈정조대왕 능행차〉 절차 ····· 127
〔그림 6-1〕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 국회 토론회 장면 ····· 143
〔그림 6-2〕 2021 강화중성 발굴조사 온라인 설명회 영상 화면 ····· 144
〔그림 6-3〕 13세기 고려 강화도성(강화경) 궁궐 디지털 재현 영상 화면 ····· 145
〔그림 6-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웹사이트 메인 화면 ····· 147
〔그림 6-5〕 캠프 마켓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내지 ····· 147
〔그림 6-6〕 노동자의 길 문학이야기 소개 화면 중 ····· 149
〔그림 6-7〕 부평천일제염시험장 다큐멘터리 화면 ····· 150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6-8〕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 151
〔그림 6-9〕 '중화루(中華樓)'명 간판(1922) ····· 153
〔그림 6-10〕 중구 테마여행 '맛있는 식도락 여행' 화면 ····· 154
〔그림 6-11〕 선인체육관(1973) ····· 156

1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도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의 공간이자, 개인의 취향을 충족하는 체험의 공간이며, 물리적인 특성과 함께 역사문화적 특성이 융합된 장소임
- ❍ 최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들의 특징은 역동적인 경제 분야의 성과와 함께 역사문화적 다양성과 시민의 개성과 취향이 존중되는 환경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임
- ❍ 21세기 들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발전 경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음. 반면에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은 미진함
- ❍ 혁신적인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성장과 역사문화자산의 가치화를 통한 체험경제를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상기한 문제의식에서 인천연구원은 2024년부터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추진함. 2024년 1차년도 사업을 통해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기획, 발굴, 편찬,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인천시의 현황을 단계별로 검토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가치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함
- ❍ 본 연구는 「인천 역사문화자산가치화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방안(2024)」의 후속 과제로, 인천의 역사 연구와 가치화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의 선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구체적으로는 인천 전역에 분포한 역사문화자산을 중심으로 '장소 기반의 가치화 전략'을 구상하여, 자산의 보존과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모델을 구축해 역사문화자산의 발굴·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장소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정책사업의 추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시 전역(10개 군·구)을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인천의 역사 전 시기를 포괄

○ 내용적 범위

- 역사문화자산의 발굴, 편찬, 연구, 활용 현황 분석 및 진단
- 장소 기반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및 선정
- 타 지자체 가치화 사례 분석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방향 제시
-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예시를 통한 실행 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현황 자료 검토
- 국내외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례 및 정책 동향 분석

○ 전문가 원고 의뢰 및 의견 수렴

- 인천시 역사연구현황 진단을 위한 외부 역사 전문가 원고 의뢰
- 역사 전문가, 문화기획자, 기관 담당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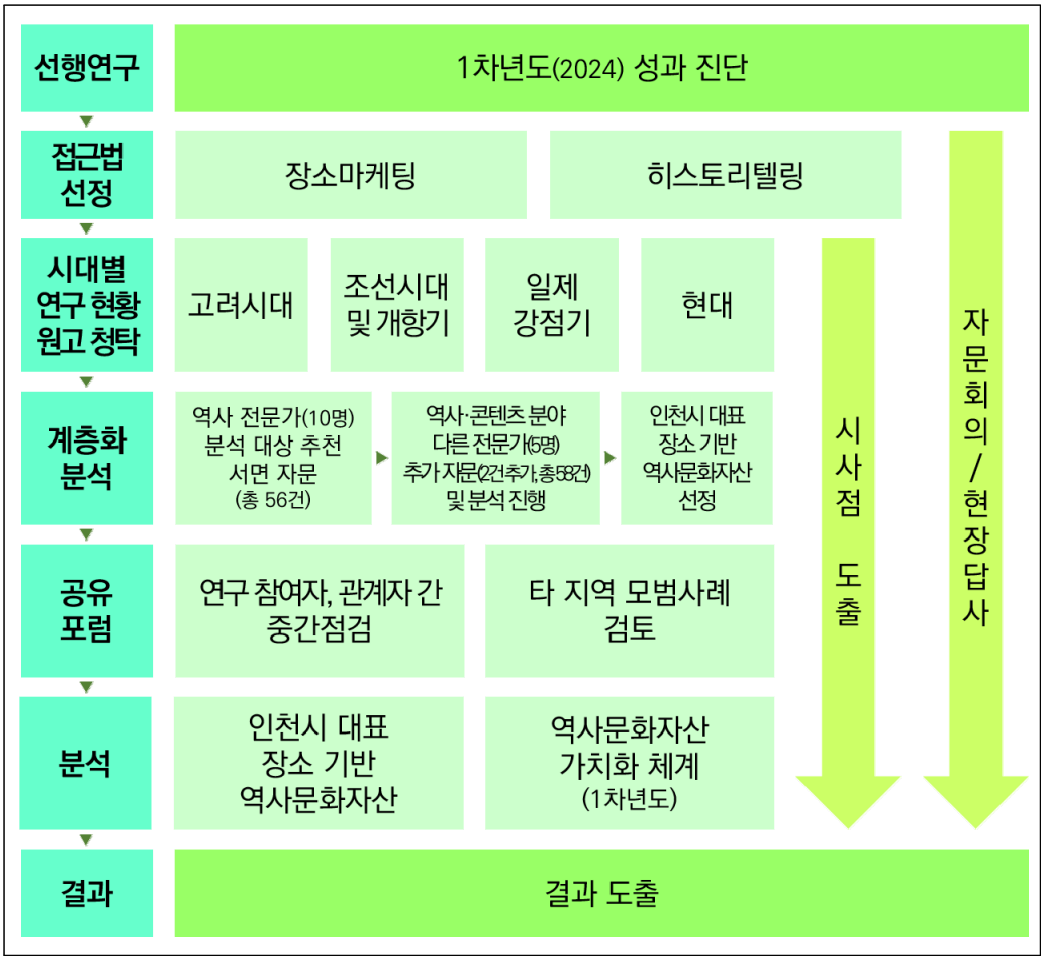
- 역사 전문가, 문화기획자, 기관 담당자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집계하고 계층화 분석을 거쳐 내부 진단

○ 워크숍 개최

-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선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실시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우수사례 공유 포럼 개최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 가치화 방안 도출

2) 연구 흐름도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현황

제2장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현황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개념 및 접근법

1) 역사문화자산의 개념

❍ 역사문화자산은 사서(史書), 문화유산,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유산으로부터 지역사회 정체성 발현과 같은 현재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자산으로 시간성·사회성·활용성의 특징을 지님(서봉만, 2024)

- 시간성: 과거 유산에 기반하되 현재적 의미를 내포함
- 사회성: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반영함
- 활용성: 문화콘텐츠·정책사업 등으로 확장이 가능함

❍ 역사문화자산과 역사문화유산의 구분

- 역사문화유산: 보존·보호·계승 중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가 지정문화재 등
- 역사문화자산: 도시브랜드, 도시계획, 문화콘텐츠, 관광자원 등 활용과 가치 창출 중심의 자산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개념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는 단순한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의 발굴과 제작을 넘어서, 개별 자산이 지닌 가치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함으로써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일컫는 개념
- 가치화는 기획, 발굴, 편찬/기록 그리고 활용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영역으로 구성된 작업이며, 영역별로 균형이 가치화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중요

2) 장소성 개념 및 필요성

- ○ 장소 기반 유산(Place-based heritage)은 특정 공간에 축적된 역사적 경험과 집단 기억, 정체성이 결합한 유산을 의미하며, 이는 유형 자산 이상의 해석을 가능하게 함(Relph, 1976)
- ○ 장소성(Placeness)은 특정 공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 경험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 감정, 의미 부여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장소 기반 유산은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애착(topophilia)을 유도함(Tuan 1977; Jackson, 1977)
- ○ 장소성에 기반한 역사문화자산은 특정 공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개념을 넘어, 히스토리텔링·장소마케팅·정책 연계와 같은 전략적 접근법을 가능하게 함
- ○ 따라서 장소 기반의 역사문화자산은 단순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재생, 문화관광, 역사교육, 지역 커뮤니티 회복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
- ○ 과거의 보존 대상을 넘어 지역의 서사와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스토리텔링 자원이자 도시 브랜딩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전략적 평가를 위한 접근법 설정

- ○ 1차 평가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산 간의 의미 연결과 전략적 가치화를 위해 다음의 접근법을 기반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1) 역사 중심 접근: 히스토리텔링(Historytelling)

- ○ 히스토리텔링은 히스토리(역사; history)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합성한 조어로,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통해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생산, 소비, 담화하는 것을 의미함(태지호, 2019, 2025; 박계호, 2022; 박정언, 2025)
  - 21세기 정보화 사회 이후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로 이전 시기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담론이 일상적 문화의 중요성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보존 중심 역사관을 넘어 콘텐츠화된 소비와 향유 차원에서의 역사 문화 재해석이 강조됨

- 인천 지역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 인물, 장소, 문화유산 등은 모두 콘텐츠화 가능한 히스토리텔링 자산이 될 수 있음

(2) 장소 중심 접근: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 장소마케팅은 경영학의 마케팅, 지리학의 장소성, 도시정책의 융합 개념으로, 특정 장소의 이미지, 문화, 역사 등을 자산화하여 도시 브랜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임(이무용, 2003, 2006; 구동회, 2004; 서봉만,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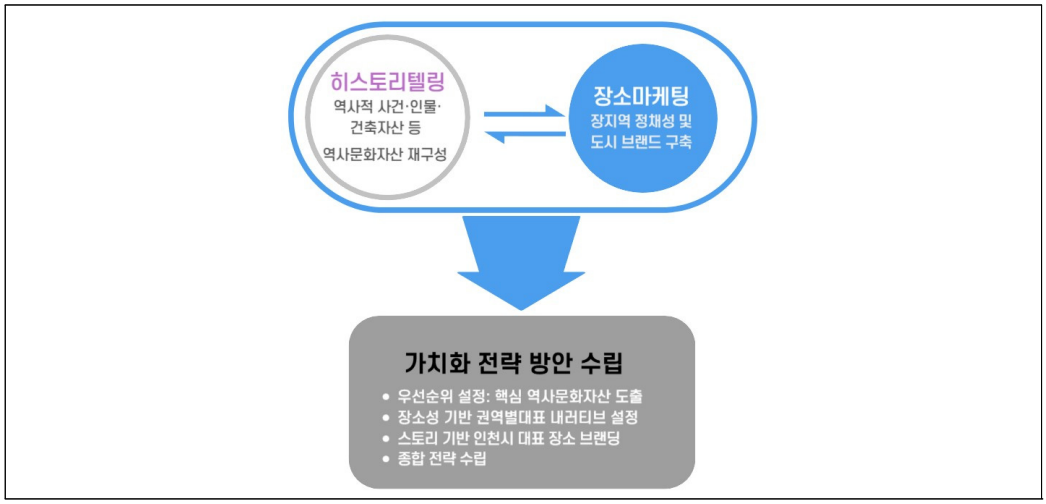
- 1970년대 이후 서구 도시들이 도시 정책을 관리주의에서 기업가주의로 전환하면서 장소마케팅을 도입하여 문화 정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추구함
- 특히 장소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도시 마케팅'으로도 불리며 이미지 쇄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간 경쟁에서 역사, 문화, 지리 등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됨
- 인천의 개항장, 강화도, 부평 등은 지역 특색의 장소성을 지닌 지역으로, 장소마케팅을 통해 도시 브랜딩 및 문화적 정체성 구축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

(3) 정책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고려

○ 최근 인천시에는 캠프마켓 부지 활용, 한국이민사박물관 증축 및 콘텐츠 확충,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우정통신박물관 설립 등 현안이 부상해 있으며, 이 밖에도 건축자산, 산업유산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관내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로컬 크리에이터 등 외부 기관 연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서봉만, 2024)

〔그림 2-1〕 전략적 가치화를 위한 접근법



출처: 연구자 작성

2. 정책 여건

1) 중앙정부 정책 여건

○ 2024년 5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확대·개편되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 체계가 재편됨

○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2024.5.17. 시행)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활용·향유·진흥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구축됨

- 「국가유산기본법」(2023.5. 제정)을 상위 법령으로 「자연유산법」(2023.3. 제정),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2023.8. 개정)이 제정됨
-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중심 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비지정 유산과 미래 잠재유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됨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5개년 계획 수립」(2025.12.)과 국가유산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임 (2025년 하반기)

○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하위법도 개정·신설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은 지정·등록 외에 일반등록 문화유산, 유산활용 심의제도 도입 등 주요 내용이 개정됨
-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호·활용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근현대문화유산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되어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지구 단위로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2) 인천시 정책 여건

○ 인천시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표 2-1〕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조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위원회	제3조 설치 제4조 구성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 회의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0조 간사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2조 합동분과위원회	제13조 소위원회 제14조 전문위원 제15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6조 수당 등
제3장	시지정 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 자료	제17조 지정기준 및 절차 제18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9조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제20조 지정·조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 지정·조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2조 지정 등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4장	보존·관리 및 활용	제24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5조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26조 허가절차 제27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28조 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 행위 제29조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제30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제31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2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33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매입 제34조 보조금
제5장	시등록 문화유산	제35조 등록기준 및 절차 제36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의 교부 제37조 등록사항의 기록·보존 제38조 기술지도 제39조 시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신고		제40조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41조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제42조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3조 등록의 말소 절차
제6장	국외소재 문화유산	제44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제7장	보칙	제45조 표창		제46조 서류의 제출 절차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2024)을 수립하여 시 지정문화유산 98건, 무형유산 9건, 민속자료 및 등록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활용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담당 부서는 인천시 문화유산과로 1과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은 일반회계 4,473 백만 원, 특별회계 27,844 백만 원으로 문화유산과의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약 47.03%임

- 팀별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표 2-2〕 문화유산과 주요 업무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주요 업무(사업명)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유산정책팀	문화유산 시설 활용 및 지역문화유산(향교 등) 계승	4,292	3,364
유산보호팀	국기 및 시 지정·등록 문화유산 관리 및 정비	10,056	9,065
유산계승팀	국가 및 시 지정·등록 무형유산 관리 및 지원	3.033	2,528
시사연구팀	인천광역시사 및 인천역사문화총서 편찬	289	241
합계		14,640.033	15,198

자료(출처): 인천광역시(2025).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는 2024년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표 2-3〕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조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역유산"이란 인천광역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제3조	기본이념	지역유산은 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인천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역유산 조사·연구
제6조	인천 지역유산 사업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 조사·연구 2. 인천지역유산 보존·관리 3. 인천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인천지역유산 홍보 5. 그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유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를 둔다. 1.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인천 지역유산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인천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사업 현황

(1)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사업 관련 주요 기관 현황

○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관련 주요 주체를 공공·민간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표 2-4〕과 같음

〔표 2-4〕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관련 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부서	관리 기관/부서	역할
공공	인천광역시 시사연구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과	연구 및 시사편찬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직영	발물, 지역 유물관리, 전시 및 연구, 교육
	검단선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시 직영	유물관리, 전시 및 연구, 교육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군청	지역 유물관리, 전시 및 연구, 교육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동구청	유물관리, 전시 및 연구, 교육
	인천문화재단	시 출연기관	조사연구, 아카이브 구축, 교육, 활용
	남동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시 출연기관	활용 사업
	화도진 도서관	인천시 교육청	편찬, 아카이빙, 활용
	관내 공공 도서관	인천시/인천시교육청	활용 사업
	인천관광공사	시 출자기관	활용 사업
	인천연구원	시 출연기관	연구
민간	학회 및 연구소, 관내 대학	-	조사연구, 활용
	지방문화원	-	활용
	문화예술 단체, 문화기획자	-	활용
	기업(영리·비영리)	-	활용

4)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발굴 기관 현황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인천시립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인천시 직속 사업소임

〔표 2-5〕 인천시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구분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2.26.〉〈개정 2021.9.30.〉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직 및 인력

- 2023년 12월 현재 3부(관리부, 전시교육부, 유물관리부), 4분관(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총원 96명으로 구성됨[1)]

○ 연혁

- 인천시립박물관은 국내 최초 공립박물관으로 1946년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에서 개관
- 1965년 12월에서 1966년 5월 인천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를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 발굴조사 등 근현대 한국과 인천의 고고학·역사학·박물관학 등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함
- 1995년 인천직할시의 광역시 승격에 따라 박물관 또한 기존 인천직할시립박물관에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함
- 2008년 송암미술관 이후 검단선사박물관(2008), 한국이민사박물관(2012), 인천도시역사관(2017) 등 분관이 편입 및 신설됨
- 2016년, 개관 70주년을 맞아 고고학 전공자를 충원하고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국가유산청에 정식 등록함(인천시 보도자료, 2017.3.1.)

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년도 연보 제36집」(2025), p.8.

• 2011년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現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하 「매장유산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조사기관에 한해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표 2-6〕 인천시립박물관 연혁

일자	내용
1946.4.1.	• 인천시립박물관 개관(인천 중구 송학동 1가 1번지 - 현 자유공원) - 초대관장: 이경성
1947.5.26.	• 경주고적조사단 조사
1949.5.~11.	• 인천 고적 조사
1950.6.27.	• 박물관 휴관(전쟁 중 박물관 건물 소실)
1953.4.1.	• 박물관 이전복관(송학동 1가 11번지, 제물포구락부 건물 → 현 인천문화원)
1963.6.	• 인천 영종도 운남동 고인돌 발굴
1965.12.~1966.5.	•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발굴(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조사)
1989.12.20.	• 신 박물관청사 완공(현 박물관)
1990.1.1.	• 신축건물로 이관
1990.5.4.	• 박물관 이전 개관
1992.11.23.	• 박물관등록(등록번호 19)
1993.4.23.	• 지역 문화학교 지정(문화체육부)
1995.1.1.	• '인천직할시립박물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2002.10.	• 인천시립박물관 증·개축 계획 수립
2004.4.1.	• 전시관 보수 공사로 휴관
2006.2.8.	• 전시관 신축 및 보수공사 준공
2006.7.10.	• 시립박물관 재개관
2008.1.28.	• 송암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
	• 시립박물관 직제개편 관련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11.27.	•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개관
2011.4.25.	•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
2012.2.27.	•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
	• 시립박물관 직제개편 관련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 규칙 개정
2013.9.17.	•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 규칙 객정(부서명: 과 → 부로 변경)
2014.1.1.	• 컴팩스마트시티 직영 관리
2014.1.1.~12.22.	•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 규칙 개정
	• 컴팩스마트시티부 신설(정원 4명 증가)
2017.12.19.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컴팩스마트시티부 폐지, 인천도시역사관 신설)

자료(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년도 연보 제36집」(2025) p.7.

〔표 2-7〕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기관 법규

구분	내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 5. 28., 2023. 8. 8., 2024. 2. 13.〉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 ·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 ·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 사업

-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 유물 보존, 교육 및 행사,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함
  - 전시는 역사 1실(선사~고려)·역사 2실(조선~근대)·실감 영상실·고미술실·기증실·야외 전시장의 상설전, 이밖에 특별전과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함
  - 유물 보존 관련으로는 유물의 구입, 기증 절차, 보존과학 처리, 소장 유물 64,456점(2024년)[2], 온라인 아카이빙 1,112건(2025년 4월)으로 구성됨
  - 교육 및 행사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히, 조사연구 업무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수행 중이며, 2012년부터 근현대 생활 문화 등 지역사(地域史) 연구가 추가되어 축적된 40여 종 이상의 보고서가 인천시립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됨
  - 이밖에 각종 학술회의 개최 및 『인천문화연구』 학술지 발행을 포함함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지방연구소로 대통령령 제27900호 및 제27914호,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75호에 따라 2017년 당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음

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 「2024년도 연보 제36집(2024)」(2024.12.), p.24.

〔표 2-8〕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2.28.]</td><td>◇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와 관련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문화재 재난 ·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신설 학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교수 · 조교수 또는 부교수 3명, 조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td></tr>
<tr><td>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1.]</td><td>◇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 2017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총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69명(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21명, 8급 5명, 연구관 7명, 연구사 10명, 지도사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교원 8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table>
<tr><th>연번</th><th>기관명</th><th>총계</th><th>증원 내용</th></tr>
<tr><td>21</td><td>국립
문화재
연구소</td><td>8명</td><td>수도권 문화유산 종합학술기능 강화 인력: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자연문화재연구실 시설관리 보강 인력: 7급 1명</td></tr>
</table>
◉대통령령 제279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table>
<tr><th>명칭</th><th>소속</th><th>직무</th><th>총 정원의 한도</th></tr>
<tr><td>국립문화재
연구소</td><td>문화재청</td><td>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td><td>190명</td></tr>
</table></td></tr>
<tr><td>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75호)</td><td>제44조의2(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2019년 2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을 둔다.</td></tr>
</table>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직 및 인력

- 2025년 4월 현재 기획운영과(조직·인사관리, 예산편성·집행, 시설관리·운영), 학예연구실(학술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 지원)의 총원 30명으로 구성됨[3)]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고궁박물관 별관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연혁

- 2017년 9월 21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번길 5에 개소
-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별관으로 이전한 데 이어, 12월 문화재청 직제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변경함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웹사이트

- 2024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5월 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주무 부처인 문화재청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소속 연구소 명칭의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함
- 2025년 현재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9, 1331-11번지 일대에 수도권문화유산연구센터를 건립 중임

〔표 2-9〕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연혁 관련 법규 등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12.29.〉</td><td>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의4 제4항 관련)
<table>
<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
<tr><td colspan="3">(전략)</td></tr>
<tr><td>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td><td>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td><td>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td></tr>
<tr><td>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td><td>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75</td><td>전라북도</td></tr>
</table></td></tr>
<tr><td>정부조직법</td><td>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중략)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24. 2. 13.〉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 3. 4.〉]</td></tr>
<tr><td>「수도권문화재 연구센터」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2021.2.25.)</td><td>2. 사업주요내용
가. 사업명 :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 건축설계 공모
나.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9, 1331-11 등 2필지
다. 대지면적 : 14,492m2 라.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마. 건립규모 : 연면적 6,700m2 / 지상 4층(후략)</td></tr>
</table>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2021.2.25.)

○ 주요 사업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추진 업무로는 '한양도성 학술조사연구', '고려시대 수도권 문화유적 학술조사연구', '풍납토성 학술조사연구', '수도권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지원' 등이 있음
  - 한양도성 학술조사연구는 조선시대 4대 궁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며, 국가유산청의 '경복궁 복원 정비사업'에 고증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990년 이해 순차적인 발굴조사가 진행 중임

  - 고려시대 수도권 문화유적 학술조사연구는 강화도성 및 (당시) 경기지역 주요 유적 현황 조사와 학술발굴조사 등을 수행함
  -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종합적인 중세 시대 학술연구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을 수행함
  - 풍납토성 학술조사연구는 1997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시작한 풍납토성 22개소 시·발굴조사, 1998년 풍납토성 내·외부 참관·시굴조사 이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에서 서성벽 및 동성벽 유실 구간 복원, 왕궁 등 핵심 시설 조사를 수행함
  - 수도권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지원은 국가귀속유산의 보관 관리, 출토 유물 보존 처리, 발견매장유산 감정평가, 보존조치유적 모니터링 및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권역 내 조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위한 발굴조사현장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 경복궁, 풍납토성 등 과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해 오던 수도권 학술조사연구의 후속 연구를 포함해 25년 4월 현재까지 총 33권의 보고서를 발간함
  - 강화도성, 흥왕리 이궁지, 왕릉 포함 고려 고분 등을 주제로 고려시대 강화도에 대한 학술조사연구가 활발히 수행, 축적 중임
  - 문옥현(2024.9., 2025.2.)을 참고하면 여러 기관의 강화도성 조사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서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의 경우 전체 기관 성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고려시대 강화도를 주요하게 다뤄 오고 있음
- 2025년에도 한성백제 도성 유적 학술조사연구, 중근세 궁궐 및 사찰 학술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지원 등을 수행 중임

〔표 2-10〕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조사연구 현황

발행년도	제목
2017	• 강화 고려도성 학술기반 조성 연구 -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수도권 문화유적 조사연구의 방향과 과제 • 경복궁 흥복전 주변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Ⅱ • 풍납토성ⅩⅧ(구) 태양열주택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2018	• 경복궁 취향교지 발굴조사 보고서 • 江都, 고려왕릉展 •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보고서
2019	• (2019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술세미나)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 • 강화 흥왕리 이궁지 발굴조사보고서 •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Ⅰ 서울·인천·경기·강원
2020	•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Ⅱ 충청·대전·세종 • 경복궁 향원정·계조당지 발굴조사 보고서 •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Ⅲ 경상·대구·부산·울산·전라·광주·제주 • 강화읍 동쪽해안 일대 퇴적토양 분석연구 • (2020 인천역사시민대학) 우리 역사 속의 국제교류 •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 조선의 보장지처, 강화 그리고 잔·보·돈대 Ⅰ
2021	• 풍납토성 축성기술의 비밀을 풀다 학술대회 자료집
2022	• 風納土城 ⅩⅪ 풍납토성 내·외부 입회 및 시굴조사 보고서 • 강화도성의 구조와 운영 • 강화중성 제1~3차 발굴조사보고서 • 경복궁 동궁권역 발굴조사 보고서
2023	• 백제왕성, 풍납토성 학술대회 자료집 • 강화 마니산 학술조사 보고서 • 고려시대 성곽유적 자료집 1, 2 • 경복궁의 장식기와
2024	• 강화 專묘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경복궁 자미당 발굴조사 보고서 • 경복궁 영훈당 동측권역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도성의 공간과 구조 • (2024 제1차 중세문화포럼)고려 강화도성의 가치 인식과 보존 • 중국 동북지역 연(燕)·진(秦)·한(漢) 성곽 자료집

자료(출처): 국가유산 지식이음(연구분야: 서울 문화유산)

인하대학교 박물관

○ 인하대학교 박물관은 1976년 3월 국내외의 역사·문화·민속과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학술 연구에 기여하고 자료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인천지역의 유일한 대학 부속 박물관임

○ 조직 및 인력

- 2025년 4월 현재 운영위원회, 학예연구실(박물관 운영, 전시, 교육, 유물관리), 조사연구실(문화재 조사 등 학술 연구, 콘텐츠 확보)로 구성되어 박물관장, 부박물관장, 학예연구사, 조교 총 4인이 소속되어 있음[4)]

4) 인하대학교 박물관 웹사이트

❍ 연혁

- 인하대학교 박물관은 1983년까지 인천 및 인접 경기지방의 각종 문헌자료 수집·전시와 관련 조사연구, 1984년부터 대학 설립 취지 및 지역 특성에 관련된 운송수단 관련 유물 수집, 1994년부터 국내외 민속·인류학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주력해 오고 있음
- 2005년 (당시)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및 발굴조사기관 인증, 2006년 리모델링 후 인천시 등록박물관 인증,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기관 인증

❍ 주요 사업

- 인하대학교 박물관은 조사와 연구, 유물수집, 전시, 교육 등 분야의 사업을 진행함
  - 대학박물관 성격상 주로 학술 연구에 주력하여, 1980년대 서해도서지방 학술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인천지역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 2000년부터 매년 1~2회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박물관지』와 학술총서 등을 발행함
  - 2024년 기준 학술조사와 수집, 기증을 통해 4,07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5)]
  - 1980년대 중반부터 가마, 선박, 자동차, 항공기 부속품 등 교통 관련 소장유물을 전시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는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민속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시대 문방구류를 수집해 전시함
  - 교육프로그램은 사학과 공동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문화유적 답사인 '박물관 역사기행' 운영 등으로 이루어짐

5) 2025년 4월 2일 전화 문의로 확인

〔표 2-11〕 인하대학교 박물관 연혁

연월	내용
1976.3.~1984.2.	• 초대 윤병석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1984.3.~1994.2.	• 2대 김광언 관장 취임(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西海島嶼民俗學』 발간
1994.3.~1998.2.	• 3대 김인학 관장 취임(문과대학 국어국문과) • 영흥도 화력발전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 신공항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1998.3.~2004.2.	• 4대 서영대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1999	• 『仁川地域 遺蹟·遺物地名表(Ⅰ)』 학술총서 발간
2000	• 문학동 선사유적 발굴 조사 • 『江華地域의 先史遺蹟·遺物』 학술총서 발간
2001	• 월미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2	• 강화 선두포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3	• 계양산 중심성 정밀 지표조사 • 인천 장도포대지 정밀 지표조사
2004.3.~2006.2.	• 5대 윤승준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인하대학교 50년사 특별전 개최
2005	• 문화재청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및 발굴조사기관 인증 • 대곡동 자석묘 정밀 지표조사 • 『인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연수구』 간행 • 고구려 역사자료 특별전 개최
2006.3.~2007.1.	• 6대 서영대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박물관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리모델링 • 『인천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 서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간행
2007.2.~2009.1.	• 7대 이영호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학예사 '경력인정기관'(국립중앙박물관) 인증 • 강화 교동읍성 정밀 지표조사 • 문학경기장 절토잔여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2008	• 문학경기장 절토잔여지 발굴조사에서 7기의 청동기시대 확인 • '지역문화와 대학박물관'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 박물관 홈페이지 리뉴얼
2009.2.~2017.1.	• 8대 윤승준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강화군 창리~신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강화중성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 인천 숭의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경인운하사업 제 6공구 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부평 산곡5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가칭 '소래역사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2010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강화 경기장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011	• 연평도 피폭지역 현장조사 및 안보교육장 건립 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 '(가칭) 인천교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건립·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2012	• 가정~경명로 간 연결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013	• 백령-대청 역사 발굴 고증용역 실시
2014	• 학산서원 조사 학술 연구용역 실시
2015	• 인천 구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인천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 부지 내 추가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016	• 용현·학익지구 7블럭 도시개발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017	• 9대 이영호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계양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수행 • 인천광역시 작은박물관 지원사업 대상 선정
2018	• 10대 윤승준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 교동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 용역 수행 • 인천광역시 시 지정문화재(유형) 문화재 정기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 수행
2019.~2020.	•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 고증조사 용역사업 실시 •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 수행 • 사진전 〈50년 만의 귀향-1950~60년대 하와이교포단의 내방과 교류〉
2021	•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연구용역 수행
2022	• 인천 역사자료 산업유산 아카이브 연구용역 수행
2023.~현재	• 11대 임학성 관장 취임(문과대학 사학과)

자료(출처): 인하대학교 웹사이트

- 1990년대부터 인천지역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를 수백 건 진행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연구용역 비중이 증가함
  -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2021) 연구용역의 경우 발주처인 인천문화재단의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성과물이 공개됨
- 박물관 역사기행은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의 하나로 2025년 상반기 중 2회 진행을 마침

〔그림 2-2〕 인천역사자료 디지털아카이브(2021) 활용 화면



자료(출처): 인천문화재단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5)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편찬 기관 현황

시사편찬 현황

○ 인천시는 1965년 제1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1973년부터 인천시사를 편찬함

- 2025년 3월 기준 총 43권의 시사 편찬 목록은 〔표 2-12〕와 같음

〔표 2-12〕 인천시사편찬 현황 목록

발행년도	제목
1973	• 인천시사(상, 하)
1982	• 인천시사-70년대편
1983	• 인천개항 100년사,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사
1993	• 인천시사(상, 중, 하)
2002	• 인천광역시사 총 6권 • 제1권 자연환경과 지리 • 제2권 인천의 발자취 • 제3권 현대사회 Ⅰ • 제4권 현대사회 Ⅱ • 제5권 현대사회 Ⅲ • 제6권 문화유산과 인물
2013	•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제1~3호 • 제1호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 제2호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 제3호 인천의 삶, 도시의 변화
2013	• (인천정명600년기념)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총2권) • 제1권 선구지 인천의 근대풍경 • 제2권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 변화
2014	• 인천광역시사 제4호 인천 체육의 발자취
2015	• 인천광역시사 제5호 인천의 지명 (상, 하) • 인천광역시사 제6호 인천의 지지(地誌)와 지도(地圖) (상, 하)
2016	• 인천광역시사 제7호 인천의 건축 (상, 하)
2017	• 인천광역시사 제8호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상, 하)
2018	• 인천광역시사 제9호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상, 하)
2019	• 인천광역시사 제10호 인천의 관방유적 (상, 하)
2020	• 인천광역시사 제11호 인천의 민속 (상, 하)
2021	• 인천광역시사 제12호 인천항일독립운동사 (상, 하)
2022	• 인천광역시사 제13호 인천 전쟁사 (상, 하)
2023	• 인천광역시사 제14호 (인천시사편찬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 (총3권) • 제1권 고고학이 발굴한 인천 • 제2권 역사학이 탐구한 인천 • 제3권 국제도시 오늘의 인천
2024	• 인천광역시사 제15호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상, 하)

자료(출처):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현황

❍ 인천시는 2003년부터 매년 고문서 번역을 비롯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생활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인천역사문화총서를 발간해 옴

- 2003년 제1호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시작으로 현재 101호 『(譯註) 인천항안 II』까지 총 101호의 총서를 발간함

❍ 인천역사문화총서는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하다 현재는 인천시 문화유산과 시사연구팀에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2-13〕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현황

발행년도	제목		발행번호
2003~2006	• 인천의 역사와 문화(국문, 영문, 중문, 일문) • 인천사 자료집 Ⅰ-인천, 부평지역 문헌자료- • 인천의 섬 • 옛날 옛적에 인천은 • 미군정기(미군정기)의 인천자료 • (譯註) 인천부읍지 • 인천역사 1호 • (譯註) 인천사정 • (譯註) 인천 개항 25년사(信夫淳平 저) • (譯註) 인천 개항 25년사(加瀨和三郎 저) • 근대의 이민과 인천 • 인천의 산과 하천 • 근대 문화로 보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	• 고종시대 인천자료 • (譯註) 부평부읍지 • 인천역사 2호-인천 문학의 재조명 • (譯註) 인천항 • (譯註) 역주 인천향토지 • 멕시코 이민 100년의 회상 • 인천축항도록 • 인천의 길과 시장 • 인천 개항장 풍경 •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들 • (譯註) 교동군읍지 • (譯註) 한국이대항실세 • 인천역사 3호-인천 경제의 재조명-	제 1~30호
2007~2010	• 동북아 한인공동체와 삶 •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 • (譯註) 강화부지 • (譯註) 외국인의 기록으로 보는 인천 근대 • (譯註) 소성속록 • (譯註) 소성진중일지 • (譯註) 병합후의 인천 • 인천역사 4호-인천 민속의 재발견 • chemulpo, Jinsen, 그리고 인천 •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譯註) 최근의 인천 • (譯註) 영종진 호적자료 • 근대문화로 보는 한국최초, 인천 최초(영문) • 인천역사 5호-인천 근대 건축의 재발견- •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 (譯註) 인천의 사화와 사적 • (譯註) 인천미두취인소 연혁 • (譯註) 인천항관초(上), (下) •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영문) •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 인천역사 6호-인천 지명의 재발견- • (譯註) 인천과 인천항 • 인천의 갯벌과 간척 • (譯註) 강도고금시선 전집(前集) •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영문) • 지역 연구 현황과 시사편찬의 현황 • 인천역사 7호-인천 지리의 재발견 • 인천상식문답 • (譯註) 인천도서지역의 지리자료	제 31~62호
2011~현재	• (譯註) 덕적도 고문서 자료집 • (譯註) 강도고금시선 후집(後集) •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 인천역사 8호-인천 향토사의 재검토 • (譯註) 인천부세일반(1), (2) •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1), (2), (3) • (譯註) 삼항구관초 • (譯註) 20세기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 한인들 • (譯註) 조회정식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 (譯註) 강도지 • (譯註) 속수증보 강도지 • 인천의 중국불교문화유산 • 주한 일본공사관기록 인천초록역주	• (譯註) 인천토지조사부 • 인천의 호국과 현충 • (譯註) 인천부세일반 • 각사등록인천초록역주(1), (2) • 고신문 속의 인천 (1), (2), (3) • 근대 개항도시의 불교문화자취 • 술술 읽는 인천역사 • 선생님이 들려주는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 인천역사문화총서 신흥동 옛 시장관사 • 12가지 주제로 보는 인천역사 •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 청소년이 만나는 죽산 조봉암 • 인천의 묘역과 석조미술(상), (하) • 인천항안 (1), (2)	제 63~101호

자료(출처): 인천시 홈페이지

6)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활용기관 현황

○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활용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교육프로그램, 전시,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최근 '장소 기반' 자산 활용이 강화되며, 활용 방식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 활용기관은 다수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 연계성을 고려해 대표성을 지닌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기관 현황을 정리함

- 대표적인 활용기관인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의 중심으로 기관 현황을 정리함

인천관광공사

○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공기업임

○ 조직 및 인력(2025년 1월 기준)

- 기획조정실, 관광마케팅실, 관광산업실, 상상플랫폼 사업단,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등 5개 실·사업단 산하 20여 개 팀의 총 133명(임원 1명, 일반직 129명, 공무직 5명)으로 구성

○ 전략 체계

- 4대 전략(인천 매력 콘텐츠 육성을 통한 방문 유도, 전략적 마케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인프라·서비스 개선 및 생태계 활력 제고, 자체 혁신 및 경영관리 효율화) 15대 과제 추진

○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표 2-14〕 인천관광공사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사업명	전략	주요 내용	관련 장소/대상
상상플랫폼 운영 활성화	인천 매력 콘텐츠 육성을 통한 방문 유도	• 실감형 미디어아트 중심의 역사·문화·관광이 공존하는 플랫폼 조성	상상플랫폼, 원도심, 내항
야간 관광특화도시 조성 사업 고도화		• 개항장 일대 야간관광 핵심 콘텐츠 개발 •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시그니처 빛 축제' 개발·운영(10월)	송도·개항장 일대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기반 조성		• 섬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 • 도도하게 살아보기 관광상품 및 축제, 트래킹 등 체험형 콘텐츠 운영 •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해바닷길 활용 섬 테마관광 상품개발	옹진군 섬 지역과 서해 바닷길 등
대표축제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 지역특화축제로서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6월·10월 개항장 문화지구), 고유 관광자원 활용 및 원도심 연계 신규 축제 개발	개항장 문화지구, 동인천, 상상플랫폼 등 원도심
트렌드를 반영한 국내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확대	전략적 마케팅 및 융복합 관광 육성	•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종교 명소 활용 원도심 관광상품 육성	원도심의 역사문화종교 명소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브랜드 육성 및 확산, 1883 인천 Story 브랜드 활용 • 개항장 문화재 야행 등 대형 축제이벤트 연계 유치	인천 전반
이용자 중심의 안내 체계 및 서비스 개선	인프라·서비스 개선 및 생태계 활력 제고	• AI 기반 비대면 관광안내시스템을 원도심 주요 관광교통 거점에 추가 구축 • 시민 관광안내사, 인천투어프렌즈 활동 지역 확장	원도심, 개항장

자료(출처): 「인천관광공사 주요 사업 추진계획」(2024) 중,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정리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설립된 인천시 출연 비영리 재단법인임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전문예술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운영됨

○ 조직 및 인력

- 대표이사 직속 1실(정책연구실), 2본부(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6팀, 3관으로 정원은 107명임(2025년 기준)
- 주요 시설은 한국근대문학관, 인천아트플랫폼, 복합 문화공간인 트라이보울,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 동구 우리미술관, 인천청년문화창작소 등이 있음

❍ 비전 및 전략

- 비전(예술과 문화가 생동하는 열린 도시 인천), 미션(문화 자치를 촉진하는 협력 플랫폼)
-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예술창작 전문성 강화 지원, 지역사회 협력 및 연대 강화 등), 시민 체감형 사업구조로의 변화(시민 주도 문화 활동 활성화, 참여형 문화공간 기능 확대,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일상화 등),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환경 조성(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교류 활성화, 문화정책 제언 및 역량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소통 중심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 등)을 4대 전략 목표 추진 중임

❍ 인천문화재단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표 2-15〕 인천문화재단 주요 역사문화자산 활용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전략	사업명	주요 내용	소요 예산
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강화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 일반지원, 예술창작집중지원, 예술창작생애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연콘텐츠 개발 지원 등	4,296
	예술활동 기반 마련	예술인 건강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예술인 역량강화, 창작공간 임차료, 예술인 이음카드	2,796
	지역사회 협력	미술활성화기획지원, 우현상, 문화예술특화거리지원, 움직이는 갤러리 등	706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인천문화유산 센터 운영	인천역사문화유산 정보화, 지역사 자료집 발간, 조사·연구,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역사 소식지 발간	450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문화관 기획전시, 출판 및 자료 관리, 시민 문학 프로그램 및 문인 단체 협력사업	500
시민체감형 사업구조로의 변화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 향유 지원	24,461
문화정책 제언 및 역량 확대	인천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인천문화예술아카이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문화예술 기록물 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420

자료(출처): 「인천문화재단 2025년 경영전략체계 및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정리

3. 1차년도 진단 및 결과

1)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정립과 현황 분석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를 '발굴 및 보존', '기록관리 및 시사 편찬', '발전 및 활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현황을 진단함

❍ 현재 인천시에 세 영역을 관통하는 일관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기관 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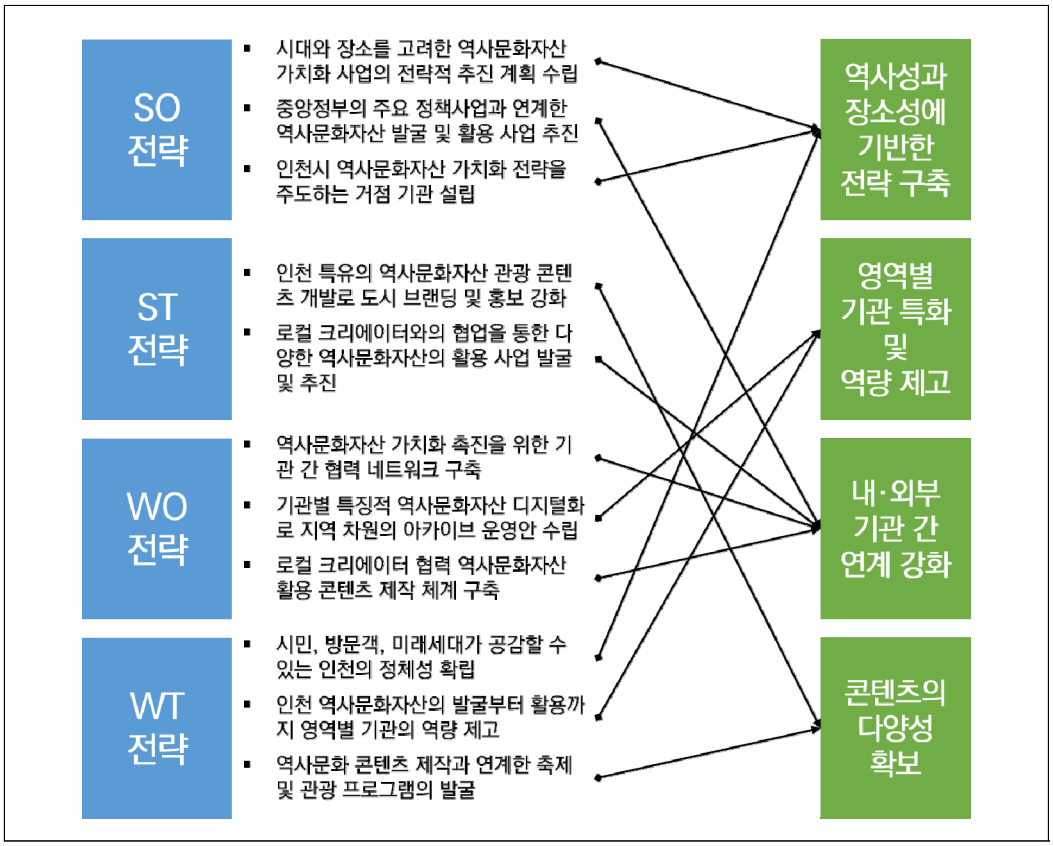
❍ 현재 인천시에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기획 전담 조직은 없으며 계획상으로도 없음

2)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활성화 방안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조직 방향성 도출을 위해 SWOT 분석을 시행함

○ SWOT 분석 결과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전략 구축', '영역별 기관 특화 및 역량 제고', '내·외부 기관 간 연계 강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의 네 가지를 도출함

〔그림 2-3〕 1차년도(2024)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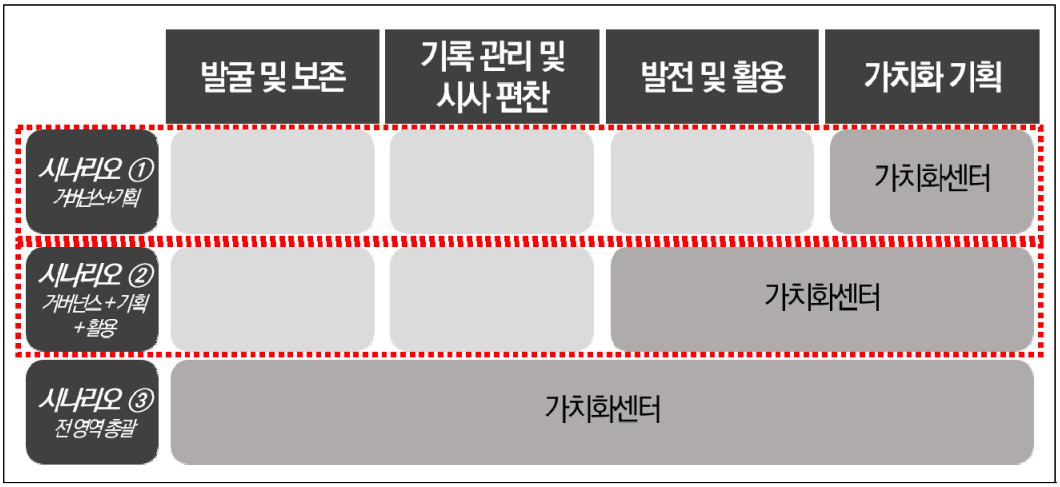


자료(출처): 서봉만(2024 : 97)

○ 특히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반한 전략 구축',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전략 기획(가치화 기획)'을 추가해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를 네 영역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설립 및 운영 필요성이 부상함에 발맞춰 (1) 가치화 기획 전담 (2) 가치화 기획, 발전 및 활용 전담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함

〔그림 2-4〕 1차년도(202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시나리오



자료(출처): 서봉만(2024 : 99)

3) 정책 제언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추진단 운영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여 센터 설립을 전제로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핵심 사업 기획과 운영 등 기초 작업을 수행

(2)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 SWOT 분석 결과 도출된 방향성을 토대로 주요 연구과제와 사업 발굴, 인천시와 관련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를 수행

(3) 인천역사문화자산 아카이브 네트워크 운영

○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 현황 연구」(2024)로 도출된 정책사업의 방향성 검토, 세부 실행전략 도출, 아카이브 운영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지역 역사문화자산 활용 협력사업

○ 공립박물관, 로컬크리에이터 등 협업을 촉진해 역사문화자산 활용 시범 사업 추진

4. 종합평가

1) 인천 역사 연구 현황과 가치화 사업 간의 접점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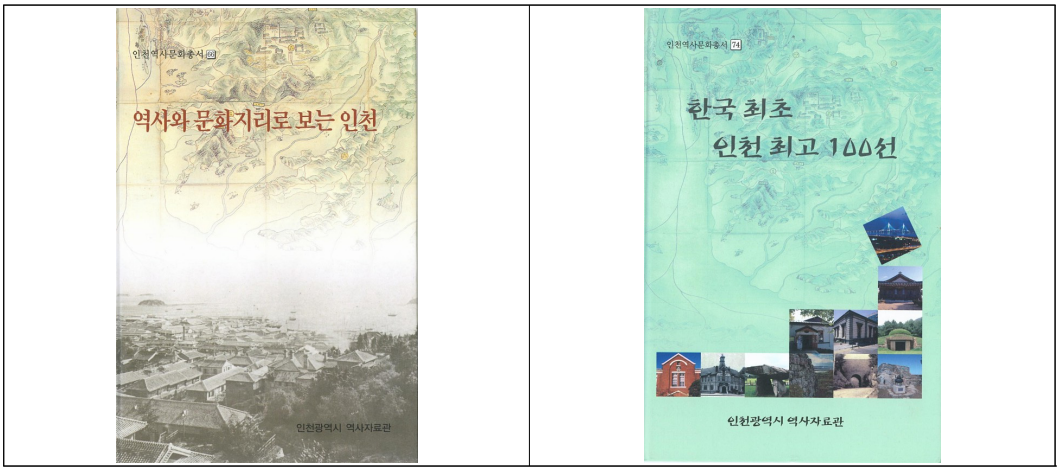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토대이자 시작점으로서 인천 역사의 연구사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사는 6차례(1973; 1983; 1993; 2002; 2013; 2023)에 걸쳐 집필되었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6] 선별도 100건에 이를 만큼 통사로서 축적된 성과가 상당함
- 최근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역사·주제사 중심 역사 편찬도 이루어지고 있어 통사와 지역사 성과의 비교 분석, 즉 연구사 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임

○ 역사성과 장소성의 교차점으로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역사지리학의 부상 또한 지리학에서 고지도와 지명, 장소성과 경관 같은 문화·역사적 요소를 강조하여 지역사 연구와의 접점이 확장 추세에 있음[7]
- 가치화의 두 가지 접근법 중 히스토리텔링이 역사 중심 전략이라면, 장소마케팅은 장소 중심 전략으로서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소의 자산화를 강조함
- 가치화 사업 2차년도(2025년)에 인천의 모든 역사문화자산을 다루기는 어려운 만큼, 역사 연구 성과와 장소의 자산화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인천역사문화총서 『역사와 문화지리로 보는 인천』,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표지



자료(출처): 인천시 ebook

6) 역사문화총서 74호
7) 역사문화총서 66호

2)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모범 사례 검토 필요

- ❍ 역사 사료와 연구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준 사례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이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 (진주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진주 논개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최초로 등장하지만, 고증이 부족한 역사 속 인물인 논개를 특히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진주 정신에 따라 현대적으로 해석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임
- ❍ (수원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은 정조대왕의 8일간 화성 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입각한 재현 퍼레이드로 수원화성문화제 핵심 콘텐츠이자 수원시,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주최 측의 장소마케팅이 반영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임

3) 인천시 대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의 평가 및 선정 필요

- ❍ 가치화의 전략적인 집중 대상으로서 인천시 대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 역사 분야·콘텐츠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선별 및 평가로 인천시 전역에서 자산이 갖는 대표성과 분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역사문화자산 형태, 주제, 시기, 장소 등 각각의 속성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통해 보완 및 선정할 필요가 있음

3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제3장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

1. 고려시대 주요 연구 현황

○ 오늘날의 인천시는 고려시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의 수주(樹州)와 인주(仁州)가 하나로 묶인 영역에 해당하며 1989년 황해도 옹진군, 1995년 강화군이 편입되어 공간적 범위를 이룸

- 서해 요충지 인천 지역사회는 고려왕조가 개성에 도읍하며 고대로부터의 해상교통 거점 역할이 확대·촉진됨. 고려 왕실은 개성에 이르는 예성강 입구 강화·교동·자연도 등을 대외교통 거점으로 개발·정비, 이를 군사·경제적 지원하고 수도 남방지역을 방어할 안남도호부를 부평(수주)에 설치해 '꼬레아(고려)' 국제교류 관문을 정립함[8)]

  • 수주는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 신라 경덕왕 때 장제군(團練使)을 거쳐 고려 초에 수주(樹州)로 고침. 995년(성종 14) 단련사(團練使), 1018년(현종 9) 지수주사(知樹州事)를 두어 격을 높임. 1150년(의종 4) 안남[9)]도호부로 격상하여 6개 현[10)]이 소속됨. 고종 즉위 후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11)]로 개칭, 1308년(충렬왕 34) 길주목(吉州牧)으로 고쳐 격상, 1310년(충선왕 2) 부평부(富平府)로 개칭[12)], 1413년(태종 13) 부평도호부로 된[13)] 이후 약 500년간 큰 변동 없었음

  • 인주는 고구려의 매소홀현(買召忽縣, 또는 買邀忽), 757년(경덕왕 16) 소성(邵城)으로 고쳐 율진군(栗津郡)의 영현(領縣), 1018년(현종 9) 수주에 예속됨. 숙종 때 인예순덕태

8) 인천시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9) 안남은 계양산(桂陽山)의 별칭인 안남산(安南山)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주").
10) 금주(衿州)·동성현(童城縣)·통진현(通津縣)·공암현(孔巖縣)·김포현(金浦縣)·수안현(守安縣)
11) 계양도호부일 때 이웃 강화도가 몽골 침입 이후 40년 가까이 피난 수도 강도(江都)로 대몽항쟁의 중심을 이루어 역사적 위상이 다른 지역과는 큰 차이를 나타냄
12)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인주
13) 『세종실록』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후(仁睿順德太后) 이씨(李氏)의 고향이라 경원군(慶源郡), 인종 때 문경태후(文敬太后) 이씨(李氏)의 고향이라 인주로 처음 개칭되어 지주사(知州事) 파견, 1390년(공양왕 2) 7대어향(七代御鄕)[14]이라 하여 경원부(慶源府)[15]로 고침. 1392년(태조 1) 인주로 복구, 1413년(태종 13) 인천군(仁川郡)으로 개편 후 1424년(세조 6)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외가 고을이므로 도호부로 승격하였음. 고려시대 인주이씨 번영에 따라 이허겸(李許謙)·이자겸(李資謙)·이인로(李仁老) 등 많은 인물이 배출됨

- 고려 475년 동안 인천 지역사회는 수도 개성 다음가는 번화지였지만 몽골의 지배, 조선왕조 개창(1392) 후 강화도에 이룩하였던 모든 문물·시설, 인천지역 경원부의 위용을 잃었고 고려 왕실 잔재 청산, 중앙집권 강화로 경원부는 인천군(仁川郡 : 1413)으로 강등·축소, 강화·부평 등도 군사적 의미뿐인 도호부(都護府) 지위로 하락함
- 1413년(태종 13) 경원부 옛 명칭인 인주에서 군·현 이름 중 주(州)자를 띤 것을 산(山)이나 천(川)으로 고치는 행정구역 개편 원칙에 따라 '인(仁)' 자와, '천(川)' 자가 합해져 '인천(仁川)' 행정구역 명칭이 비로소 나오게는 되었음.[16] 이후 200여 년 동안 인천 지역사회는 자급 자족적인 한적한 농·어촌사회로 존속하였음

○ 인천 고려시대사 연구는 안남도호부의 수주와 인주, 그리고 강화의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고려시대 연구 경향과 성과, 의의와 향후 과제 등을 점검함

1) 인천지역의 고려시대사 연구 현황

○ 인천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하여 역대 국가들의 수도와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도로 통하는 주요 항구이자 다양한 정치권력·정치집단의 활동 근거지 또는 이들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음. 또한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과 국내외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하였음[17]

- 해양 관점에서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 주변 해역을 하나의 지중해로 보아, 일본열도·압록강 하구·요동반도를 거쳐 산동까지 이어지는 남북 연근해 항로의 중간 기점이자,

14) 고려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7대가 계속되는 동안 이곳 인주이씨(仁州李氏) 가문에서 다섯 왕비가 나왔고, 여러 국왕이 인주이씨 왕비의 소생임을 말함(『신증동국여지승람』권9, 경기 인천도호부)
15) 당성군(唐城郡)과 재양현(載陽縣) 2개의 현이 예속됨(『고려사』권56, 지10 지리1 양광도 수주)
16) 『태종실록』권26, 태종 13년 10월 신유
17) 하위 단락의 자세한 내용은 이재석. (2003). 정치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천.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 참조.

한반도·산둥반도를 잇는 동서 횡단 항로와 마주치는 해양 교통의 결절점'인 경기만 중심지에 위치해 국제적으로 1883년 개항 후 서해안 중심 항구로 기능해 왔음

- 육상 관점에서 대내적으로 서로 황해, 북으로 옹진군, 동으로 김포·서울, 남으로 시흥·안산에 접하고, 역사적으로 서울의 외항으로 역할 해왔음. 자연스레 오랫동안 서울-인천 노선이 한국 국가성장과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왔음. 한국 최초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고 경인고속도로가 먼저 개통된 것도 이 때문임
-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천-목포의 서해안벨트가 형성됨으로써, 인천이 서해안벨트 북쪽 출발지로 자리매김함. 장차 한반도 통일 후 서해안벨트가 북으로 연결된다면, 인천은 서해안벨트 중핵도시로 더 크게 부상할 것이며, 서해안벨트를 통한 인구와 물류 이동은 기존 경인축을 뛰어넘을 것임
- 인천은 고려왕조 수도 개경, 조선왕조 수도 한양에 접해 전근대 한국 중심지의 인후(咽喉) 지역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해 왔음. 냉전 시대에는 수도 서울 진입 '관문'으로서 정치·경제·군사적 지위를 가졌음. 탈냉전시대·한중 수교로 개선된 한중 관계와 정보화·지역화·지방화 등 세계화로 지역 교류 활성화에 따라 지리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
- 특히 인천공항 개항으로 구미와 중국의 중계지 역할을 맡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됨으로써 인천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중앙정부와 시정부도 인천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실천에 매진하고 있고 인천시민의 지역발전 열기 또한 뜨거움

❍ 인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수많은 연구자가 여러 분야와 다양한 시각에서 업적을 내왔음. 인천지역에는 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등 많은 대학과 부설 연구소, 시에서 설립한 문화 및 연구기관도 여럿 존재함. 이러한 여러 단체에서 '인천학'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지역 조사를 진행 중임

- 대표적으로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인천광역시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의 『인천학연구』, 경인교육대학의 『기전문화연구』, 인천시립박물관의 『인천문화연구』, 새얼문화재단의 『황해문화』 등이 있음. 이러한 학술 연구 전문지는 많은 역사적·현재적 사실을 밝혀 주었고 정책 실천에 기초가 됨
- '인천학'이란 지역학은 인천의 '과거'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 학문으로 영역이 확대 중임. 또한 역사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학문이며,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추구되는 글로컬(glocal: global+local) 학문으로 인식됨.

○ 인천지역의 구조적 이해는 전통적 학연과 새로운 학연의 존재 형태, 마을과 생활조직, 경제적 관계, 역사를 되살리는 문화 활동, 외부 세계와의 연계 조직체 등 구체적 분석이 우선시되므로 역사학·정치학·사회학·인류학·지리학 등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실증적 연구,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역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

(1) 기관별 연구 현황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 인천대학교 부설연구기관으로 2002년 2월 27일에 출발하여,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여 도시 발전의 미래상 제시를 목표로 함.[18] 200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인천·강화·교동 관련 고려시대 관련 논문은 총 8편임

- 「仁川의 邑號 陞降에 관한 연구」(남달우, 2002, 『인천학연구』, 1), 「고려 11세기의 정치와 인주 이씨」(김창현, 2003, 『인천학연구』, 2-1), 「고려 강도의 신앙과 종교의례」(김창현, 2005, 『인천학연구』, 3), 「江華의 三別抄 南行 始發地에 대한 고찰」(이정란, 2005, 『인천학연구』, 4),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임용한, 2004, 『인천학연구』, 4), 「인천의 읍격 변화와 그 원인 연구」(서영대, 2010, 『인천학연구』, 13),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 계획」(류창우, 2018, 『인천학연구』, 29), 「인천시 문화재 지정 문제점에 대한 연구 - 김취려 묘, 이승훈 묘를 중심으로」(이형우, 2024, 『인천학연구』, 40)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

○ 1972년에 창립한 연구소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문화와 역사를 조사·발굴·연구하여[19] 한국 민족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향토 문화에 대한 애호심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음. 1972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경서동과 김포 지역 고려시대 관련 논문은 2편에 불과함

- 「경서동 녹청자요지」(김양주, 1972, 『기전문화연구』, 1), 「金浦 掘浦와 轉漕倉에 對하여」(박광성, 1972, 『기전문화연구』, 1)

18)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19)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1986년 '한국학의 세계화'와 '인천의 인문학 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설립되었음.[20] 1986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고려시대 관련 논문은 총 7편이나 인천지역의 역사를 다룬 연구 주제는 아님

인천시립박물관

○ 1946년 4월 개관한 한국 최초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지역 향토사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설립됨.[21] 학술조사·학술회의 성과는 2003년 창간된 『인천문화연구』로 이어짐. 현재까지 강화 강도 시절 고려시대 연구 9편, 경서동 청자 관련 2편의 총 11편이 있음. 또한 조사보고서 2건, 강화를 다룬 학술총서 1건, 고려 관련 전시 3건이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에서 2004년 개최된 제2회 학술 세미나 '고려시대 江華의 사회와 문화'에서 발표된 7편이 『인천문화연구』 제2호 특집으로 게재되었음. 해당 학술세미나는 인천에서 고려시대를 주제로 개최된 첫 학술 행사로 추정함
  - 「강화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박은경, 2004), 「고려의 강화 천도와 그 배경」(강옥엽, 2004), 「고려 강도의 짜임과 사회상」(김창현, 2004), 「강화 고려고분의 유형과 구조」(이희인, 2004), 「강도시기에 완성한 고려대장경의 의미와 제 문제」(오용섭, 2004), 「강화의 강도시기 도자 문화」(한성욱, 2004), 「江華 河岾面 石佛立像 硏究」(윤현희, 2004)
  -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왼의 지속현상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장남원, 2005, 『인천문화연구』, 5), 「'경서동'계 조질청자의 생산과 수요」(이종민, 2005, 『인천문화연구』, 5), 「강화도 지역 고려되기의 생산과 소비」(한혜선, 2005, 『인천문화연구』, 5), 「강화 고려 능묘(陵墓)의 현황과 특징」(이희인, 2015, 『인천문화연구』, 12)

2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2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 조사보고서
  - 「2006 문학산 일대 고려시대 유적조사 보고서」(인천시립박물관, 2006, 조사보고, 19), 『강화의 고려고분 지표조사보고서』(인천시립박물관, 2008, 조사보고, 7), 『고려시대의 강화』(인천시립박물관, 2009, 학술총서, 4)
- 특별전시
  - 2021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 바다의 흔적〉展(7.27~10.17), 2020 갤러리 전시 〈강화와 개성, 고려의 왕릉〉展(7.21~8.39), 2018 기획특별전 〈강도(江都), 고려왕릉〉(10.30~12.9)

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포함)

○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된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2017년 강화고려역사재단과 통합해 두 기관 학술 활동은 일괄함. 강화고려역사재단은 2012년 8월 인천문화재단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설치로 출발해 2013년 7월 인천시 산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설립됨. 3년 8개월 만인 2017년 인천문화재단 강화역사문화센터로 해체 통합된 뒤 2018년 결국 '강화'와 '고려'를 떼어 내고 '인천문화유산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음[22)]

○ 14회(강화고려역사재단 9건, 인천문화재단 5건) 학술회의가 진행되어,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과 함께 고려시대·강화 강도시기 연구가 가장 활발한 기간이기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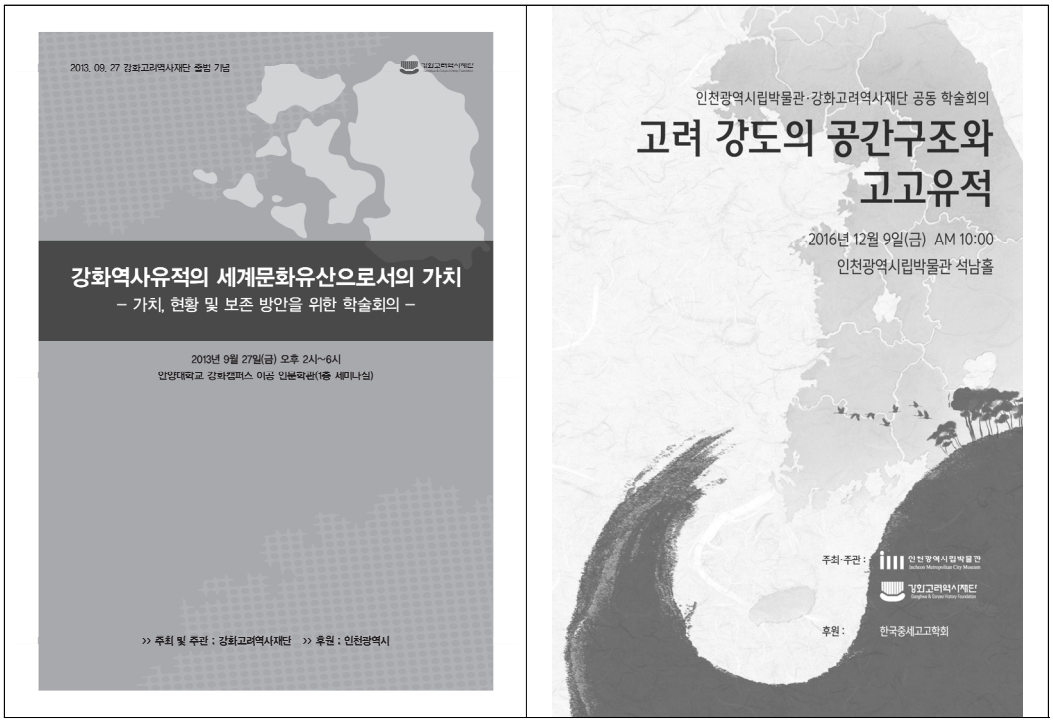
- 2022 『중앙 권력과 인천의 역할』 제5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기조 강연 1편 포함, 총 11편의 주제 가운데 2편만 고려시대를 다루었음
  - 「후백제 수군의 서해공략과 고려의 대응」(이창섭), 「최우의 강화천도와 권력」(김도연)
- 2021 『한국의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 인천』 제4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기조 강연 포함, 총 11편의 발표 주제 중 고려시대 인천지역 관련 논문은 2편임
  - 「고려 강도시가 경기만 일대의 주요 포구와 물자유통」(문경호), 「고려 강도시기 건물지 출토 도자기의 사용과 조달」(한혜선)
- 2020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제3회 공동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 포함, 총 11건의 연구 중 고려시대 연구 주제는 3건이나, 인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주제는 아님

22)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30일)

- 2019『중세 수도 고려 개경이 남긴 역사적 가치』 고려 수도 '개경' 정도(定都) 1,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는 기조 강연 포함, 총 7편의 연구 주제 중 강도 관련은 1편뿐임
  - 「고려 강도의 건설과 공간구성」(이희인)
- 2018『고려 건국과 경기 성립의 역사적 의의』 제1회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기조 강연 포함, 총 8편의 연구 주제 중 강도 관련은 1편임
  - 「강화천도의 외교적 배경과 대몽 전쟁기 경기도 권역의 군사적 대응」(강재광)
- 2016『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공동학술회의 1부에서는 기조 강연 1편 포함, 5편의 주제 모두 강도와 관련됐고, 4편이 강화 고려유적 발굴 성과를 정리하였음
  - 「고려시대 강화 도읍의 공간 구조와 그 특징」(윤용혁), 「성광교회~동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 내 유적/강화 관청리 163번지 유적」(현남주),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김효환), 「강화 월곶리 옥림리 유적」(권순진), 「강화 옥림리 유적」(김정인)
- 2016『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와 고고유적』 공동학술회의 2부에서는 4편의 발표 주제 모두 강도사와 관련됐음
  - 「고려시대 강화 도읍 궁궐」(김창현), 「고려 강도 시기 성곽 연구의 현황과 과제」(이희인), 「강화 고려왕릉의 구조와 성격」(이상준), 「고려 강도 시기 주요 사찰의 위치와 쟁점」(김락기)
- 2015『고려대장경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그리고 江華』 '유네스코 지정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념 학술회의에서 기조 강연 등 5편의 발표 주제 중 강도 시기 것은 2편임
  - 「고려대장경의 판각·봉안과 강화도」(오용섭), 「고려대장경의 현대적 활용과 강화도」(이지범)
- 2014『고려왕릉·고분 문화와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국제학술회의에서는 5편의 발표 주제 중 3편이 강도시기임
  -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이희인), 「고려시대 장례 절차에서의 변화상과 강도(江都) 시기 장례—관인(官人)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박진훈), 「고려분묘(高麗墳墓) 매납도자(埋納陶磁)의 종류와 특징」(이종민)
- 2014『10~14세기 아시아의 상호 교류와 협력』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는 7편의 발표 주제 중 인천지역과 관련된 논문은 없음
- 2014『강화·개성의 고려역사유산과 남북 교류』 '2014 강화·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을 위한 학술 포럼에서는 기조강연 포함 5편의 발표 주제 중 인천 지역 관련 주제는 2편임
  - 「강화·개성의 고려문화와 통일시대」(최광식), 「인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강화·고려사」(김상태)

- 2013『강화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2차 학술회의에서는 5편의 발표 주제가 강도를 주제로 함
  - 「강화 지역의 역사 유물 및 유적의 가치와 활용」(김기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강화 유물 소개」(서성호), 「강화지역유물의 현황과 활용 방안」(김재홍), 「개경 궁성 발굴 성과와 강도 궁성」(이상준), 「강화 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한성욱)
- 2013『강화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치, 현황 및 보존 방안을 위한 학술회의』 1차 학술회의에서는 기조 강연 등 5편의 연구 주제는 모두 강도시기를 다룸
  - 「민족문화유산의 보고, 江華」(유홍준, 기조강연), 「강도시기 고려 문화유산의 현황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윤용혁), 「참성단,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세계유산으로」(서영대), 「강화 관방유적의 현황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방안」(강석화), 「강화 역사유적지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적 제언」(김형우)

〔그림 3-1〕 고려시대·강화 강도시기 주제 학술회의 자료집 표지



자료(출처):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그 외

- 2010년에 개관한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보존·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어,[23] 2020년 하반기 기획전시 〈고려 황도 강화〉 도록을 출간하였음. 또한 인하대 박물관 학술조사 보고서 『강화 승천포: 고종사적비 주변 학술조사』(2001) 1건이 있음

(2) 외부 연구기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현 서울문화유산연구소)

○ 2017년 설립, 2023년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24]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궁궐·성곽·고분·사지 등 주요 문화유적 학술조사연구로 시대별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 구명, 체계적 보존관리, 활용의 학술적 토대 구축을 목표로 함

○ 5회의 학술회의

- 2024 제1차 중세문화포럼 『고려 강화도성의 가치 인식과 보존』
  - 「강화도성의 최근 조사성과 과제」(문옥현), 「강화도성의 의미와 가치」(신안식), 「강화도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고」(이종찬), 「강화도성 유적의 가치 확산과 활용방안」(조관휴)
- 2022 『강화도성의 구조와 운영』
  - 「고려시대 강도의 역사적 의미」(윤용혁, 기조강연),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 고려시대 건물지를 중심으로」(이제원, 사례 발표), 「인천 관청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역」(김승대, 사례 발표), 「강화도성의 궁궐과 도시 구조」(이상준), 「강화중성의 고고학적 특성과 성격 검토」(문옥현), 「고려 강도시기 사원의 경영과 역할」(강호선), 「고지형 분석 기반 강도 궁궐 배치 구조 시론」(양정석·서의행)
- 2019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술 세미나 '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
  - 「강화 석릉 주변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개보」(이보람),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Ⅰ~Ⅲ 지점 발굴조사 성과」(조희진, 사례 발표), 「고려시대의 장법 葬法과 능묘 陵墓

23) 강화역사박물관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29일)
24)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웹사이트(검색일: 2025년 9월 29일)

제도」(홍영의), 「고려왕릉의 능제와 석물의 종별 특징」(장경희), 「고려시대 묘역시설분묘의 유형분류와 특징」(주영민), 「고려시대 분묘 출토 도자기의 시기별 변화와 특징」(남진주), 「고려 분묘 출토 銅器에 대한 검토」(허선영)

- 2018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
  -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권두규), 「강화 고려왕릉의 특징과 능주 추론」(이상준), 「考古學으로 본 高麗王陵과 中國王陵」(박천식), 「통일신라 왕릉에서 고려왕릉으로의 변화」(홍보식), 「조선 초 왕릉 상설 제도의 성립」(고하림), 「고려왕릉의 조선시대 보존과 관리」(홍영의)
- 2017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 세미나 『수도권 문화유적 조사연구의 방향과 과제』
  - 「강화 고려도성의 연구 현황과 쟁점」(윤용혁)

○ 16건의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江華 碩陵』(2003), 『강화의 국방유적-초루돈대·손돌목포대 발굴조사 보고서』(2004),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2007), 『江華 月串鎭址』(2010), 『강화 북장대지 발굴조사 보고서』(2012)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보고서』(2018), 『강화중성 남산리 구간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2019),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2020), 『강화 흥왕리 이궁지 발굴조사보고서』(2020), 『강화읍 동쪽해안 일대 퇴적토양 분석연구』(2020)
-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Ⅰ 서울·인천·경기·강원』(2019), 『조선의 보장지처, 강화 그리고 진·보·돈대 Ⅰ』(2020), 『강화산성(남문~동문 보수정비구간) 시발굴조사보고서』(2021), 『강화중성 제1~3차 발굴조사보고서』(2022), 『강화 마니산 학술조사 보고서』(2023), 『강화 傳묘지사지 발굴조사보고서』(2024)

○ 2건의 학술총서(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 『강화 고려도성 학술기반 조성 연구 -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2017), 『江都, 고려왕릉展』(2018)

임진예성포럼

○ 2018년 인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 연구 관련자 학술모임으로 설립되었음. 주로 고려 역사와 문화교류를 매개로 비무장지대와 서해 접경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남북 교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함. 6회 학술발표 중 강화 고려왕릉과 성곽을 주제로 한 3편의 발표가 있었음

- 2018 제1회 임진예성포럼 『고려의 대외교류와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 유적 비교』
  - 「개성 성곽과 강화 성곽 비교」(이희인)
- 2019 제2회 임진예성포럼 『남·북한 중세 왕릉의 세계유산 교차 확장 등재 가능성 검토』
  - 「고려왕릉의 현황과 보존」(이희인), 「강화 고려왕릉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확장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기본 사안들」(이상해)

2) 인천지역의 고려시대사 연구 성과

(1) 인천(수주·인주) 영역

○ 193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필자가 조사한 고려시대 인천지역 관련 학술논문은 총 40편임

- 대부분 인주(경원)이씨와 이자겸(17편), 경서동 녹청자 요지 관련(11편)이며, 이외에 인천 및 부평의 연혁(3편), 이규보(李奎報, 3편), 굴포(掘浦, 2편), 경원정(慶源亭, 2편), 교동(喬桐, 1편), 인천 문화재(1편) 등이 연구 주제임

인주(경원)이씨와 이자겸

○ 인주(경원)이씨

- 인주이씨는 '경원이씨'라고도 하며 고려 문종 이래 100여 년간 문벌이자 10여 명의 왕비를 배출한 가문, 고려 10대 갑족(甲族)이기도 함. 한국의 가장 유력한 가문의 호칭인 '삼한갑족(三韓甲族)' 중 하나로 1933년 일본 역사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가 심도 있게 연구한 가문이기도 함
- 허기(許奇)가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을 때 안록산의 난을 맞아 당 현종(玄宗)을 호위한 공으로 황제(皇帝)의 성(姓)인 이씨(李氏)를 사성(賜姓) 받았음

- 그의 10세손 이허겸 때부터 집안이 번성했고 고려 현종 때 '상서좌복야 상주국 소성현 개국 후(尙書左僕射 上柱國邵城縣開國侯)'에 제수되어 식읍(食邑) 1,500호(戶)를 하사받았음. 이허겸의 딸은 김은부와 혼인해 덕종·정종·문종 등 세 왕의 외증조모가 되었음
- 이허겸의 손자인 이자연(李子淵)은 뛰어난 인품과 능력으로 네 왕을 섬겨 조정을 이끌었고, 문종의 충신으로 '추성좌세보사공신 문하시중 개부의 동삼사 수태사 감수국사 상주국 경원군 개국공에 올랐음[25].
- 이자연의 딸 셋은 문종의 비가 되어, 그중 인예태후는 순종·선종·숙종을 낳아 인종에 이르는 왕들 모두가 인예태후의 혈통이었음
- 이자연의 손자 이자겸은 인종의 장인이자 외조부로 국정을 천단하였고 왕실 외척 가문으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음. 예종·인종 때 딸을 왕비로 들여보냈고, 손자인 인종이 그의 보필로 즉위하자 전횡이 극에 달했음
- 인종(仁宗) 즉위 후 이자겸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음. '협모안사공신 수태사 중서령 소성후(協謀安社功臣守太師中書令邵城侯)'에 책봉되어 신하로서 최고직에 오른 뒤, 왕의 작은아버지인 대방공(帶方公) 왕보(王俌)와 한안인·문공인(文公仁) 등이 역모를 꾀했다고 하여 그 주모자 등 50여 명을 살해 또는 유배시키며 반대파 제거에 나섰음
- 왕의 극진한 우대로 '양절익명공신 중서령 영문하상서도성사 판이병부 서경유수사 조선국공 식읍팔천호 식실봉이천호(亮節翼命功臣中書令領門下尙書都省事判吏兵部西京留守事朝鮮國公食邑八千戶食實封二千戶)'에 제수된 후, 사사로이 관부(官府)를 열어 관리를 두었고 부인은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에 봉해지고 아들들도 관직이 승급돼 조정의 모든 권력은 이자겸에게 모이게 되었음.
- 경원이씨 외 왕비가 나오면 권세와 총애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강제로 셋째 딸과 얼마 뒤 넷째 딸마저도 인종의 왕비로 들여보냈음
- 이자겸은 조선국공(朝鮮國公)의 공적 기반을 활용해, 사사로이 자기 부(府)의 주부(注簿) 소세청(蘇世淸)을 송나라에 보내 표(表)를 올리고 토산물을 바치며 스스로 '지군국사'[26]를 참칭했음. 왕에게 그 조칙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실제로 지군국사가 되고자 했음

---

25) 개국공: 推誠佐世保社功臣 門下侍中 開府儀 同三司 守太師 監修國史 上柱國 慶源郡 開國公

26) "지군국사란 나라의 모든 일을 맡고 있다는 뜻으로 신하의 신분으로는 가질 수 없는 직함"(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이자겸', 검색일: 2025년 9월 29일)

○ 이자겸의 난

- 왕도 이자겸의 전횡을 꺼리자, 내시 김찬(金粲)·안보린(安甫鱗)은 1126년(인종 4) 동지추밀원사 지녹연(智祿延)과 공모해 왕에게 아뢰고, 상장군 최탁(崔卓)·오탁(吳卓), 대장군 권수(權秀), 장군 고석(高碩)과 함께 이자겸 및 일당 척준경(拓俊京) 등을 제거하려 약속된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입궐해 척준경의 동생 병부상서 척준신(拓俊臣)과 아들 척순(拓純) 등을 살해해 이른바 '이자겸의 난'의 발단이 되었음
- 변란을 안 이자겸·척준경이 남은 무리와 병졸을 이끌고 궁성을 포위해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살해하자 놀란 왕은 이자겸에게 선위(禪位)하고자 하였으나 양부(兩府)의 의론을 두려워했고, 왕의 발호를 못마땅해하던 재종형제(再從兄弟) 이수(李需)·귀족관료 김부식(金富軾) 등의 반대로 저지되었음
- 이자겸은 왕을 자기 집으로 이어(移御)시키고, 같은 해 3월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등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국사를 결정하였음. 왕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인종을 수차례 독살하려 할 때마다 왕은 왕비의 기지로 화를 모면하였음
- 인종의 밀명(密命)으로 내의(內醫) 최사전(崔思全)이 5월 이자겸·척준경의 사이를 떼어놓는 데 성공하여 이자겸은 결국 척준경에 의해 제거되고 유배지 영광(靈光)에서 사망하였음

○ 문벌 네트워크와 권력 공식화 제도 장치

- 고려 중기 외척 집권·전횡의 연유를 구명하고자 일찍부터 이자겸의 난에 주목하였던 초기 선행 연구는 왕실·외척 대립 관계를 당연시한 학계 전반의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음. 특히 일본 헤이안시대 섭관가(攝關家)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되는 후지타 료사쿠의 「李子淵と其の家系」(1933·1935) 발표 후 문종~인종대 외척과 이자겸의 난 관련 연구는 대체로 조선 후기 문중 이해를 고려 중기사회로 소급한 관점 위에서 산출되었음. 경원이씨(인주이씨) 부계 친족집단을 필두로 왕실과 문벌귀족의 갈등·경합이 지속되다가 이자겸의 난으로 절정에 치달았다는 식의 이해가 재생산되었음
- 김윤곤(1976 : 33~39쪽)은 이자겸 대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고려는 "인주 이씨의 시대"였다고 평하며, "직계 조선(祖先) 및 인주 이씨 일문과 인주 지방과의 관계"에 천착해 이자겸 세력 기반 분석을 시도하였음. 인주이씨를 부계출계 원리 기반 친족집단

이자 왕실을 압박한 귀족 가문으로 규정한 시각은 E. J. Shultz(1983 참조)에서도 확인됨

- 노명호(1987)는 고려를 양측적(총계적) 친속 사회로 규정해 부계 친족집단설 기반 문벌귀족사회론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한편, 이자겸 족당의 부변·모변·처변 친속관계망 속 정치적 신념·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음. 또한 계급내혼 단위의 대귀족·중소 귀족이 계급적 이해 위에서 어떠한 정치적 향배를 보이며 고려 중기 정치사를 전개하였는지 분석하였음[27]
- 후속 연구는 부계 친족집단설을 상정한 과거 분석 틀을 지양하고 '문벌 네트워크' 개념이 학계에 공유되었음. 이후 이자연, 이자겸 등은 경원이씨 부계 친족집단 대표(家主)가 아닌 "총계적 친속관계와 계급내혼을 기반으로 한" 문벌 네트워크 대변인으로 인식됨[28]
- 왕실과 외척을 시종일관 대립적 관계로 상정한 기존 연구 경향에 문제 제기로 채웅석(2014)과 김창현(2016)은 왕실에 대한 외척의 보정(輔政) 기능 정당화 기제들을 검토하였음. 외척의 정치참여를 권력 사유화로 폄훼하던 편견에서 벗어나 당대 정치구조 속 공식화 방식을 분석하려는 시도였음. 특히 보정의 명분이 되는 사상적 기반에 천착해 채웅석은 유교의 친친(親親) 윤리, 김창현은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불교 담론으로 접근하였음
- 외척·왕실 관계성 입체적 분석, 외척 정치적 기반 구체적 검토로 고려 중기 정치사 이해는 한층 심화되었으나 특히 이자겸이라는 돌출적 인물 등장 배경과 그의 권력을 공식화하기 위하여[29] 동원된 공적 시스템 연구는 부족함. 고려시대 외척의 권력은 후비의 영향력에서 나와, 후비의 영향력은 자손 유무와 차기 국왕 배출 여부로 결정되었다고 지적됨.[30] 권력의 크기는 관료제 논리 속에서 부여된 공적 지위로 증명되었음.[31] 즉, 외척의 실질 권력은 왕실의 혼인전략, 생물학적 우연, 국왕으로부터 파생된

27) 본고의 親族·親屬·父系·母系·總系 등 인류학 개념어에 대한 정의는 노명호(1988: 1~19쪽) 참조.
28) 채웅석(2014: 344쪽). 고려중기 정치세력의 인적네트워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문벌 네트워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선행연구로 김병인(2001); 신수정(2005); 임영희(2023); 장상주(2019) 등을 들 수 있음
29) 이자겸은 오랫동안 관료로서 공적 활동을 전개하다가 외손 인종의 즉위를 계기로 특수한 위상을 추가 보유하게 되었음. 인종 초 이자겸에게 부가된 특수한 위상과 그로부터 비롯된 권력을 고려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공인하였는지 드러내고자 본고는 '공식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30) 김창현(앞의 논문: 86쪽)
31) 채웅석(앞의 논문: 340쪽)

친인척 관계를 공식화하는 제도적 틀의 상관성을 치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이해해 보아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

- 이자겸은 현왕의 외조부 위상을 생전에 보유한 최초의 관료이자, 부변·모변·처변의 인적 유산과 세력 기반을 활용해 외손 인종을 보위한 즉위 공신이었음. 이자겸이 조선국공의 공적 기반을 활용해 참칭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지국군사 직위는 군주권을 대리할 수 있어 결코 고려 관료제 논법에서 허용될 수 없었음. 참칭을 계기로 이자겸과 인종의 반목과 이자겸 지지 문벌네트워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최신 연구도 있음[32]

경서동 녹청자 요지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 언덕에 있는 고려시대 녹청자 가마터로 1970년 6월 8일 대한민국 사적 제211호로 지정되었음. 이곳에 가마터가 있다는 사실이 1949년 무렵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장 이경성이 발견하고 보고해 알려진 이후, 국립중앙박물관 주도로 1965년 12월~1966년 5월 네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 요지는 모두 5곳으로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2002년 인천서구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사료관이 개관하였다가, 2011년 인천서구 녹청자박물관으로 명칭 변경되었음. 경서동 녹청자 연구 11편(석사논문 2편)과 발굴조사 보고서 1편이 있음

❍ 녹청자(綠靑瓷)라는 용어는 1965년 경서동 가마터를 발굴한 최순우(1966)가 '가칭'(假稱, 임시로 부름)하여 "비교적 정선된 청자계의 얇은 태토(胎土)위의 조질(粗質)의 녹청색시유(綠靑色施釉)를 한 것"으로 정의하였음

❍ 지방 수요를 위한 조질청자(粗質靑磁, 綠靑瓷) 제작지로 알려져 있으며 잔존 가마는 길이 7.3m, 폭 120cm 내외로 토축요임. 출토품은 대접, 완, 접시 등이 주류이고 자배기, 반 구형장경병, 항아리 등이 있음. 녹갈암녹색의 유조를 띠며 갑발은 사용하지 않고 가마 바닥에 경사진 도침(陶枕)을 받쳐 재임하였음. 흐릿하지만 분명 굽을 옥벽저형으로 깎은 것이 있음[33]

32) 황향주(2024).
33) 장남원. (2005).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왼의 지속현상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인천문화연구, 5.

경원정·이규보

❍ 『고려도경』에 따르면 자연도(紫燕島, 현 영종도)에 '경원정'이라는 관사(館舍) 곁으로 막집(幕屋) 수십 칸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음. 또한 승려 2~3명뿐인 제물사(濟物寺)라는 작은 절이 있었는데, 송나라 신종(神宗, 1067~1085) 때 사신 송밀(宋密)이 이 섬에서 사망한 이후 중국 사신이 올 때면 제물사에 들러 제사를 올렸다고 함.[34] 이로 미루어 11세기 후반 영종도에 경원정이라는 정자와 제물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고려 후기 문신 이규보(1168~1241)가 1219년 계양부사를 지내며 남긴 시 중 '충원(忠原)의 서기 최인공(崔仁恭)과 자연도 제물원(濟物院)의 정자에서 놀며 판위에 걸린 제공(諸公)의 운을 따서 시를 짓다'라는 율시는 자연도 제물원 정자에 올라, 지는 해와 바다의 경치를 보며 감상을 읊은 것임[35].

❍ 목은 이색(李穡)의 아버지 이곡(李穀, 1298~1351)이 남긴 '제물사에서 묵으며 벽위의 싯구에 차운하다'라는 율시는 제물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정자에 올라 한밤의 정취를 읊은 것임[36].

❍ 이규보·이곡 모두 자연도 제물사(제물원) 정자에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인천도호부 산천 조에 '옛날 자연도에는 경원정이라는 객관(客館)이 있었다'는[37] 기록이 있고,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의 '변어전고(邊圉典故)'와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도[38] 같은 내용이 전해 이 정자가 『고려도경』에 기록된 경원정임을 알 수 있음

❍ 경원정의 위치를 김정호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중국 명대 지리책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인용해 월미도 행궁으로 지목했고,[39] 일본강점기 『인천부사』(1933)에서는 중산동 구읍뱃터로 보기도 했음.[40] 경원정 위치 비정을 영종도 백운산 동쪽 운남동 일대로 보고 있으나[41], 구읍뱃터 선착장이었던 '영종도 중산동 일

34) 『선화봉사고려도경』권39, 海道 6 紫燕島
35) 『동국이상국전집』권15, 古律詩「與忠原崔書記仁恭 遊紫鷰島濟物院亭 用板上諸公韻賦之」
36) 『가정집』권15, 律詩 宿濟物寺 次壁上韻」
37) 『신증동국여지승람』권9, 경기 인천도호부 山川조
38) 『연려실기술』별집 권17, 邊圉典故 海浪島, 동국여지지』권2, 경기 左道 인천도호부
39) 『대동지지』권4, 永宗浦鎭 月尾島 島之東南有行館 大明一統志云 舊有客館曰慶源亭是也
40) 『仁川府編,『仁川府史』昭和 8年(1933), 28쪽.

대'로 새롭게 비정했음. 또한 경원정에서 멀지 않을 곳에 있었던 옛 안양사를 제물사의 유력 후보지로 꼽음[42]

- 인천 역사학계가 제물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옛 지명인 제물포(濟物浦)의 시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임. 현재 '제물(濟物)'이란 단어의 가장 이른 기록이 『고려도경』에 묘사된 제물사임. 조선시대에는 월미도 앞에서 강화도 염하수로 일대를 제물량(濟物梁)으로 불렀음. 이를 통해 인천의 옛 이름이 제물포로 불린 것으로 보임

굴포

- '굴포'라는 말은 '흙을 파낸 하천'(우리말로 '판개')이란 뜻에서 알 수 있듯, 굴포천은 한강까지 통수(通水)가 잘되도록 인공으로 깊이 뚫어 붙은 이름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 생산 곡물을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 강화 손돌목을 거쳐 한양으로 운송했음
- 손돌목 밑에 사슴뿔같은 암초가 많아 배들이 자주 조난하자, 이를 피하고자 고려 고종때 최충헌의 아들 최이(崔怡)가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평벌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흐르던 하천을 개조하고, 인천 제물포 쪽과 연결해 수로개설을 시도했다고 함
- 조선 중종대 김안로(金安老)가 최이의 계획대로 하천을 파기 시작했지만, 원통이고개(현 부평삼거리역 인근)를 뚫지 못했다고 함. 그때 뚫지 못한 곳이 간석이고 그때 판 하천이 지금의 굴포천이며, 그때 이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임[43]
- 기록상 굴포천 유역 개간이 본격 시작된 시점은 12세기 초부터로 고려시대 최이·조선 중중대 김안로의 개착 시도가 전해지는 굴포운하는 사료적 근거가 부족하며 남아 있는 기록 역시 270년 뒤 작성되어 사실 여부를 확증하기 어려움. 1905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경인운하계획'을 통해 비로소 근대적 운하 개착이 시도되었지만,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식민통치 미화 홍보성 계획에 머무르고, 해방 후에도 각 정권이 업적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했음[44]

---

41) 문경호(2010: 501쪽).
42) 허우범(2022).
43) 박광성. (1972). 金浦 掘浦와 轉漕倉에 對하여. 기전문화연구(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

그 외

○ 1219년(고종 6) 계양도호부에 계양도호부부사(桂陽都護府副使) 병마검할(兵馬鈐轄)로 부임한 이규보가 부평에 남긴 시를 분석해 의의를 정리한 것,[45] 인천의 원 지명 연혁을 정리한 것,[46] 려말선초 교동의 군사적 기능을 검토한 것,[47] 강화도 김취려(金就礪) 묘(문화재자료 제25호)에 대한 문화재 지청의 문제점을 지적한[48] 글들이 있음

○ 개설적인 내용을 정리한 『(인천시사편찬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총 3권) 등 7건이 있음

- 2023년에 편찬된 『(인천시사편찬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의 『역사학이 탐구한 인천』 중 「고려 왕도의 공간, 인천」(강옥엽)은 인천지역의 호족 중 인주 이씨가 혼인을 맺어 고려 왕과 왕비의 외가 혹은 친정으로 7대에 걸쳐 문벌세력을 형성했던 것과 강도시대(1232~1270) 왕궁의 조성 과정, 왕릉의 묘주로 추정되는 왕과 왕비, 이허겸의 사당인 원인재(源仁齋) 등 인천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의 역사문화유산을 정리하였음

〔표 3-1〕 인천(수주·인주)지역 공간 관련 문헌사·고고학 연구 논문 목록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주제 분류
1	김병인	2003	高麗 睿宗代 政治勢力 硏究 : 韓安人과 李資謙을 중심으로	인주(경원) 이씨와 이자겸 (17)
2	김보광	2025	덕겸(德謙)과 관오(觀奧)의 행적과 고려전기 승정(僧政)의 일면	
3	김아네스	2024	고려 중기 왕실과 혜덕왕사 소현	
4	김윤곤	1976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대하여	
5	김창현	2003	고려 11세기의 정치와 인주 이씨	
6	김효섭	2025	11~13세기 성씨로 표현된 부계 혈통과 친족 범위 – 경원이씨(慶源李氏) 사례를 중심으로	
7	노명호	1987	李資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 –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8	신수정	2005	고려시대 慶源李氏 家門의 정치적 변화에서의 혼인망 – 이자의 ·이자겸 난과 관련하여 –	
9	윤경자	1965	高麗王室과 仁州李氏와의 關係	

44) 류창우. (2018).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하' 계획.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9
45) 김양수. (1973). 富平에 남긴 李奎報의 글. 기전문화연구(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3; 정기호. (1994). 이규보(李奎報)의 계양시문(桂陽詩文)〈上〉·〈下〉. 황해문화(새얼문화재단), 2·3; 김호동(2003).
46) 오영태. (1994), 富平地域의 地方行政體制 變遷에 관한 硏究. 기전문화연구(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2·23; 남달우. (2002). 仁川의 邑號 陞降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 서영대. (2010). 인천의 읍격 변화와 그 원인 연구,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3.
47) 임용한. (2004).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4.
48) 이형우. (2024). 인천시 문화재 지정 문제점에 대한 연구 – 김취려 묘, 이승훈 묘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40.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주제 분류
10	윤한택	1992	高麗前期 慶源 李氏 家의 科田支配	
11	이만열	1980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12	임영희	2023	고려 예종 대 이자겸의 정치적 성장과 성격	
13	정선모	2019	李子淵의 北宋使行考 -『破閑集』 수록 甘露寺 시문을 중심으로	
14	추만호	1985	李資謙의 軍事基盤 理解 上 -「僧軍基盤」說 檢討를 중심으로	
15	황향주	2024	이자겸의 집권 배경과 인종초 이자겸 권력의 공식화	
16	후지타 료사쿠 (藤田亮策)	1933	李子淵と其の家系 上	
17		1935	李子淵と其の家系 下	
18	김양주	1972	경서동록청자요지	경서동 녹청자 요지 (12)
19	김영원	1990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출토유물	
20	서재인	2001	인천녹청자도요지 제작편년에 관한 연구	
21	안 영	1977	韓國綠靑磁에 關한 考察 :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를 中心으로	
22	이경성	1960	仁川博物館藏 元大德二年銘 鐵製梵鐘	
23	이병하	2009	경서동 녹청자 재현에 관한 연구	
24	이세우·조일묵	2013	인천 경서동 녹청자 태토 및 유약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25	이종민	2005	'경서동'계 조질청자의 생산과 수요	
26	이한상	2009	「現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현황과 과제	
27	장남원	2005	고려전기 해무리굽(옥벽저계) 왼의 지속현상에 대한 몇가지 생각	
28	최순우	1966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 發掘調査 槪要	
29	국립중앙박물관·인천직할시	1990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30	오영태	1994	富平地域의 地方行政體制 變遷에 관한 硏究	인천 및 부평의 연혁(3)
31	남달우	2002	仁川의 邑號 陞降에 관한 연구	
32	서영대	2010	인천의 읍격 변화와 그 원인 연구	
33	김양수	1973	富平에 남긴 李奎報의 글	이규보 (3)
34	정기호	1994	이규보(李奎報)의 계양시문(桂陽詩文)〈上〉·〈下〉	
35	김호동	2003	桂陽都護府使 李奎報의 활동을 통해 본 고려 군현통치의 실상	
36	박광성	1972	金浦 掘浦와 轉漕倉에 對하여	굴포(2)
37	류창우	2018	굴포천 개착과 '경인운하'계획	
38	허우범	2022	高麗圖經에 보이는 慶源亭의 위치 고찰	경원정(2)
39	문경호	2010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40	임용한	2004	14~15세기 喬桐의 군사적 기능과 그 변화	교동(1)
41	이형우	2024	인천시 문화재 지정 문제점에 대한 연구 - 김취려 묘, 이승훈 묘를 중심으로	인천 문화재(1)
1	강옥엽, 강덕우	2018	문답으로 엮은 인천 역사	인천 광역시사 등 (7)
2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 천년의 문화사 : 고려전기(경원 이씨, 이자연李子淵)	
3	인천직할시	1973	인천시사(상·하)	
4	인천직할시	1993	인천시사(상·중·하)	
5	인천광역시	2002	인천광역시사(총 6권)	
6	인천광역시	2013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7	인천광역시	2023	(인천시사편찬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총 3권)	

○ 최근 10년간의 발굴조사 보고서는 40건이나 강화 강도사에 비해 주제 범위나 논문 수는 부족한 편임

〔표 3-2〕 인천지역 발굴 조사보고서(최근 10년간) 목록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계양산성Ⅱ -4차 시·발굴조사보고서』
2		2016	『계양산성Ⅲ』
3		2017	『계양산성 Ⅳ』
4			『인천 소야도 유적』
5		2019	『계양산성 Ⅴ』
6		2019	『계양산성 Ⅵ』
7		2021	『인천 옥련동 유적』
8		2022	『계양산성 Ⅶ』
9		2023	『인천 선학동 98-1번지 유적』
10		2025	『계양산성 Ⅷ』
1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14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12	국토문화유산연구원	2018	『인천도호부 유적』
13		2021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14		2025	『인천 선주지동 산13-4번지 유적』
15	기호문화유산연구원	2016	『인천 산곡동 유적』
16	대동문화유산연구원	2020	『인천 검단지구 유적Ⅰ~Ⅳ』
17	미래문화유산연구원	2021	『인천 백석동 한들유적』
18	백두문화연구원	2020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유적』
19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15	『인천 가정동 구석기유적』
20		2023	『인천 옥련동 산22-1번지 유적』
21		2025	『인천 원창동 산61번지 유적』
22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22	『인천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 유적』
23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8	『桂陽山城』
24	수도문물연구원	2022	『인천 선학동 58-2번지 유적』
25		2024	『인천 오류동 산59번지 유적』
26	역사문화유산연구원	2024	『인천 석남동 257-4번지 조선시대 분묘 유적』
27	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28	중앙문화유산연구원	2017	『인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인천 왕길동유적』
29		2019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부지 Ⅳ』
30	청구고고연구원	2016	『인천 가정동 유적1』
31		2018	『인천 가정동 유적Ⅱ』
32	충청문화유산연구원	2018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33	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12	『인천 십정동 유적』
34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8	『인천 문학산 제사유적』
35	한백문화유산연구원	2022	『인천 선학동 427번지 유적』
36	한빛문화유산연구원	2021	『인천 검단 불로동 유적(청동기~조선시대)』
37	한성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서창동 유적』
38		2021	『인천 석남동 유적』
39	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1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40	호남문화유산연구원	2020	『인천 검단 마전동·원당동·불로동 유적』

(2) 강화 강도 영역

○ 1231년(고종 18) 고려는 몽골 침략에 맞서 지리적 조건이 방어에 유리한 강화를 전시 수도로 주목하면서 강화는 교역·교통 중계지로서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큰 의미를 부여받음. 몽골과의 항전 와중 새로운 도읍, 정치 및 항쟁 중심도시로 빠르게 부각됐고 섬이 수도의 천도지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음

- 강화는 수전(水戰)에 취약한 몽골군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島嶼)라는 점, 육지에 가까우면서도 조석간만의 차와 조류 등 효과가 크다는 점, 개경과의 근접성, 지방과의 연결 혹은 조운(漕運) 등 편의성에서 월등하였음. 몽골군에 항복 아니면 수도를 옮겨서까지 항전하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후삼국 통일 후 잊혀졌던 지리·군사적 효용성이 다시 드러나 임시수도로 선정되며 이후 38년간 수많은 역사 기록과 유적·유물을 남김
- 『고려사』 지리지에 따르면, 1232년 천도 이후 강화현은 강화군으로 승격되고 '강도(江都)'로 호칭되었음. 개경과 같이 황제의 도읍이라는 뜻의 황도(皇都)로 불렸으며, '강화 황도'의 줄임말로 여겨짐. 당시 강도는 신경(新京)·신도(新都) 또는 개경 시절과 같이 경성(京城)으로도 불리었고, 개경은 구경(舊京)·구도(舊都)·고경(古京) 등으로 불리었음
- 경주 1천년, 개성 5백년, 한양 6백년(서울 2천년) 등 고대 이래 한국 역사를 주도해 온 가장 중심적 공간, 이른바 한국의 대표적 역사 도성들이 알려져 있으나, 이에 버금하는 위상을 갖는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 백제 수도였던 공주·부여·익산, 그리고 가야의 도읍 등도 있음. 이 중 가장 주목받지 못한 중세의 '강도(江都)'는 개성을 대신하여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8년간 유지되었던 고려시대 도성임
- 38년간의 '강도시대'는 다른 도성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49] 자료가 크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강도는 몽골제국 침입이라는 세계사적 규모의 외침에 맞서 고려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켜낸 중심 공간이었음. 고려 국도(國都) 개성 출입과 연구가 오랫동안 제한된 현실에서, 실질적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했던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중세 도성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임

49) 백제 수도를 한성에서 현재의 공주로 천도한 이후의 시대를 웅진시대(475~538년), 부여로 천도한 이후를 사비시대(538~660년)라고 함. 따라서 강도 역시 이 두 도읍에 비해 결코 짧지 않은 시기임

- 강도는 좁은 의미로는 강화군(강화현의 개칭) 도성 안을 의미하며 근교(近郊)도 포함할 수 있는데 대개 북쪽 송악, 남쪽 대문현 능선, 동쪽 장령(장봉: 갑곶과 월곶 사이 해안가 산)과 갑곶강(염하), 서쪽 고려산, 서남쪽 혈구산으로 둘러싸임. 넓은 의미로는 강화군·하음현·진강현 포함 강화도 전체로 파악됨. 개경 행정편제처럼 도성 밖 가까운 지역은 동·서·남·북의 4교(郊)로, 먼 지역은 경기로 편제되었을 것임. 『고려사』 세가에 따르면, 고종 22년(1235) 윤7월에 광주(廣州)와 남경(양주: 한양) 합입(合入) 조치를 취해,[50] 강화는 거대 수도로 변모했음. 관리는 대부분 도성 안에, 특히 농민 등 서민은 대부분 도성 밖에 거주했을 것임

고려궁지 위치 비정 문제: 국가사적 지정

○ 수많은 흔적을 남긴 고려 강도의 문헌 자료를 통한 강화 도성 연구는 대략 800년 역사를 갖고 있음. 강화도 고려 유적에 현저한 관심은 일제 강점기부터로, 봉분이 크지 않은 고려 고분 특성상 도굴이 쉬워 집중적 대상이 되었고 특히 일본인이 선호하는 청자 등이 다량 도굴되었음. 일제 강점기 강화도성 고려궁지와 성곽문제에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1916년 조선총독부 위촉으로 강화지역을 조사한 이마니시 류(今西 龍, 1875~1932)였음

- 이마니시 류는 "고려 국도가 지금 부(府)의 북쪽 송악산에 자리한 것은 송도의 송악산과 같은 것으로 고려 국도가 오늘의 부성(府城) 위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확실하다"(1917: 226쪽)며 조선조 행궁·유수부가 있는 일대를 고려궁지로 보아,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1932)에도 반영되었음. 송악산 남쪽 구릉지에 옛터 유허가 많이 남아 있고 개성 만월대와 흡사하다는 것임. 또한 그는 『고려사』에 언급된 강도 중성을 강화부성(강화산성)에 비정하고, 아울러 1783년 강화유수 김노진(金魯鎭)이 편찬한 『강화부지(江華府誌)』 등에서 언급한 '장령(長嶺)의 성문현(城門峴)', '선원(仙源)의 대문현(大門峴)' '인정(仁政)의 서문현(西門峴)' 등을 강화 외성 성문으로 보아 고려시대 연구 1세대라 할 이병도, 김상기의 견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
- 이병도(1948)는 개경과 동명의 강화 읍내 진산인 송악산의 국세(局勢)가 개경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 강안(江岸)으로부터 적의 방어를 고려한 지리적 조건, 성곽과의

50) 『高麗史』권23, 세가23 高宗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관계 등을 고려해 조선시대 행궁·유수부 동헌이 있었던 현재의 '고려궁지'(사적 133호)를 고려 궁궐터로 지목하였음. "지리상으로 보더라도 (강화의) 송악산 하의 국세는 개경 만월대의 그것을 연상할 만큼 방불한 조건을 구비하였을 뿐더러, 그 정중(正中)한 품이라든지 강안(江岸)에서의 방적(防敵) 거리로든지 결코 동남쪽 정자산(亭子山, 현 見子山) 외에 비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였음.[51] 이는 이마니시 류와 같은 견해로, 김상기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이로부터 조선조 행궁과 유수부가 위치한 일대는 '고려궁지'로 확정되어 1964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음

강도시대 성곽 위치 비정 문제: 재정리·조정

○ 1970년대 군사정부는 '국난 극복의 역사'에 주목하고 제주도 항파두성 등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삼별초 유적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음.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강화 해안 관방유적과 함께 '고려궁지' 정비공사가 이루어져 당시 고려궁지 위치에 대해서는 대개 일치하였지만, 성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 이병도는 조선시대 강화산성이 대체로 고려 내성(內城)에 해당하고, 외성(外城)은 강화도 동쪽 해안을 두른 것, 그리고 선원면 대문현 토성이 중성(中城)의 잔적(殘跡)이라 하였음. 강화산성을 '내성'으로 칭한 것은 『강화부지』 등에, 대문현 토성을 중성으로 본 것 역시 『강도지』 등에 언급되어 있음. 강화도 동쪽 해안 고려시대 강도 외성은, '중성'보다 조금 더 남서쪽인 "불은면 삼성리, 서문동, 삼동암리, 신현리, 덕성리 및 동안(東岸) 일대를 위요(圍繞)한 토루(土壘)"(앞의 책: 286쪽)를 지목하였음[52]
- 김상기(1948)는 강도시대 내성은 궁궐을 두른 일종의 궁성 성격이라 보고 위치는 '고려궁지' 남쪽 좁은 범위로 설정해 '고려궁지' 아래쪽 김상용(金尙容) 선생 순절비각(殉節碑閣) 정도 범위였을 것으로 파악하였음. 동시에 조선조 강화산성을 고려 중성, 그리고 이병도가 비정한 중성을 외성에 비정함으로써 차이를 보였음.[53] 즉, 이병도가 외성을 밖에서 구함으로써 강도 성곽의 범위를 더 넓게 상정하였음[54]

51) 이병도(1948: 285~300쪽). 이병도는 조선시대의 內城을 고려 강도의 중심 도성으로 보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行宮 基址를 新宮으로, 亭子山 부근의 遺墟를 離宮 혹은 기타 건축물로 이해하였음
52) 이병도(앞의 책: 286쪽).
53) 김상기(1948: 195쪽).
54) 윤용혁(2017: 11~12쪽) 참조.

○ 1980년대 이후 윤용혁(1991, 일지사)은 강도가 대몽항전 전 기간에 걸쳐 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몽항전 연구사의 일부로서 접근하였음. 그는 「高麗의 對蒙抗爭과 江都; 江華遷都(1232)와 江都 경영을 중심으로」(1986), 「대몽항쟁기 고려 무인정권의 江都生活」(1987), 「고려 대몽항쟁기의 불교의례」(1990)와 함께 고려궁지 문제의 문헌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부동십리(府東十里)' 기록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고려궁지' 위치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이병도와 김상기의 의견을 참고해 '고려궁지' 위치 비정 논리를 재정리·보완하였음

- 중성에 대해서는 대문현 등으로 이어지는 토성, 그리고 해안에 외성을 구축하였다는 이병도의 견해를 지지하였지만, 내성의 경우 현재 읍내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축성의 강화산성과는 환축 범위가 크게 차이 난다고 지적하였음. 조선조 강화산성은 송악산-견자산으로부터 남산까지 포괄하는 둘레 7.1km 범위인데, 고려 내성은 둘레 2km 정도 소규모 궁성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음
- 내성은 김상기의 견해대로 읍내 송악산 남사면 좁은 면적을 상정하고, 중성과 외성은 이병도의 견해를 따르는 형태로, 강화 읍내에 잔존한 강화산성은 고려시대와는 관련이 적은 것임을 강조하였음. 즉, 강화 도성 체계에 대하여 강도 내성은 궁성, 중성은 도성, 외성은 해안 방어성 성격으로 정리하였음.[55] 윤용혁의 논지는 기왕의 의견을 재정리하고 조정하는 성격이 강하였음[56]

2000년대 강도사 연구 진전과 다양화

○ 1980년 윤용혁에 의해 주도된 강도사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연구의 진전을 가져왔음

- 인천가톨릭대 겨레문화연구소에서 2000년 5월 20일에 '고려시대 강화도읍사의 재조명'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5편의 글이 발표되어 2004년 『누리와 말씀 : (World and word)』 15호에 게재되었음
  - 「대몽항쟁기의 강화문화」(이희덕),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윤용혁), 「고려의 강화 천도와 대몽항쟁의 해양적 성격」(윤명철), 「강도 시절 유물 유적」(이상태), 「강도사 연구의 쟁점들」(김기덕)[57]

55) 윤용혁(2002: 18~30쪽).
56) 윤용혁(2017, 앞의 책: 12쪽).
57) 김기덕은 이때 발표한 글을 「고려시대 강화도읍사 연구의 쟁점」(2000)으로 다시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 선원사의 위치 비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 「강화 선원사의 위치 비정」(이종철·조경철·김영태, 2001, 『한국선학』, 2), 「高麗 『八萬大藏經』의 江華島 彫板과 禪源寺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문제」(임학성, 2002, 『인천학연구』, 1)
- 강도의 도시공간
  -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윤용혁, 2002, 『역사와 역사교육』, 7)
- 2003년 『신편 강화사(상·중·하)』(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가 출간되면서 앞선 연구성과를 담아내었음
- 2004년 11월 6일 인천시립박물관 제2회 학술회의 '고려시대 강화의 사회와 문화'에서 6편이 발표되어 『인천문화연구』 제2호(2004)에 게재되었음
  - 「강화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고려시대를 중심으로」(박은경), 「고려의 강화천도와 그 배경」(강옥엽), 「고려 강도의 짜임과 그 배경」(김창현), 「강화 고려고분의 유형과 구조」(이희인), 「강도시기에 완성한 고려대장경의 의미와 제문제」(오용섭), 「강화의 강도시기 도자문화」(한성욱)
- 2005년에는 강도의 주요 시설을 주목하고 『국사관논총』 제106호에 발표되었음
  -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윤용혁),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김창현), 「고려시대 강화의 寺院 연구」(김형우) 등
- 김창현은 이 무렵 다수 연구를 꾸준히 발표하였음
  - 「고려 江都의 짜임과 사회상」(2004a, 『인천문화연구』, 2),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2004b), 「고려 江都의 신앙과 종교의례」(2005, 『인천학연구』, 4), 「고려 江都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2007)
- 2009년 11월 5일 강화 천도 777주년 기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 학술발표회에서 '강화 강도시기의 고려 궁지 복원을 위한 제검토'란 주제로 5편이 발표되어 결과물이 2009년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 보고서』로 출간되었음
  - 「고려 도성으로서의 강도의 제문제」(윤용혁), 「강도 궁궐의 입지와 개경 궁궐의 풍수 비교」(김기덕), 「강도 고려 궁궐과 행정 시설의 축조과정」(김창현), 「강화 강도시기의 성곽 건설과 파괴 과정」(신안식), 「강화 고려궁지 지표조사」(한성욱)
- 2010~2015년 개인 연구

• 「강도시대 성곽의 현황과 성격」(박성우, 2010),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신안식, 2010), 「고려시대 江都 宮闕의 풍수지리적 고찰」(김기덕, 2011), 「13세기 江都 및 開京의 사찰 운영」(강호선, 2013), 「고려 강도 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이상준, 2014), 「고려 도성으로서의 江都의 제문제」(윤용혁, 2010),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윤용혁, 2011), 「고려 강도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윤용혁, 2015)

- 2016년 12월 9일 인천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 학술회의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에서 1부 '강도 시기 고고 유적의 발굴 조사 성과'의 고고학적 성과 및 2부 '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 연구의 쟁점과 과제'의 문헌 분석 총 8편이 함께 발표되어, 이러한 강도사 연구 성과는 2016년 『신편 강화사 증보(상·중·하)』(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기조강연) 「고려시대 강화 도읍의 공간 구조와 그 특징」(윤용혁)
  - (1부) 「강화 관청리 657번지 및 163번지 유적」(현남주),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김효환), 「강화 월곶리·옥림리 유적」(권순진), 「강화 옥림리, 신봉리 · 장정리 유적」(김정인)
  - (2부) 「고려시대 강화도읍 궁궐」(김창현), 「고려 강도 시기 성곽 연구의 현황과 과제」(이희인), 「강화 고려 왕릉의 구조와 성격」(이상준), 「고려 강도 시기 주요 사찰의 위치와 쟁점」(김락기)
- 이희인은 이 무렵 강도 성곽 연구를 지속함
  - 『고려 강도 연구』(2012), 「고려 강도 해안 외성에 대한 검토」(2014), 「고려 강도 성곽의 체제와 위치 고찰」(2015), 『고려 강화도성』(2016), 「고려 강도의 건설과 공간구성」(2019)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2007년에 개소하자마자 바로 강도 문헌사와 고고학적 성과를 정리하여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에서는 10편의 글을 발표, 『강화 고려도성 고고자료집』에서는 성곽, 건물지, 분묘, 절·사지, 기타(도요지, 제사시설) 등 구분하여 정리, 『강화 고려도성의 자연지리학적 연구』에서는 강화 도성의 자연지리학적 환경 분석과 강화도성 고지형 복원 및 고려궁지 추정을 하였음
  - 「강도사 연구의 쟁점」(윤용혁), 「강화천도의 배경과 의의」(홍영의), 「강도시기의 무인정치와 정치세력」(이형우), 「강도시기의 대외관계와 대몽항쟁」(이익주), 「강도의 생활공간과 강도인의 생활」(김창현),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이희인), 「강도시기 궁성(본

궐)의 위치와 구조」(정학수), 「강도시기의 왕릉」(이상준), 「강도에서의 사원운영과 불교의례」(강호선), 「江都時期의 靑瓷文化」(한성욱)

- 최근 논문
  - 「江都時期 고려 왕실의 假闕 조영과 延基業」(김성환, 2020), 「강화도성, 또 하나의 고려 황도」(윤용혁, 2021, 『고려 황도 강화』, 강화역사박물관 기획전시 도록), 「강화의 고려시대 건물지와 성격 비정-발굴조사 사례를 중심으로」(이제원, 2021, 『고려 황도 강화』, 강화역사박물관 기획전시 도록)
- 2019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술세미나 『고려시대 능묘의 조영과 문화』에서 강도 고분을 이해하려는 일환으로 유적 사례발표 및 주제발표 총 7편이 발표되었음[58]
- 2021년 수원대학교박물관 주관으로 『강도궁궐 학술포럼』에서는 6편이 발표되었음
  - 「고려시대 강화, 강도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홍영의), 「문헌 중심으로 본 강도 도성과 궁궐」(김창현), 「고려 강도의 공간과 본궐 위치」(이희인), 「강도 궁궐의 구조와 고찰」(이상준), 「GIS를 이용한 강도의 성곽 체계와 궁궐의 위치」(강동석), 「고지형분석을 통한 강도 궁궐지역 지형복원 연구」(허의행)
- 2022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 『강화도성의 구조와 운영』를 통해 최근 조사된 강화 도성 관련 유적을 소개하고, 강화 도성 구조와 운영방식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 7편을 소개하였음[59]

○ 강도의 역사 공간에 대한 연구 논문은 2025년 현재 총 89편, 단행본 11편(『강화사』 2편, 도록 1편 포함)에 불과해 800년 역사를 가진 강도사 연구로는 매우 부족한 편임

- 논문 89편 가운데 1980년대 2편(윤용혁), 1990년대 2편(서영대, 이상선)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대 이후 발행임
- 연구 주제 또한 대부분은 궁궐, 성곽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
- 대표적 연구자는 윤용혁(10편, 단행본 1건 포함), 이희인(10편, 단행본 1건 포함), 김창현(9편) 순으로 이들의 연구가 전체 51% 이상 차지한다는 점도 유의할 점임

○ 2032년 강도 800년사를 위해 새로운 연구자 육성, 다양한 주제의 질적·양적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58) 1절 1-2. 외부 연구기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내용 참조
59) 1절 1-2. 외부 연구기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내용 참조

〔표 3-3〕 강도 공간 관련 문헌사 연구 논문 목록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비고
1	강동석	2021	GIS를 이용한 강도의 성곽 체계와 궁궐의 위치 재고	논문
2		2021	고려 강도(江都)의 성곽과 궁궐 재고찰	
3	강옥엽	2004	고려의 강화천도와 그 배경	
4		2023	고려 왕도의 공간인천	
5	강석화	2013	강화 관방유적의 현황 및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방안	
6	강재광	2018	강화 천도의 외교적 배경과 대몽전쟁기 경기도 권역의 군사적 대응	
7	강호선	2013	13세기 江都 및 開京의 사찰 운영	
8		2017	강도江都에서의 사원운영과 불교의례	
9		2023	고려 강도(江都)시기 사원의 경영과 역할	
10	김기덕	2000	고려시대 강화도읍사 연구의 쟁점	
11		2009	강도 궁궐의 입지와 개경 궁궐의 풍수 비교	
12		2011	고려시대 江都 宮闕의 풍수지리적 고찰	
13		2013	강화지역의 역사유물 및 유적의 가치와 활용	
14	김도연	2022	물품사여를 통해 본 강도(江都) 시기 최우의 권력	
15		2022	최우의 강화천도와 권력	
16	김락기	2016	고려 강도 시기 주요 사찰의 위치와 쟁점	
17	김상태	2014	인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강화·고려사	
18	김성환	2015	세계유산 등재기준에서 참성단의 가치와 등재 준비	
19		2020	江都時期 고려 왕실의 假闕 조영과 延基業	
20	김재홍	2013	강화지역유물의 현황과 활용 방안	
21	김창석	2021	고려 강도의 공간과 본궐 위치	
22	김창현	2004	고려 江都의 짜임과 사회상	
23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24		2005	고려 江都의 신앙과 종교의례	
25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26		2007	고려 江都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27		2016	고려 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계승 방식의 변화	
28		2009	고려 강도의 궁궐과 관청의 조영과 위치	
29		2017	강도의 생활공간과 강도인의 생활	
30		2021	문헌 중심으로 본 강도 도성과 궁궐	
31	金炯佑	2005	고려시대 강화의 寺院 연구	
32	김형우	2013	강화역사유적지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초적 제언	
33	문경호	2021	고려 강도(江都)시기 강화도의 주요 포구와 물자 유통	
34	민현구	2015	고려대장경 조판의 정치적 환경(기조강연)	
35	박성우	2010	강도시대 성곽의 현황과 성격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비고
36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9	부록 강화 고려궁지 관련 문헌 자료	
37	박은경	2004	강화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38	박진훈	2014	고려시대 장례 절차에서의 변화상과 강도(江都) 시기 장례—관인(官人)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39	빈경민	2021	고려 강도궁궐 위치 연구	
40	서성호	20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강화 유물 소개	
41	서영대(徐永大)	1999	강화도의 塹城壇에 대하여	
42		2008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43		2013	참성단,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세계유산으로	
44	서지영	2025	고려 강도시기 수창궁의 입지 범위와 위치 비정	
45	신안식(申安湜)	2009	강도시기 도성 성곽의 축조와 위상	
46		2010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47	양정석·허의행	2023	고지형 분석 기반 강도 궁궐 배치 구조 시론	
48	오용섭	2004	江都시기에 완성한 高麗大藏經의 의미와 제 문제	
49		2015	고려대장경의 판각·봉안과 강화도	
50	유부현	2015	동아시아 대장경의 제작과 고려대장경의 가치	
51	유홍준	2013	민족문화유산의 보고 江華(기조강연)	
52	윤용혁(尹龍爀)	1986	高麗의 對蒙抗爭과 江都: 江華遷都(1232)와 江都 경영을 중심으로	
53		1987	대몽항쟁기 고려 무인정권의 江都生活	
54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55		2005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연구	
56		2009	고려 도성으로서의 강도의 제문제	
57		2010	고려 도성으로서의 江都의 제문제	
58		2015	고려 강도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59		2017	강도사 연구의 쟁점	
60		2020	강화도성 또 하나의 고려 황도	
61	이상선	1997	고려시대 강화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	
62	이상준	2014	고려 강도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	
63		2016	강화 고려 왕릉의 구조와 성격	
64		2017	강도시기의 왕릉	
65		2017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	
66		2023	강화도성의 궁궐과 도시 구조	
67	이정란	2005	江華의 三別抄 南行 始發地에 대한 고찰	
68	이제원	2021	고려 江都 長峯宮의 위치 비정 -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69	이종철·조경철·김영태	2001	강화 선원사의 위치 비정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비고
70	이지범	2015	고려대장경의 현대적 활용과 강화도	
71	이창섭	2022	후백제 수군의 서해공략과 고려의 대응	
72	이희인(李羲仁)	2004	江華 高麗古墳의 類型과 構造	
73		2014	고려 강도 해안 외성에 대한 검토	
74		2015	강화 고려 능묘의 현황과 특징	
75			고려 강도 성곽의 체제와 위치 고찰	
76		2016	고려 강도시기 성곽 연구의 현황과 과제	
77		2017	고려 강화도성의 성곽	
78		2021	강도 궁궐의 구조와 위치 고찰	
79		2019	고려 강도의 건설과 공간구성	
80		2024	고려 강도 성곽과 본궐에 대한 최근 논의의 검토	
81	임석규	2004	江華의 寺址	
82	임학성(林學成)	2002	高麗八萬大藏經의 江華島 彫板과 禪源寺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문제	
83	정학수	2017	강도시기 궁성(본궐)의 위치와 구조	
84	정해득	2018	강화 고려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85	채상식	2009	강화 선원사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86	최광식	2014	강화·개성의 고려문화와 통일시대(기조강연)	
87	하일식	2014	통일시대 대비 강화·개성지역 문화재 관리 방안	
88	홍영의	2021	고려시대 강화강도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89		2023	고려시대 강도(江都)의 공간 영역 연구의 쟁점과 과제	
1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新編江華史	저서
2		2016	新編江華史增補	
3	강화군	2009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4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5	윤용혁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6	김성환	2022	강화 참성단 A to Z	
7	새얼문화재단	2001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8	이형구	2017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9	이형구·김진국	2011	고려왕조의 꿈 강화 눈 뜨다	
10	이희인	2016	고려 강화도성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2016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 2025년 현재까지 고고 발굴 결과를 통한 연구는 모두 30편으로 선원사 관련 논문이 6편(청자 3, 가람 배치 1, 기와 1, 지류 1), 청자(8), 왕릉 및 분묘(4), 건물지(4), 궁궐(2), 성곽(2) 기와(1), 일반(1) 등임

〔표 3-4〕 강도 공간 관련 고고·미술사 연구 논문 목록

순번	저자	발행연도	제목
1	권순진	2016	강화 월곶리·옥림리유적 -고려시대 건물지군을 중심으로
2	김병곤	2010	사적 제259호 강화 禪源寺址의 가람 배치에 대하여 -예불 공간을 중심으로-
3	김유식	2010	선원사지 출토 고려후기 기와의 검토
4	김정인	2016	강화 옥림리신봉리·장정리유적 -고려시대 유적을 중심으로
5	김효환	2016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
6	문옥현	2021	강도시기 강화읍 외곽 토성의 구조와 성격
7	박지선·임주희	2010	出土 紙類유물의 보존에 관한 연구 -사적 259호 禪源寺址 유물을 중심으로-
8	박지영	2025	고려 상형청자 조형의 상징성과 문화사적 의미: 開京·江都의 상형청자를 중심으로
9		2021	개경(開京)과 강도(江都)의 청자
10	김효환	2016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
11	윤용이 (尹龍二)	2003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12		2010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13	윤현희	2004	江華 河岾面 石佛立像 硏究
14	이상규	2020	강화도 출토 고려 후기~조선 전기 막새의 성격
15	이종민	2014	고려분묘(高麗墳墓) 매납도자(埋納陶磁)의 종류와 특징
16		2024	고려왕릉 출토품으로 본 부장용 도자의 종류와 특징
17	이희인	2018	고려시대 강화의 고고 유적과 공간 구조
18	정재은	2010	강화 선원사지 출토 고려 청자연구
19	정해득	2018	강화 고려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20	자상현 외	2007	고려시대 출토 인골의 유전자정보 및 유기시료 특성 분석 -강화 고려왕릉 출토 인골 시료를 중심으로
21	한나래	2019	고려왕릉 출토 '봉황문 장식'의 상징과 강화 능내리석실분의 피장자 검토
22	한성욱 외	2009	강화 고려궁지의 현황과 성격
23	한성욱	2004	강화의 강도시기 도자문화
24		2013	강화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 방안
25		2017	江都時期의 靑瓷文化
26	한혜선	2005	강화도지역 고려도기의 생산과 소비
27		2021	고려 강도시기 건물지 출토 도자기의 사용과 조달
28		2021	고려 강도시기 건물지 출토 도자기의 양상과 사용
29	허의행	2021	고지형분석을 통한 강도 궁궐지역 지형복원 연구
30	현남주	2016	성광교회~동문 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구간 내 유적/강화 관청리 163번지 유적

○ 강화의 고려시대 유적은 많은 수가 분포함에도 아직 정확한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음. 현재까지 몇몇 유적 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유적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 관련 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중세 수도로서 개경과 한양을 이어 주는 강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수도 강도의 위상을 구명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심화 연구가 필요함

○ 발표된 발굴조사 보고서(지표·시굴 포함)는 138건임

〔표 3-5〕 강화도 발굴 조사보고서 목록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계양산성Ⅱ -4차 시·발굴조사보고서』
2		2016	『계양산성Ⅲ』, 『계양산성Ⅱ』,『계양산성Ⅰ』
3		2017	『계양산성 Ⅳ』
4			『인천 소야도 유적』
5		2019	『계양산성 Ⅴ』
6		2019	『계양산성 Ⅵ』
7		2021	『인천 옥련동 유적』
8		2022	『계양산성 Ⅶ』
9		2023	『인천 선학동 98-1번지 유적』
10		2025	『계양산성 Ⅷ』
11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14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12	국토문화유산연구원	2018	『인천도호부 유적』
13		2021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14		2025	『인천 선주지동 산13-4번지 유적』
15	기호문화유산연구원	2016	『인천 산곡동 유적』
16	대동문화유산연구원	2020	『인천 검단지구 유적Ⅰ~Ⅳ』
17	미래문화유산연구원	2021	『인천 백석동 한들유적』
18	백두문화연구원	2020	『인천 남촌동 고래실골 유적』
19	서경문화유산연구원	2015	『인천 가정동 구석기유적』
20		2023	『인천 옥련동 산22-1번지 유적』
21		2025	『인천 원창동 산61번지 유적』
22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22	『인천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 유적』
23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8	『桂陽山城』
24	수도문물연구원	2022	『인천 선학동 58-2번지 유적』
25		2024	『인천 오류동 산59번지 유적』
26	역사문화유산연구원	2024	『인천 석남동 257-4번지 조선시대 분묘 유적』
27	중부고고학연구소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28	중앙문화유산연구원	2017	『인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인천 왕길동유적』
29		2019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부지 Ⅳ』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30	청구고고연구원	2016	『인천 가정동 유적1』
31		2018	『인천 가정동 유적Ⅱ』
32	충청문화유산연구원	2018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33	한강문화유산연구원	2012	『인천 십정동 유적』
34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8	『인천 문학산 제사유적』
35	한백문화유산연구원	2022	『인천 선학동 427번지 유적』
36	한빛문화유산연구원	2021	『인천 검단 불로동 유적(청동기~조선시대)』
37	한성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서창동 유적』
38		2021	『인천 석남동 유적』
39	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1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40	호남문화유산연구원	2020	『인천 검단 마전동·원당동·불로동 유적』
1	강화군	2004	『마니산 참성단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	江華郡· 三成建築設計事務所	1985	『江華山城 現況 調査報告書』
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0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4		2011	「강화 조선궁전지 Ⅱ」
5		2012	「강화 고려궁지 6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6		2015	「강화 고려궁지 7차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7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	『강화읍 관청리 145번지 유적-강화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
8	고려문화유산연구원	2024	『강화향교』
9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강화 고려고분 분포 현황조사 보고서』
10		2019	『강화중성 남산리 구간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11		2020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12		2020	『강화 흥왕리 이궁지 발굴조사보고서』
13		2020	『강화읍 동쪽해안 일대 퇴적토양 분석연구』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江華 碩陵』
15		2004	『강화의 국방유적-초루돈대·손돌목포대 발굴조사 보고서』
16		2007	『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陵內里石室墳』
17		2010	『江華 月串鎭址』
18		2012	『강화 북장대지 발굴조사 보고서』
19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2019	『고려시대 분묘유적 자료집 Ⅰ 서울·인천·경기·강원』
20		2020	『조선의 보장지처강화 그리고 잔·보·돈대 Ⅰ』
21		2021	『강화산성(남문~동문 보수정비구간) 시발굴조사보고서』
22		2022	『강화중성 제1~3차 발굴조사보고서』
23		2023	『강화 마니산 학술조사 보고서』
24		2024	『강화 傳묘지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25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강화 월곳리·옥림리 유적』
26	이마니시 류 (今西 龍)	1917	「京畿道廣州郡·利川郡·驪州郡·楊州郡·高陽郡·加平郡·楊平郡·長湍郡·開城 郡·江華郡·黃海道平山郡遺蹟遺物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朝鮮總督府
27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8		2019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 3권-강화 갑곳리유적-』
29		2019	『인화~강화 도로구간 문화유적 4권-강화 용정리 고려건물지-』
30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2	『강화의 문화유적』
31		2007	『강화 용흥궁 주변 공원화사업 문화재 시굴조사보고서』
32	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사적 259호 선원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Ⅰ·Ⅱ
33	동양고고학연구소	2000	『고려 가궐지와 조선 정족진지』
34	라온문화유산연구원	2024	『강화 당산리 산94번지 유적』
35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강화산성 동문지 유구조사 보고서』
3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강화전등사유적 보수정화지』
37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韓國의 寺址-사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上)』
38	백두문화연구원	2022	『강화 봉소리 949-3번지 유적(국비)』
39	佛敎文化財硏究所	2008	『강화도 통제영학당지·진해루지 유적』
40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강화 충렬사 주변 학술조사 보고서』
41	서경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 관청리 향교골유적-강화군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 발굴조사』
42	서해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 선원면 신정리 571-4번지 단독주택 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43		2015	『江華 三同岩川 遺蹟-인천광역시 강화군 삼동암천 기본계획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발굴조사 보고서-』
44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鮮文大學校 考古硏究所)	2001	『강화도 마니산 고려 이궁지 지표조사 보고서』
45		2008	『江華島 傳燈寺 翠香堂址 發掘報告書』
46	역사문화유산연구원	2022	『강화 용정리산97-3번지 유적』
47		2022	『강화 창리 산167-1번지 유적』
48	연세대학교박물관	2002	『해강토탈리조트 조성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강화군 길상산 일대-』
49	육군박물관	1999	『강화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돈대편-』
50		1999	『강화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성곽·봉수편-』
51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52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강화군 花島墩臺 발굴조사 약보고서』
53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4	『江華 船頭里 陶器窯址』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54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7	『강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5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2	『강화 창후리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56		2003	『江華의 高麗古墳 지표조사 보고서』
57		2006	『江華 郡內道路 擴·鋪裝 區間 內 文化遺蹟發掘』
58		2006	『강화정밀지표조사-화도면』
59		2007	『강화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60		2008	『강화 창후리 청소년유스호스텔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61		2009	『강화의 절터-지표조사 보고서-』
62		2010	『고려시대의 강화』
63		2011	『강화의 국방유적』
6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군	2007	『江華山城-지표조사 보고서-』
65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	『강화 석릉주변 고려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66		2002	『강화군내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67		2002	『강화산성 동문지 주변 도로개설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68		2004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69		2005	「동문지 주변 도로 개설구간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70		2006	「강화산성 남문지 주변 인도개설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71		2006	『강화산성 동문지 주변 긴급보수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72		2007	『성광교회~강화산성(동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73		2009	『강화향교 복원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74		2011	『강화 중성유적-강화군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발굴조사 보고서-』
75	전남문화재연구원	2020	『강화 관청리유적』
7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인천 성글라라수녀원 건립부지내 江華 倉後里遺蹟』
7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江華 大山里遺蹟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H구간 시굴조사 및 I구간 시·발굴조사보고서』
78		2012	『江華 玉林里 遺蹟-강화 중성 및 고려시대 건물지-』
79		2012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J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80		2013	『江華 新鳳里·長井里 遺蹟 -寅火-江華 道路建設工事 A區間 文化財發掘調査』
81	청구고고연구원	2015	『강화 삼동암천 유적』
8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	2000	「서문 남쪽 성벽 시굴조사 약보고서」
83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강화 관청리 유적』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84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4	『강화 정족산사고 정비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85		2015	『강화 길상배수지 진입구간 건설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86		2017	「강화 관청리(69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87		2017	『강화 미루지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88		2017	『강화 선수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보고서』
89		2018	『강화 남산리 강화중성』
90		2018	『江華 南山里 江華中城-강화 남산리(69-6) 강화중성 훼손구간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91		2018	『강화 인산리 황골고묘』
92		2019	『강화 관청리 697번지 유적』
9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강화 서문~진고개간 도로확포장 구간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94		2011	『江華山城-강화 서문~진고개간 도로확·포장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5		2013	『江華 官廳里 657番地 遺蹟-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96		2015	『江華 官廳里 163番地 遺蹟-강화군청 별관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7		2015	『江華 官廳里 657番地 遺蹟(Ⅱ)-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추가발굴조사 보고서-』
9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9		2013	「강화 국화리 463-1·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 2강원-』
100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Ⅱ- 경기2·강원 -』
101	한국문화재재단	2015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Ⅰ-서울·인천·경기1』
102		2017	「소규모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강화 신문리 627-2번지」
103		2018	「강화 신정리 233-11번지 유적」『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1권-인천·경기 1-』
104		2019	「강화 신문리 627-2번지 유적」『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105		2020	『강화 덕성리 295-33번지 외 1필지 유적』
106	한국선사문화연구소·김해허씨시중공파중앙회	1988	『가락 허시중공 무덤 발굴조사보고』
107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108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군청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109		2020	「강화 옥림리 강화중성-인천 강화 옥림리(3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2018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ⅩⅨ』
110		2020	『인천 강화 옥림리(37-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순번	기관	발행연도	제목
111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62-8호선) 개설공사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집」
112		2017	「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62-8호선) 개설공사 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13		2019	『江華 官廳里 遺蹟-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862-8호선) 발굴조사 보고서』
114		2021	『강화 교동읍성』
115		2021	『강화 삼동암리 유적』
116		2024	『강화 금월리 유적』
117	한울문화유산연구원	2021	『강화 가리산돈대 유적』
118		2021	『강화 굴암돈대 유적』
119		2021	『강화 북일곶 돈대 내부 유적』
120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강화 국방유적 계롱돈대-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 발굴조사-』
121		2010	『강화 정족산성 진지-2008·2009 강화 정족진지 발굴조사-』
122		2011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지표조사보고서』
123		2011	『강화산성 남장대지 유적』
124		2013	『강화 덕산봉수유적』
125		2013	『江華 網山烽燧 遺蹟-강화 덕산봉수유적 발굴조사-』
126		2015	『강화 선원사지 남서측 주변지역 유적-강화 선원사지(사적 제259호) 남서측 주변지역 유적 시·발굴조사-』
127		2016	『강화외성 내 강화전성』
128		2017	『강화외성 덕진진 북측 성벽 유적』
129		2019	『강화 굴암돈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30		2019	『강화 북일곶돈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131	혜안문화유산연구원	2021	『강화 사기리 167-3번지 유적』
132		2021	『강화 온수리 산42번지 일원유적』
133		2021	『강화 하도리 869번지 고인돌(하도리 134호) 유적』
134	혜안문화재연구원	2019	『강화 화도돈대 문화재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135		2020	『강화 온수리 635번지 일원 유적』
136	화랑문화유산연구원	2023	『강화 인산리 680-3번지 유적』
137	화서문화유산연구원	2023	『강화 고구리 272번지 유적』
138	화서문화재연구원	2021	『강화 사기리 산51번지 유적』

3) 향후 연구과제 및 방향

❍ 인천 고려시대사 연구는 안남도호부의 수주와 인주, 그리고 강화의 강도시기가 대상임. 193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필자가 조사한 고려시대 인천지역 관련 학술논문은 총 40편으로 대부분 인주(경원) 이씨와 이자겸(17편), 경서동 녹청자 요지 관련(11편) 논문임. 강화 강도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은 89편, 2025년 현재까지 고고 발굴 결과를 통한 연구는 모두 30편으로 이를 합치면 강도 관련 논문은 119편임. 전체 인천지역 연구 논문은 총 159편이고 이외에 총서류와 단행본은 인천지역 7건, 강도지역 11건임

인천지역 고려시대 연구 주제 편중

- 인천지역은 고려시대 연구 주제가 많지 않음. 한 가문과 인물사, 그리고 녹청자에 집중된 점은 고려시대 인천 관련 기록 부재, 자료 부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윤징고(尹徵古)와 손변(孫抃, 초명 孫襲卿) 등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수주 출신 인물, 수주·인주에 부임한 관인들, 인주에 유배된 관인 등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 대부도(大府島) 별초(別抄)가 소래산(蘇來山)에서 몽골군 100명을 패퇴시킨 전투, 1358년(공민왕 7) 왜구의 인주 침략 등 주제 역시 적극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음
  - 인천에서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주제의 학술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 개최된 학술행사가 강도사에 집중된 데에 반성할 필요를 반증함

강화도성 연구 역사 800년의 쟁점과 과제 도출 필요

- 강화도에는 고려시대 도성 중심지였던 현 강화읍 일대를 비롯한 섬 곳곳에 강도시기 문화유적이 다수 산재해 있음. 궁궐과 도성 외곽의 성곽, 사찰, 건물지, 왕릉(분묘), 제사시설 등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만 105개 이상에 달함[60]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유적 건립 연대·구조·성격 등 알려진 예는 많지 않음. 이궁(離宮), 몇몇 사찰은 건립 유래·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문헌기록이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가 비정된 유적은 몇 예에 지나지 않음

60)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제2권 강화 고려도성 고고자료집』. 2017년을 기준으로 2018년~2021년까지 발굴보고서 15건을 더하면 총 105건이 됨

• 현재 고려 궁궐 위치조차 확인되지 못하고 도성(내성, 중성과 외성) 구조와 범위, 왕릉의 피장자가 누구인지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2032년이면 강화 도성 연구는 시간적으로는 800년 연구 역사를 지니게 되어, 해당 문헌사 연구와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토대로 현재 연구 쟁점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함

수요자 중심 역사자료 홍보 서비스 개발 필요

○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통한 다양한 주제 개발이 우선시됨. 인천 역사학(원천자료와 디지털 자료 및 연구성과) 디지털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인천 인문학 집적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인천 역사학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특히 웹(Web)과 모바일 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요자 중심 역사자료 서비스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인천시에는 국보 1건, 보물 29건과 사적 21건, 명승 1건, 천연기념물, 16건,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75건, 등록문화유산 10건, 문화유산 자료 25건이 인천과 강화·옹진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옹진지역은 명승(1)과 천연기념물(7) 만이 존재함. 이 가운데 고려시대와 관련한 유물, 유적을 따로 검색할 수 없으며 다른 시대로 동일함. 인천시내 고려 유적과 유물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연구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홍보·개발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가 강도시대 고려왕조 연구 선점·선도 필요

○ 2031년이면 1231년 대몽항쟁 800주년, 2032년이면 1232년 강화천도 800주년이 됨. 개경환도에 반발한 1270년 삼별초 항쟁, 1273년 삼별초 제주항쟁 종료에 따라 2030년에는 삼별초 항쟁 760년임. 인천시가 39년간 고려 수도 강도를 품고 있는 이상 고려왕조 연구를 선점 내지 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강도시기 대몽항쟁 연구, 삼별초 항쟁사 연구, 강도사 연구 진흥, 강도 고려유적 지속 발굴 및 탐색에 더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화 고려유적과 출토 유물 디지털 재현([그림 6-3] 참조)을 통해 고려왕조와 강도시대를 홍보할 필요 또한 시급함

4) 결론

○ '인천' 지역은 시간성(역사)과 공간성(인천시)이 함께하는 곳으로 인천학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인천의 과거·현재·미래임. 인천 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근대 인천이 시작되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해방 후 현대에 이르는 2000년 이상의 시간대를 다룸. 특히 개항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기는 오늘의 인천이 주형되는 중요 시기이므로 훨씬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

인천인 생활사와 맥락적 도시연구 필요

○ 지금까지의 지역사는 정치적 변동, 제도 변화를 주로 기술해 왔으나 이제는 그 시대를 살아온 인천인의 생활을 복원·서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인천학은 거대한 근대산업도시 연구이기도 함. 도시연구는 많은 인구를 포함한 물리적 실체로만 도시를 다루는 것은 아님. 도시라는 맥락적 배경 속에서 당대 사회관계의 본질을 광범위하게 파헤쳐 근대사회 추상 이론을 구체적 공간에서 검증하는 일임

인천의 정체성으로서 한국 근대사 주제 연구의 확장 필요

○ 인천은 하나의 지역이지만 한국 근대화 과정의 기억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기록보존소로서, 이러한 주제 연구가 진척된다면 인천의 정체성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 근대사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인천연구는 민족사 전개의 구체적 현장 연구임. 고려시대 임시수도 강화도 포함 병인양요·신미양요, 제물포 개항, 러일전쟁·청일전쟁의 현장이었음. 또한 건축물(중구 일대 양관들), 도시계획의 역사(조계지와 자유공원), 상업제도(근업소·인천객주회), 교통과 통신 인프라(인천항·경인철도와 인천우체국), 의회정치(제물포 정략), 산업(제염업·각종 제조업·군수산업) 등 근대 문화 상당 부분이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되었음

인천 문화권역별 특성 연구 필요

○ 인천은 행정적으로 10개 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여러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음. 도시화의 진척으로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어떤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 인천의 역사 문화 연구의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별 연구보다는 문화권역별 연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중구·동구 일대 항구도시권, 관교동·주안 중심 원인천지역, 계양산 주변 계양문화권, 부평문화권, 옹진군 등 해양문화권, 강화문화권 등

인천지역 고려시대 연구 활성화 및 강화도 통사·강도사와 균형 필요

○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 이후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시에서 출간된 『인천시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사가 별로 없던 시절을 마감하고, 많은 연구가들이 새롭게 지역사 연구에 매진하여 이제는 '인천학'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내었으나, 인천지역이 지닌 특성과 성향 때문에 근현대 이후 개항과 근대화 연구에 집중되어 강화 강도사 연구를 제외하고는 인주이씨가의 인물과 경서동 녹청자에 집중되어 있을 뿐임.

○ 근현대사 편중화가 초래하는 고려시대 연구 위축, 주제 부족 및 연구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음. 강화의 고려시대 역사 또한 현재 강도사에 집중되어 강화도 전체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를 보아야 하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조선시대 및 개항기 주요 연구 현황

○ 조선시대와 개항기의 인천사 연구 현황의 내용적 범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1) 인천광역시사의 주요 연구 현황

○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시작

○ 1973년 첫 번째 시사를 발간하였으며 10년 단위로 증보 편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인천시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한 시점은 『인천개항 100년사』가 편찬된 198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1983년 발행된 『인천개항 100년사』,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 100년사』의 경우, 개항에 초점이 있어 전근대 인천의 역사는 축약될 수밖에 없었음

○ 『인천개항 100년사』 발행 당시는 지역학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시기였음에도 인천개항(1883.1.1.) 이후를 감리서 시대와 이사청 시대(1905)로 구분하여 정리함

○ 인천개항이라는 시기적 한정은 있었지만, 향후 지역사 연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인천역사 연구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게 만든 선구적 업적이라 할 수 있음

〔표 3-6〕『인천개항 100년사』의 주요 내용

내용	주요 내용
인천이 개항하기까지의 '국가사' 중심의 연구	• 조선의 조운과 김포 굴포, 강화도방비책과 영종도, 병인 신미양요와 물치도, 운양함 포격 사건과 영종도, 인천의 개항임
인천개항 이후의 연구	• 감리서와 이사청의 설치, 각국의 영사관 설치와 조계 설정, 열강의 각축과 인천, 내외상사의 진출과 인천항신상협회 조직, 근대적 제문명 문화시설 등

○ 인천시사의 연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역사 연구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며 『인천개항 100년사』 편찬 10년 뒤인 1993년 인천 역사 전 시기를 개관한 『인천시사』가 편찬됨[61]

○ 『인천시사』는 인천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 전까지의 역사를 인천을 중심에 두고 인천과의 연관성에 큰 비중과 관심을 두고 서술하였음

○ 주제가 세분화되고 연구 내용이 방대해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당시 자료의 한계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지가 화도진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음

〔표 3-7〕『인천시사』(1993)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역사 연구	• 지방제도 정비와 인천 부평부의 변천, 관방 역원 봉수 목장, 조운제도와 김포 굴포, 강화도방비책과 인천 월미도 행궁의 설치, 병인·신미양요와 물치도, 운양호 포격사건과 영종도, 화도 연희진의 설치와 중심성 축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화도진,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의 체결 등
일제 강점기 연구	• 인천 개항과 감리서 설치: 인천 개항, 감리서 설치, 해관 설치, 개신교 전래, 감리서 부설과 폐지 • 각국의 조계설정: 일본 전관조계 설정, 청국 전관조계 설정, 각국 공동조계 설정, 각국 영사관 설치 • 갑신정변과 열강 각축: 갑신정변과 독립당의 일본 망명, 청일전쟁과 일본의 병참기지화, 러일전쟁과 인천 앞바다 해전 • 내외상사 진출과 신상협회: 외국상사 진출, 인천미두취인소 설립, 민족상사 진출, 인천신상협회 조직 • 근대적 제문명 시설: 항만 수축과 해상교통, 경인철도 부설, 우체사 전보사 설치, 전환국 설치, 근대학교 설립

○ 『인천광역시사』(2002)는 6권에 4,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인천 역사 연구의 범위가 전시기에 걸쳐 확대되었고, 인천지역 역사 연구자들이 대부분 참여한 인천시사의 기본 틀을 형성한 작업임

○ 『인천광역시사』(2002)의 편찬으로 인천의 조선시대 연구에 있어서도 인천의 변화상과 개항 이전 인천 변화 연구의 기본틀이 완성되었으며 주제가 세분화되었음

61) 인천시사는 1983년 『인천개항 100년사』 편찬 이후 10년 주기로 편찬한다는 묵계가 있었음

〔표 3-8〕『인천광역시사』(2002)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조선시대 인천의 변화상	• 통치체제의 개편과 인천지역의 군현화: 조선왕조의 개창, 지방제도 정비와 인천지방의 위상변화, 국방의 강화와 인천지역의 관방화: 진관체제의 확립과 도호부로의 개편, 인후지지(咽喉之地)로서의 국방시설 정비, 조운(漕運)의 확대와 김포 굴포(掘浦): 조운제도의 확대, 경인운하(京仁運河)의 굴착시도
조선 전기 연구	• 조선 전기 인천지역의 산업과 사회: 호구의 증대와 산업의 발달, 교화기구와 진휼제도 • 일·청의 침입과 인천지역의 항전: 일본의 침입과 항전, 청의 침입과 항전, 양란과 강화도 방비책
조선 후기 연구	• 조선후기의 국방체제 정비와 강화도: 서해연안 방어체제의 강화, 보장중지(保障重地)로서의 강화도 경영, 정조대의 통어영 이속 논의와 그 의미, 월미도 행궁의 설치, 조선후기 사상계의 변화와 강화학파: 서학·천주교의 전래와 인천지역사회에의 영향, 강화학파의 성립과 전개 • 서양세력의 침입과 항전: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정세 변화, 프랑스 함대의 침입과 강화수비군의 항전, 미국함대의 침입과 강화수비군의 항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의 문호 개방과 지역사회의 변모	• 강화도조약 체결과 조선의 개항: 일본의 개항요구와 강화도조약의 체결, 열강과 통상조약 체결 • 제물포 개항과 인천 조계지 설정: 제물포 개항과 인천지역 방위시설 강화, 인천 조계지의 설정과 운영 • 열강의 각축과 인천 지역사회의 수난: 임오군란과 제물포 조약, 청일전쟁과 인천의 일본군 병참 기지화, 러일전쟁과 인천해전, 통감부 이사청(理事廳)의 설치 • 근대 시설의 도입과 국제무역항으로의 형성: 수도·전기의 도입과 통신·금융시설의 증설, 항만의 수축과 경인철도의 부설, 해관의 설치와 운영 • 내외상인의 진출과 인천지역의 경제변화: 인천항 무역의 변천, 청일전쟁 이전 내외상인의 진출과 대립, 청일전쟁 이후 한·일상인의 상권경쟁, 일본인의 토지 침탈 • 근대 문물의 전래와 인천 지역사회의 변화: 개신교의 전래와 천주교의 발전, 근대학교의 설립과 언론의 탄생, 인천항의 변화와 해외 이민 • 민족운동의 전개와 인천지역 주민의 동향: 인천 상인의 형성과 발전, 김구의 반일 운동과 인천 주민

○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2013) 편찬 사업은 기존의 편년시대사 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시사라 할 수 있음

- 총 세 권으로 제1권은 전근대와 근대기의 역사, 제2권은 인천 현대사의 7개 분야의 주제별 역사, 제3권은 분야별·지역별로 선별한 시민 13명의 구술로 구성됨

○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2013) 인천의 역사에서 강조되고 보완되어야 할 주제를 먼저 선정한 뒤 관련 전공자를 물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사와 지방사를 혼합한 형태로 편찬됨

○ 이는 인천시사 편찬 방향이 향후 주제별 단위로 되어야 한다는 점과, 보다 세밀한 역사 편찬을 위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을 의미함

❍ 2013년 편찬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사를 발간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육사, 지명, 지지(地誌)와 지도(地圖), 건축, 섬과 역사문화유산, 문화사적과 역사터, 관방유적, 민속, 항일독립운동사, 인천전쟁사 등 다양한 주제로 발행함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인천광역시사』(2023)는 그간 소략했던 인천의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연구 업적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작업이며 주요 내용은 〔표 3-9〕와 같음

〔표 3-9〕 『인천광역시사』(2023)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고고학이 발굴한 인천	• 인천지역 문화유적 조사 성과, 인천지역 최초 사람들의 삶과 문화, 마을의 형성과 주민의 이동,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문화와 계층화, 마한 사회의 성장과 백제의 진출, 유적으로 보는 통일신라시대 인천, 유적으로 보는 고려시대 인천, 유적으로 보는 조선시대 인천, 인천의 지리와 지형 환경의 변화
역사학이 탐구한 인천	• 인천 역사의 출발지, 미추홀, 고려 왕도의 공간, 인천, 전통시대 인천의 교육기관, 인천의 해양방어체제와 수군진, 개항과 조계,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중일 상인의 각축과 상권경쟁, 근대문화의 수용, 빛과 그림자, 인천이 겪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근대 인천의 항만과 철도, 인천의 공업화와 노동력 수탈,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인천의 대륙병참기지화(육군조병창을 중심으로), 6·25전쟁과 인천, 해방 후 인천의 정치(행정, 선거, 의회), 해방 후 인천의 경제(항만, 경인철도, 경인공단), 인천의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1945~1981), 제국주의 '통로'에서 세계의 '관문'으로, 문화유산으로 본 인천의 역사(불교미술과 석물을 중심으로)
국제도시 오늘의 인천	• 지방제도 정비와 인천 부평부의 변천, 관방 역원 봉수 목장, 조운제도와 김포 굴포, 강화도방비책과 인천 월미도 행궁의 설치, 병인·신미양요와 물치도, 운양호 포격사건과 영종도, 화도 연희진의 설치와 중심성 축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화도진, 임오군란과 제물포조약의 체결 등

❍ 또한 인천역사 자료집이라 할 수 있는 인천역사문화총서를 발간해 연구자에게 제공 중임

❍ 인천역사문화총서는 이미 100여 권이 발행되었으나 개별 자료집에 대한 별도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당면 과제 중 하나임

❍ 또한 인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담은 인천역사문화총서 논문집 『인천역사』는 8호까지 발간되다 현재 단절된 상태에 있어 부활이 시급한 과제임

- 『인천역사』의 주요 내용은 「조선후기 보장지 강화(江口)와 돈대」, 「조선왕조의 '국가기록보존소' 강화도」, 「인천항 감리서」, 「화교유입과 하와이 이민」, 「개항장 인천의 기선 해운 네트워크」, 「소금이 만들어낸 근대의 표상과 仁川의 염전」 등임

2) 군·구사 주요 연구 현황

(1) 중·동구사

① 중구사

○ 조선시대 중구와 동구는 인천부 다소면의 선창리·고잔리·송림리 지역으로 인천 읍치에서 멀리 떨어진 소읍에 불과하여 조선시대 역사는 인천 역사 속에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침

- 중구의 경우, 영종지역이 중구에 편입되면서 〈관방과 새이름 영종〉을 주제로 한 인천 연안의 방비책 등이 주된 내용임

○ 전근대 중구와 동구는 미추홀구 관교동 읍치(邑治)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의 내용은 소략할 수밖에 없으며 주요 내용은 왜구 침입과 조선전기 인천 연안 방비대책, 임진왜란 이후 연안방비책 변화, 영종진 설치와 제물진 이설, 말목장지 영종·용유·무의 등, 월미행궁, 인천개항 전야 등임

○ 『중구사』(2010)의 「개항과 근대로의 변화」는 한국의 근대 역사를 포괄한 내용으로 국가사를 뛰어넘는 세부적 내용을 담은 연구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중구사』의 연구 성과는 인천시사의 인천 역사 연구와 함께 역사서 '최고 최초'의 출간으로 이어져 개항도시 인천이 한국 최초의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표 3-10〕 『중구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항과 변화의 물결	• 조미통상조약 체결과 각국 영사관 설치, 조계지 설정과 신동공사, 신식 화폐제도 실시와 전환국, 해관의 설치, 감리서의 설치, 은행의 신설, 근대의 이민과 인천, 제물포해전(러일전쟁)과 월미도
신문물의 수용	• 외국인 묘지, 서구식 공원, 언론 출판, 근대식 우편 통신, 철도의 개통, 수도·전기의 도입, 서구식 숙박시설, 근대식 극장, 유흥시설, 공장, 신식교육기관의 설립, 의료, 개신교의 전래와 천주교의 발전, 외국계 상사의 유입과 인천항 신상협회, 기상관측소와 웃터골, 인천공회당
서양식 건축물	• 관공서 건축물, 의료 및 복지시설, 학교건축, 업무용 건축, 산업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건축, 주택건축

② 동구사

○ 『동구사』(2019)는 타 군·구사보다 늦은 시기에 발행되었으나 기존의 『중구사』와는 차별화된 동구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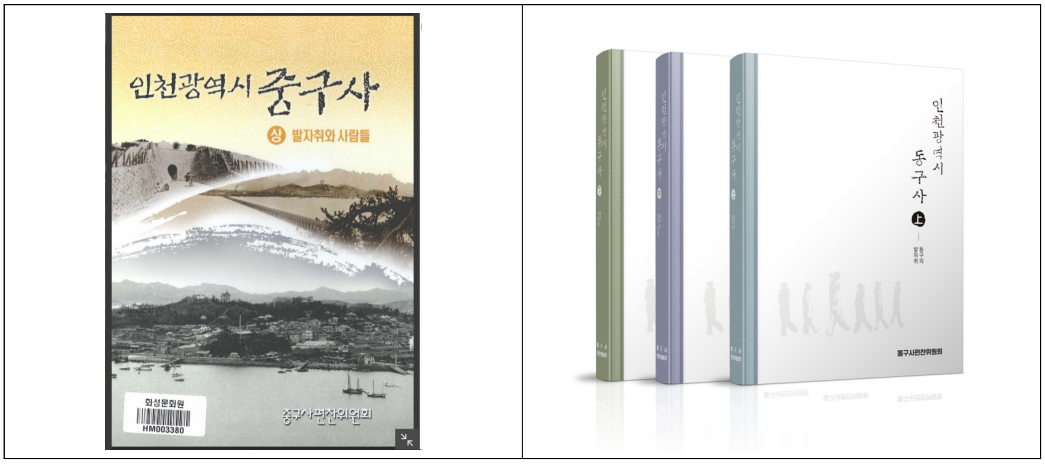
- 개항 이전의 역사는 중구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중복 서술을 피하여 축약하였고, 동구의 역사적 사실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지리지와 읍지에 기록된 인천부 다소면(多所面), 다소면의 명문 씨족, 물치도(勿淄島)와 영종진, 다소면 출신 한광우 역모 사건과 인천 읍격의 강등임

❍ 인천 개항 이후 동구 지역은 조선인 마을로서 공업지역으로의 발전이라는 특수성을 갖게 되는데, 국가사로서의 개설적인 내용을 축약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위주로 정리함

- 주요 내용은 이양선의 출현과 물치도, 화도진의 설치와 운영, 조미수호조약과 화도진, 근대 문물의 유입과 동구, 만석동 일대의 매립 등임

❍ 개항기 국가사에서 소외되어 있던 물치도(작약도)의 해양사적 의미, 화도진의 설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지 등에 대한 연구로 일본인이 작명했던 '작약도'라는 명칭을 전근대 이래 불렸던 '물치도'로 확정·고시하였으며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지가 화도진이 아니라 자유공원 밑 세관장 사택터였음을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음

〔그림 3-2〕『중구사』와『동구사』 표지



자료(출처): 지역N문화 웹사이트(좌), 동구청 웹사이트(우)

(2) 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사

① 미추홀구사

❍ 미추홀구는 인천 역사의 발상지로 전근대 인천 대표 지역이자 전근대 역사가 인천 역사의 축소판이었으므로 미추홀구사는 국가사·지방사의 편제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인천의 행정구역과 기관 등의 내용과 미추홀구만의 특성을 갖는 선정비 인물, 서원, 장시, 군사적 역할 등에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음

〔표 3-11〕『미추홀구사』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방행정구역의 변천과 수령	• 조선시대 행정구역과 인구, 조선시대 행정기관, 조선시대 읍호변천과 수령, 선정비가 세워진 수령
유교문화와 학산서원	• 이단상·이희조의 생애와 인천, 학산서원의 건립과 연혁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역 발전	• 조선시대 인천의 인구 증가와 특성, 인천의 농(農)·어(漁)·염업(鹽業)과 사회경제적 발달, 인천 장시(場市)의 출현
관방(關防)과 교통로	• 문학으로 모였던 도로망, 역(驛)과 봉수, 조선시대 인천부의 군사편제, 관방시설과 병기 실태, 신미양요 당시의 방어체제

○ 미추홀구는 인천 개항 이후 신도심 지역에 감리서가 설치되면서 구도심으로 전락하여 한적한 조선인 농촌 마을로 지속되었는데, 개항장과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해 일제강점기 이후 식민지 수탈의 장소로 변화하였음

○ 일제 강점기 이전 내용은 '근대사회의 형성과 변화'(제6편 제1장)의 「개항장의 형성과 중심지의 이동」(제1절), 「근대 문물의 전래와 수용」(제2절) 정도로 비교적 소략하게 축약됨

○ 이후 미추홀구청은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미추홀구 전반의 역사를, 특성이 유사한 동(洞)별로 묶어 『도시마을 생활사』를 4권의 책자로 나누어 발간하고 이를 요약해서 『한 권으로 읽는 미추홀구사』로 편찬함

② 남동구사

○ 남동구는 전근대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 지역으로 1988년 1월 남구(미추홀구)에서 분리됨에 따라 전근대 역사는 미추홀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나 지역사 측면에서는 남동지역 역사인 이승훈 순교, 화도진 설치에 따라 포대 설치, 염전 조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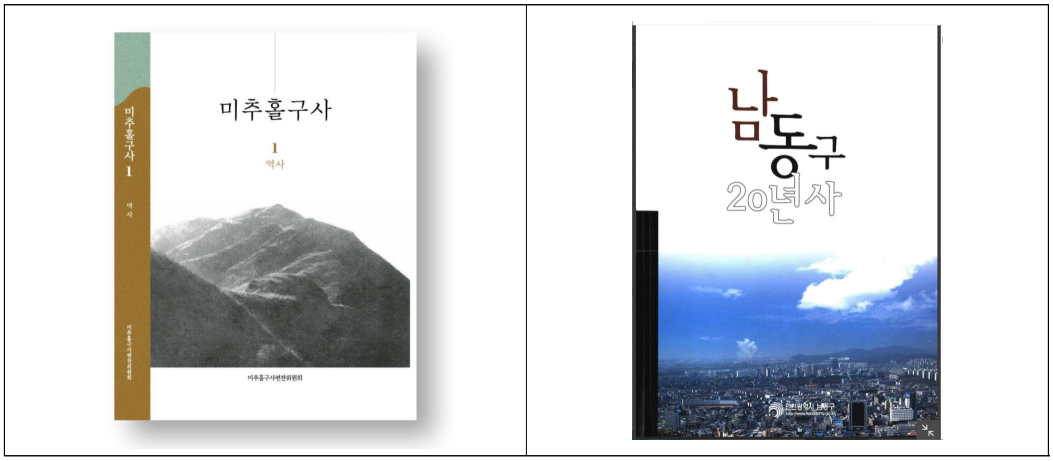
- 주된 내용은 월경지, 이포부락, 천주교 전래와 순교자, 제물포개항, 을사늑약 체결 후 토지정리 사업, 해양 방어 체제, 주안염전의 축조 배경과 과정 등임

③ 연수구사

○ 연수구는 옥련동·선학동·연수동·청학동·동춘동 지역으로 1995년 3월 1일 남구(미추홀구)에서 분구(分區)되어 전근대 역사는 미추홀구와 궤를 같이하고는 있으나 이 지역 형성이 해안가 어촌마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주변 문학산성, 해안 방어 체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연수구는 인천의 외곽지역으로 1930년대 수인선과 송도유원지가 개발되면서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동족 집단과 교통로, 문학산 봉수, 임진왜란과 문학산성, 도장포 갯골과 해안방어 등임

〔그림 3-3〕『미추홀구사』와『남동구 20년사』 표지



자료(출처): 미추홀구 문화관광포털(좌), 지역N문화 웹사이트(우)

(3) 부평구·계양구·서구사

① 부평구사·계양구사

○ 전근대 부평은 인천과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단위였으나 1968년 1월 구제 실시에 따라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구가 신설되었으며 부평지역은 북구에 해당하였음

○ 이후 북구가 북구와 서구로 분리되고(1988) 제1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북쪽은 계양구(桂陽區), 남쪽은 부평구(富平區)로 분구되었음(1995.1.1)

○ 전근대 부평지역의 읍치는 현재의 계양지역으로 역사의 상징인 부평도호부와 향교가 계양구에 위치해 있음

- 부평구사의 주요 내용은 지방제도 개편과 부평지역, 진관체제 성립과 부평, 관아와 향교, 교통로와 통신시설, 조운과 김포굴포 개착 시도, 부평지역 호구 및 조세, 양란과 부평지역, 서구 열강 침입과 부평지역, 개항 이후 부평지역 행정구역 변천과 호구 변화, 개항과 부평지역 군사시설 등임

○ 오늘날 부평은 전근대 부평 지역과는 다른 신도시 개념의 공업도시에 해당하므로 전근대 및 일제강점기 이전 부평의 역사는 현재의 계양과 서구 지역사를 아우를 수밖에 없음

② 서구사

○ 서구는 1988년 북구가 북구와 서구로 분리됨에 따라 탄생하였으며 현재 관할 지역은 백석·시천·검암·경서·연희·공촌·심곡·가정·신현·석남·원창·가정동임

○ 『서구사』는 전근대 부평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서구 지역의 특성을 갖추어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내용은 개국공신 조반과 가정 명문가의 세거, 세곡 운송과 전조창의 설치, 역원 체제와 구슬원, 발아장과 상품 유통, 봉수제의 정비와 서구의 봉수대, 관방의 요충과 진관체제의 정비, 개항기 연안 방비의 강화와 연희진 등임

〔그림 3-4〕『부평사』와『서구사』 표지



자료(출처): 부평구 열린구청장실 웹사이트(왼쪽), 직접 촬영(오른쪽)

(4) 강화군사

○ 강화군의 조선시대 역사는 강화의 지정학적 측면이 국가의 보장지처로 운용되어왔던 만큼 '국가사' 속에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지방사로서 강화사보다 국가사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음

- 『강화사』(2003)의 조선시대 항목 목차는 강화의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관, 관방체제의 변화와 강화행궁, 강화의 목장과 봉수체계, 임진왜란과 강화의 항전, 병자호란과 강화의 항전 등임

○ 지방사로서 강화지역 특수성을 다룬 연구 성과의 대표적 주제는 강화의 지방 재정과 조세, 강화의 농업경영과 주민 생활, 조운의 발달과 상공업의 전개, 강화 인구의 변동과 사족사회의 전개, 면리제의 전개와 강화 주민의 동향, 강화의 진휼 정책, 강화의 민중 종교 등임

○ 강화는 일본과 조일수호조규(1876) 체결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외세 침입을 받아왔기 때문에 반외세 감정이 지역 정서의 기조로 작용하여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민족 애국심의 중심지로 탄생하게 되었음

○ 특히 강화지역 의병 항쟁과 계몽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 정체성을 보여주어 이러한 시대적 정신적 바탕 위에 3.1운동과 강화, 6.10만세운동과 강화 등 연구가 진행되었음

○ 강화는 양란을 겪은 후 보장지처로서의 중요성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관찬 사서 이외에도 현재까지 주요 연구 대상이며 조선시대 고문서 등이 산재해 있어 많은 연구 인력이 동원되면 강화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특히, 강화에서 5년간 유배 생활 후에 왕위에 오른 철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야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사 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 인력 유입이 시급한 상황임

(5) 옹진군지

○ 옹진군은 전근대 이래 황해 연안 방비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한 육지부와 도서로 구성되어 있음

○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됨에 따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도서 지역을 제외한 육지의 전 지역이 휴전선 이북에 위치하여 미수복지구로 되었으며 현재는 백령도(白翎島)·대청도(大靑島)·연평도(延坪島)·덕적도(德積島)·영흥도(靈興島) 등의 유인도(有人島)와 무인도(無人島)로 이루어져 있음

○ 도서 지방의 사료는 희귀한 편이어서 전근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단편적 사실에 그치고 있는 정도로 주민들의 구술을 통한 역사 서술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임

○ 주요 연구 성과는 조선의 지방제도, 옹진지역 수군과 목장, 조선시대 옹진군 도서 주민들의 생활 양태, 해안 방어체제 변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대외무역, 외세의 어업 침탈 등임

○ 각 단위 섬 지역의 입도사(入島史)는 향후 주요한 연구 대상임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시립박물관의 연구논문집이라 할 수 있는 『인천문화연구』의 전근대와 개항기 관련 논문은 「인천지역의 봉수」, 「조계제도와 조계」, 「개항장 인천 연안의 방비 강화」, 「경인철도의 과거와 현재」, 「경인철도의 형성, 운영과 그 사회경제적 배경」, 「인천이 경험한 러일전쟁」 등임

○ 시립박물관 학술조사 자료집은 48호에 달하고 있어 인천지역 역사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중 전근대와 개항기의 인천 역사 관련 보고서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덕적군도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외국인 묘지』, 『인천항 사람들』, 『강화의 국방유적』,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 근대지도(1883~1945)』

○ 이외에도 부평역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등은 전근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특성을 살린 연구서가 지속적으로 발굴 편찬되고 있음

4) 군·구 문화원

○ 군·구 문화원은 지자체가 편찬한 구사(區史)와 군지(郡誌)를 바탕으로 전근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洞) 단위의 역사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역사 이외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음

〔표 3-12〕 군·구 문화원의 주요 발행 단행본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중구문화원	• 『신흥동·연안동』, 『도원동·율목동·동인천동』, 『신포동』, 『송월동·북성동』, 『영종·용유』 등을 발간하여 중구의 역사를 세분화하여 정리하였음. 또 『자유공원』, 『월미도』, 『유곽과 권번』, 『중구의 극장과 극장문화』, 『중구의 학교』 등
동구 화도진 문화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 『화수동과 만석동의 기억』, 『송림동』, 『송현동』, 『금곡동 창영동』, 『만석동』, 『화수동 화평동』 등
서구문화원	• 『알기 쉬운 서구사』, 『검단의 역사와 문화』, 『근세 조선 서구 인물지』 등과 서구 도시마을지로서 『북서곶』, 『남서곶』, 『검단』 등
계양문화원	• 〈계양마을이야기〉 시리즈 『억새벌판에서, 효성동』, 『아라뱃길을 품은 계양동』, 『옛 부평읍내, 계산동』, 『계양산이야기』 등
연수문화원	• 향토문화총서 『연수동이야기』, 『동춘동이야기』, 『옥련동이야기』, 『청학동이야기』, 『선학동이야기』
옹진문화원	• 『옹진 섬 마을 역사문화이야기(북도면)』 등

5)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

면밀한 지역사 연구 현황 파악을 위해 대학 및 민간 연구 조사가 선결되어야 함

○ 주로 지자체 및 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천사 연구 현황을 정리하여, 대학연구소 포함 민간 영역에서의 지역사 연구 성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지역사 연구의 면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민간 연구의 조사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군구사의 성과를 인천사와 접목해 인천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해야 함

○ 현재 보편적인 인천사 연구는 완결되었으나 아직 전근대 인천·부평·강화·옹진 등의 각 시기마다의 사실은 간과하고 있어 군·구 단위에서 축적된 사회·문화·인물·민속·지리 관련 연구 성과를 인천시사에 체계적으로 접목하고 주제별 연구 연결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와 군·구사의 성과를 연계하는 과정은 인천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시대사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로서 주제별 서술 방식으로 전화

○ 시사편찬은 최근 시대사 중심에서 주제별 서술 방식으로 전화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사, 지방사로서 인물·지명·지리·민속 등 인천 역사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가 다수임

○ 아직도 친일 지명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인천을 무대로 활동했던 인물들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군·구의 역사에서 연구되고 있으나 그나마도 미미한 실정임

○ 조선시대 인천의 인물로 상당수 인천시사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학산서원에 배향된 인물과 실학자 정도에서 인천 인물 연구가 머물고 있음

인천을 연구하는 연구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

○ 편찬 작업의 전환이 서술형에서 주제별 서술 방식으로 오래 걸렸던 연유도 인천지역 내에 인천시사를 집필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 부족과 한국사에서 전공자 중 특정 지역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특히,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여 연구할 때도 합당한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한국사 전문 인력을 인천 역사 연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인천 최고 최초의 개별 주제에 관한 심층 연구 필요

○ 개항기의 인천역사는 국가사보다 다양하게 연구됐으며 그중 100여 건이 넘는 '인천 최고 최초'는 타지역의 역사와 차별되는 선구적인 업적임

○ 그러나 각 주제와 관련한 심층 연구가 부족하므로 별도의 논문 단위의 연구가 필요함

- 〈삼항구관초〉, 〈인천항안〉, 〈각사등록〉, 〈청안(淸案)〉, 일본외교문서, 인천 관련 영문 자료 초록 등 개항기 인천 관련 자료가 속속 영인되고 역주 발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별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개항기 인천에서 활동한 조선의 상인, 상인단체, 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이방인들이 인천에 남긴 흔적, 인천을 무대로 한 외국인 상사(商社)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 또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청국인 등의 활동 목적과 각국 간의 경쟁 관계도 추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음

지역사 연구로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적인 연구지원 사업 필요

○ 인천사 연구가 한국사 중심의 서술에 함몰되지 않고, 독자적인 지역사 연구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수집,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역사의 범주를 확대하는 연구지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함

3. 일제강점기 주요 연구 현황

○ 인천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시간적 범위는 1910년 한일병탄 이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함

1) 인천광역시사의 주요 연구 현황

○ 시사에 서술된 근대 및 일제강점기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통사체제에서의 시대별 특징에 맞춰 인천지역의 연구가 반영되는 형태임

○ 1910년 한일합병으로부터 야기된 부제(府制) 실시, 인천부성(仁川府域) 확장 등 식민통치 체제의 변화와 병참 기지화,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으로서 3.1운동, 청소년운동, 노동운동 등 민족운동과 항일운동 양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2013년 시사에서는 기사본말체 방식이 적용되어 근현대 인천에서 전개된 역사를 테마별로 정리함

- 「제물포 개항장의 공간 구조」, 「근대문화의 수용」,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조선인 사회의 자각」, 「식민지 수탈의 현장」, 「근대 이행기 인천의 도시경관 변화」 등

○ 특히 과거 시사에서 인식되어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큰 범주를 대신해 생활사적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소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미시사'라는 역사 연구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서술됨

○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의 체육』, 『인천의 지지(地誌)와 지도(地圖)』 등 인천사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매년 테마를 기획하여 진행됨

-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제로는 3.1운동 및 1920년~1940년대 민족운동, 사회운동, 노동운동과 독립운동을 다룬 2021년 『인천항일독립운동사(하)』, 운양호사건에서부터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기술한 2022년 『인천전쟁사(하)』 등이 있음

○ 2023년 10년 주기의 제6차 시사 편찬 작업에서는 인천시사편찬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성과를 3권의 책자로 요약 정리함

- 그중 제2권 총 18장으로 구성된 『역사편』에서 일제강점기의 상황은 근대 인천의 항만과 제도(제10장), 인천의 공업화와 노동력 수탈(제11장),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인천의 대륙 병참 기지화-육군 조병창을 중심으로(제12장) 등 세 장으로 압축되어

주로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산업시설과 대륙병참기지화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시사 자료집 인천역사문화총서 중, 근대 및 일제강점기 관련 자료는 『역주 병합 후의 인천』(1910), 『역주 인천미두취인소 연혁』(1922), 『역주 인천항』(1910) 등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자료가 순차적으로 발굴·정리되어 당시 일본인의 식민지 구축 과정과 인천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됨

2) 군·구사 주요 연구 현황

(1) 중구사·동구사

○ 인천 근대 개항의 경험을 공유한 『중구사』와 『동구사』의 근대 및 일제강점기 연구 현황은 『중구사』(2010)의 제3장에서 인천도시 정비와 중구(제1절), 일제의 경제 수탈과 중구(제2절), 인천항 축항공사(제3절), 인천미두취인소의 설립과 운영(제4절), 민족운동의 전개(제6절) 등으로 설명함

- 근대 일본인 도시로 부식(扶植)된 중구 개항장의 역사를 도시변화, 인천항을 통한 경제침탈, 인천항 축항 및 우리나라 최초 미두취인소 등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 공간이었던 경험을 통해 설명함

○ 『동구사』(2019)는 비교적 근래에 편찬되었는데, 근대의 동구(2장) 부분에 일제강점기의 동구(제2절)에서 인천부의 신시가지 동구, 1910년대 동기 지역의 토지 소유 상황, 인천 동구 상수도 도입과 운영, 3·1운동과 인천만세운동의 시작지 동구, 동구의 근대 교육, 해안매립과 공장 건설, 일제의 수탈과 조선인의 저항, 일제의 전시동원체제와 산업시설의 군수기지화 등의 8개 항목으로 정리함

○ 동구는 해안매립을 통한 공장지대 조성과 인천 최초의 상수도 도입, 민족교육과 민족운동의 온상이었던 특징을 중점적으로 서술함

(2) 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 『미추홀구사』(2022) 근대 편에서 근대사회의 형성과 미추홀구, 일제의 식민 지배와 사회경제적 변화, 근대제염업의 수용과 천일염전 축조, 인천시가지계획과 공업지대의 조성, 경인선, 수인선 철도의 부설과 변천, 민족운동,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등

7개 항목을 구성해 옛 미추홀구 지역이었던 소래·군자·남동 등에 조성되었던 천일염전, 소금을 실어 운반했던 수인선 철도, 경인공업지대 조성을 중점적으로 정리함

○ 『남동구 20년사』(2010)는 일제강점기 편(제5장)에서 경인지역의 3.1운동(제1절), 민족 말살정책과 인적 수탈(제2절), 물자수탈(제3절), 인천의 행정구역 개편(제4절), 소금 생산과 소래염전(제5절), 수인선의 부설과 변천(제6절), 대한민국 화약의 발상지(제7절) 등 7개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소래염전과 소금을 수송했던 수인선을 서술하고 있음

○ 『연수구사』(2014)는 일제강점기의 특징적 사실을 수인선과 송도유원지개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갯벌과 바다에 면했던 지리적 특성을 일제강점기 포매(捕貝) 양식업과 송도어업조합의 설립 내용을 통해 포패 양식업의 발달 과정과 간척과 개발에 따른 연수구의 변화 등을 서술함

(3) 부평구·계양구·서구

○ 『부평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편찬되었지만,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1년 『부평사』에는 일제강점기의 상황이 각 주제별로 구성된 총 8권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음

○ 그중 제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제3권 〈부평의 산업과 사회〉, 제4권 〈인천육군부평조병창과 애스컴시티〉에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 특히 주안염전 조성, 부평평야에서의 산미증식과 이에 수반된 수리조합 설치 등 농업정책, 1940년대 조병창 설치를 통한 병참기지화 및 이와 관련한 부평지역 역사적 특성으로 정리함

- 제1권 제3장 부평의 역사지리 중, 1940년대 공업화와 경인로(제5절), 제5장 개항기 인천, 부평의 염업과 주안천일제염시험장 설치 중, 개항기 경기만의 염전과 염업 조사사업(제1절), 통감부 염업 조사로 본 인천, 부평지역의 제염방식과 경영실태(제2절), 주안천일제염시험장의 설치와 제염 성적(제3절), 제6장 부평지역의 농업경제와 수리조합 중, 부평지역 토지조사(제1절), 일제의 농업정책과 부평지역 농업생산(제2절), 산미증식계획과 부평수리조합(제3절), 부평지역 지주제와 농민운동(제4절)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제3권에 서술되었는데 경인지역에 실시된 지방계획론·국토계획론의 실체와 그 전개 과정, 군수공업도시 조성과 도로망, 교통망 확충 및 군수산업체의 노무자 주택 건축 등 도시로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경인시가지계획(제1장), 일제강점기 군수공업도시 부평(제2장), 도시 인프라의 조성(제3장), 부평의 노무자 주택: 1940~1950년대를 중심으로(제4장),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0조 허가에 의한 철에 나타난 부평의 도시화(제5장) 등

○ 『서구사』(2014)의 일제강점기(제5장)에서 서쪽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진 지리적 입지가 반영된 지명의 탄생부터 갯벌 간척사업, 경인운하를 통한 교통의 효율성 확보 등 서구의 지리적 여건을 타개하고자 했던 역사성을 서술함

- 서곶면의 탄생(제1절), 서곶출장소의 탄생(제2절), 간척사업과 미간지정책(제3절),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 반대운동(제4절), 경인운하계획(제5절), 서구의 독립운동(제6절) 등 6가지 항목에서 서술함

○ 『계양구사』(2001)를 보완해서 한 권으로 정리한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2011)에서 행정기구 개편, 황어장터 독립만세운동, 산미증식사업과 부평수리조합, 경인공업지역과 부평 등 부평지역과 공유했던 역사적 사실의 언급과 특히 계양지역 황어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이 강조되어 있음

- 계양구의 역사와 발자취(제2장) 중 근대 및 일제강점기의 계양(제2절)에서 서술함

(4) 강화사·옹진군지

○ 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술함

○ 『신편 증보 강화사』(2015)는 일제강점기 강화(8편) 항목을 기획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육지와 떨어진 지리적 입지를 활용하여 국가적 위기에서 함께 단합하고 뭉쳐서 펼칠 수 있었던 의병항쟁, 계몽운동, 3·1 운동 등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이 서술되어 있음

- 강화지역의 의병항전(제1장), 강화의 계몽운동(제2장),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제3장), 3.1운동과 강화(제4장), 6.10만세운동과 강화(제5장), 강화의 농촌사회와 지주제(제6장), 강화주민의 생활상과 시장경제(제7장), 강화의 교육문화운동(제8장)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

- 『옹진군지』(2010)의 역사편(제2편)은 일제강점기(제6장)에서 옹진군의 3.1운동(제1절)을 우선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수산업(제2절)에서 어업이 주 산업인 옹진의 현황을 일제의 어장침탈과 수산업의 발전, 일제의 수산유통망 장악, 통계연보를 통해 본 인천 근해 수산물의 판매와 유통현황 등으로 정리함

〔그림 3-5〕『신편 증보 강화사』와『옹진군지』 표지



자료(출처): 강화문화원 웹사이트(왼쪽), 직접 촬영(오른쪽)

3) 대학연구소의 학술연구서

(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986년 9월 설립되었으며『동아시아 한국학 연구총서』,『동아시아 한국학 교양총서』 등 일제강점기 인천을 담론한 연구 서적 발행

❍ 인천의 근대 및 일제 강점기 연구

- 『인천지역사와 동아시아』(2017)에 수록된「1940년대 초 인천지역 화교사회의 동향-시립박물관 소장 1942년 화교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개항도시 제물포』(2017),「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 인천 개항장의 '한국형 매판 서상집의 경제활동」(2010),『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2012)에 수록된「개항 이후 인천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네트워크」,「일제하 조선 개항장 도시에서 화교의 정주화 양상과 연망의 변동; 인천, 신의주, 부산을 중심으로」 등
- 동아시아 관계사를 담론하는 과정에서 인천 개항 후의 도시 변화, 상업적 네트워크, 화교사회의 형성 등 연구로 외연 확장
- 『근대 제국과 만난 인천-충동과 변화』(2013)에 수록된「개항기 경인로의 변천」,「개항기 인천의 화교」 등

(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2002년 2월 출범하여 『인천학연구총서』(1~57), 『인천학자료총서』(1~38), 『인천학연구』(1~42) 등을 통해 인천 관련 연구와 자료를 집적함

○ 인천학연구원은 다음의 일제강점기 연구는 일제강점기 공업도시 인천, 관광도시 인천으로 부식(扶植)되는 양태 연구, 노동자들의 존재 양상, 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 동원, 도시변화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장·심화하는 계기가 됨

- 「만보산사건 전후 시기 인천시민과 화교의 동향」(2003), 「1930~40년대 인천지역의 행정구역 확장과 시가지계획의 전개」(2007), 「1920년대 인천지역 야학운동 실태와 성격」(2008),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 현황과 노동자 존재 형태」(2009), 「일제하 인천의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2011),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 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2016), 「구술로 보는 일제의 강제동원과 동양방적 사람들」(2022) 등
- 특히, 『인천항상공업조사』(1913),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1915) 등 일제강점기 출판된 인천 자료의 집적으로 논문의 내용이 보다 심화될 수 있는 기초를 구축함

(3)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 1972년 설립되어 『기전문화연구』(1~46)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논문들을 집적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인천 관련 연구 논문도 여러 편 게재함

- 「일제하 인천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연구」(1974), 「일제하 일인들의 인천 침탈상」(1976), 「인천에서의 여성운동」(1999), 「근현대 인천의 경관 변화와 공간구조의 변모」(2010), 「인천육군조병창과 부평의 근대도시경관」(2022) 등 근래에는 인천에서의 근대 도시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를 담론함

4) 박물관 학술조사 연구서의 연구 현황

○ 박물관의 특성상 대부분 유물조사와 보고서 작성, 유물 전시 중심이며 지역 유물과 관련한 조사보고서가 인천시립박물관(분관인 도시역사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포함), 부평역사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및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서 발간됨

○ 인천시립박물관(분관 포함)은 주로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종합학술조사 형식의 보고서를 간행해 왔는데 주로 일제강점기 건축물과 유물의 흔적 조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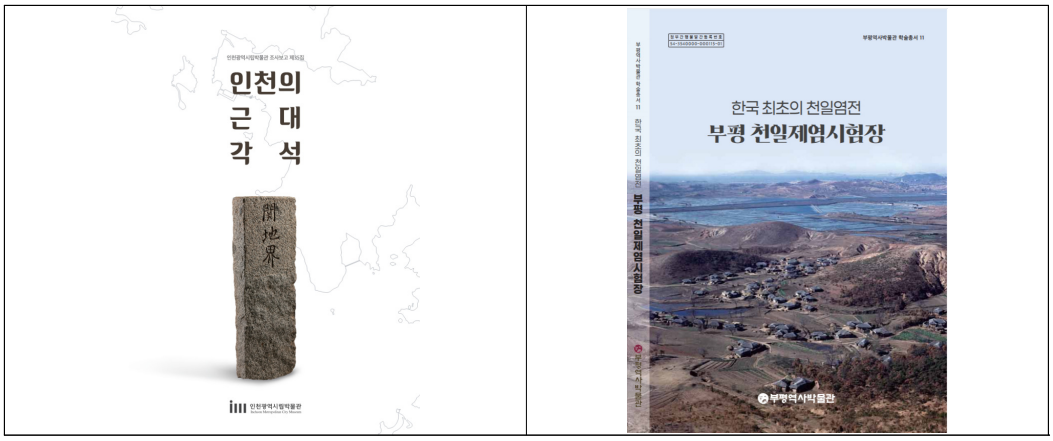
이를 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사진, 지도 등으로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배가시키는 특징이 있음

- 인천시립박물관의 『인천의 근대 각석』(2023), 『인천 근대 지도』(2025) 등과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 학술총서 『문화재가 된 인천 근대 건축』(2021), 『도면으로 보는 인천 근대』(2022)를 발간했으며,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하와이 소재 한인 이민 및 독립운동 자료조사 연구』(2019) 등 간행

○ 부평역사박물관은 주로 일제강점기 병참기지로서 기능했던 부평의 공간적 입지와 흔적을 찾아 조사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 학술총서로 연속 발간함

-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2014),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2016), 『도쿄제강 사택에 담긴 부평의 시간』(2021), 『산곡동 87번지, 부평 영단주택』(2022),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2024) 등

〔그림 3-6〕 『인천의 근대 각석』과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 표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좌), 부평역사박물관 웹사이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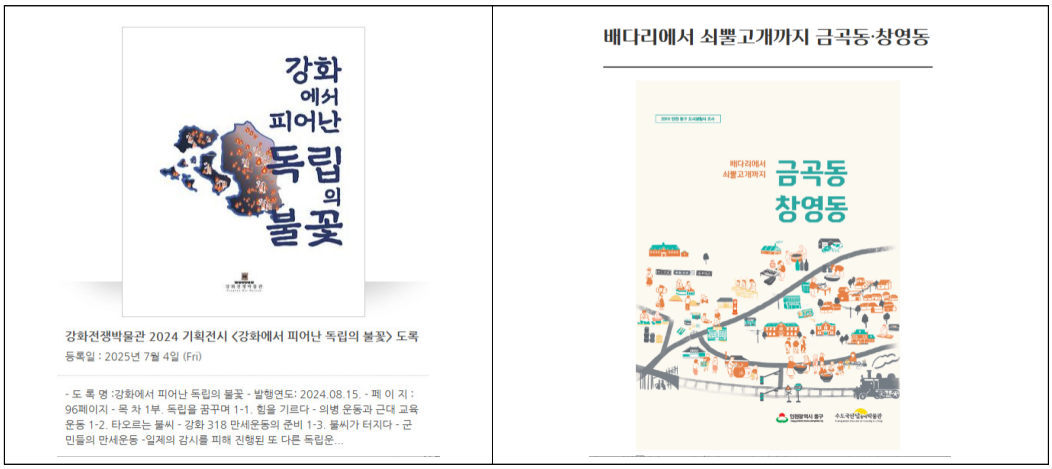
○ 강화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역사를 전시하고 이를 도록으로 발간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자료로는 강화도의 독립운동을 조사한 『강화에서 피어난 독립의 불꽃』(2024) 등이 있음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주로 수도국산의 유래 및 태생적 입지와 관련하여 6·25전쟁 이후의 생활사가 주요 조사대상이지만, 동구지역의 각 법정동의 생성과 일제강점기의

변화를 함께 조사한 『화수동 화평동』(2022), 『만석동』(2020), 『금곡동 창영동』(2019), 『송현동』(2018), 『송림동』(2017) 등의 자료가 발간됨

〔그림 3-7〕 『강화에서 피어난 독립의 불꽃』과 『금곡동 창영동』 표지



자료(출처): 강화역사박물관 웹사이트(좌),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웹사이트(우)

5) 인천문화재단(인천역사문화센터) 및 군·구 문화원 연구 현황

○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인천의 투사들, 항일을 기치로 식민의 거리를 누비다』(2019), 『인천과 13도 국민대표자회의, 한성정부 자료』(2022), 『근대를 짜다』(2023), 『근현대 인천의 산업과 산업유산』(2024) 등의 조사·연구 자료를 간행함

○ 군·구 문화원의 경우, 주로 마을의 민속신앙, 지명, 인물, 전통시장, 금석문, 소소한 동네 이야기 등 일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지』, 『동지(洞誌)』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현재 근대 및 일제강점기로 시대를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는 없음

6) 핵심 연구 성과

시사 편찬

○ 시사 편찬에서 근대 및 일제강점기 연구를 확장할 수 있었던 핵심 연구 성과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인천사 자료 발굴과 이를 인천역사문화총서 자료집으로 간행한 것임

〔표 3-13〕 인천역사문화총서 중 일문 자료 수집·번역 현황

구분	저작 연도	서명	총계(18)
개항 이후	1892	• 역주)인천사정(靑山好惠, 11호)	6종
	1893	• 역주)인천잡시(橫賴文彦, 12호)	
	1894~1908	•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인천초록역주(상,하/ 80호)	
	1905	• 역주)한국2대항실세(相澤仁助, 29호)	
	1908	• 역주)인천개항25년사(2종) • (信夫淳平, 12호/加瀨和三郎, 13호)	
1910년대	1911	• 역주)병합후의 인천(桑原秀雄, 조선신문사, 37호) • 역주)인천토지조사부(조선총독부, 81호)	5종
	1912	• 역주)최근의 인천(滿鮮實業社, 41호)	
	1915	• 역주)인천부세일반(3)(인천부, 83호)	
	1918	• 역주)인천축항도록(조선총독부, 23호)	
1920년대	1922	• 역주)인천미두취인소 연혁(秋山滿夫, 48호)	2종
	1925/1929/1936	• 역주)인천과 인천항(54호) • (인천항만협회협찬회/萩森茂/조선운송주식회사)	
1930년대	1931	• 역주)인천항(인천상공회의소)	5종
	1932	• 역주)인천향토지(인천교육회)	
	1933	• 역주)인천의 사화와 사적(小谷益次郎)	
	1938/1939	• 역주)인천부세일반(2종)(인천부)	

출처: 강옥엽(2024). 「인천시사자료의 수집과 활용」, p. 11.

❍ 인천역사문화총서는 일제강점기는 물론, 전근대 및 개항과 근현대 인천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발굴수집되어 번역과 역주 작업을 통해 2013년(5차), 2023년(6차) 시사 증보 편찬 작업의 바탕이 됨

❍ 특히, 일제강점기 자료 중 인천항 축항공사의 모든 작업과 현황을 정리한 『인천축항도록』(1918)은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자료임에도 수집되어 번역 출간된 자료로 이후의 시사편찬 작업에 반영되었으며 사진 등을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런 사례는 각 『군구사』 편찬사업에서도 적용되어 『도시마을생활사』(미추홀구), 『도시마을 이야기』 또는 『도시마을지』(중구, 서구, 계양), 『학술총서』(부평구),『학산문화총서』(미추홀구), 『향토문화총서』(연수구) 등의 형태로 자료가 집적되면서 『군구사』 증보 편찬의 새로운 데이터 자료가 되고 있음

○ 최근 편찬된 『부평사』(2021)의 「개항기 인천, 부평의 염업과 주안천일제염시험장 설치」(제1권 제5장)나 『미추홀구사』(2022)의 「일제의 식민지배와 사회경제적 변화」(제1권 제6편, 제2장) 등은 그동안 발굴된 자료를 통해 보다 연구를 심화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대학 연구소의 학술연구서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는 동아시아 관계사를 담론하는 과정속에 「인천 개항 후의 도시 변화」, 「상업적 네트워크」, 「화교사회의 형성」 등의 연구 논문 출판으로 인천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됨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은 그동안 『인천학연구총서』(1~57),『인천학자료총서』(1~38), 『인천학연구』(1~42) 등을 통해 자료를 집적하였으며 연구 주제들도 일제강점기 공업도시 인천, 관광도시 인천으로 부식되는 양태 연구, 노동자들의 존재 양상, 조병창운영과 조선인 학생 동원, 도시변화 등 다양하여 연구를 확장·심화함

박물관의 학술조사 연구서

○ 박물관 특성상 대부분 유물조사와 보고서 작성, 그리고 유물 전시를 위주이며 인천지역 일제강점기 건축물 및 유물과 관련하여 연구를 겸한 조사보고서가 최근 많이 간행됨

- 인천시립박물관(분관 포함)은 일제강점기 건축물과 유물의 흔적을 조사하고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2013), 『도면으로 보는 인천 근대』(2022) 등과 같이 이를 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면, 사진,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함
- 부평역사박물관의 경우,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2014),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2016) 등 일제강점기 병참기지로서 기능했던 부평의 공간적 입지와 흔적을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학술총서로 집적함

인천문화재단(인천역사문화센터) 및 군·구 문화원

○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에서는 근현대 인천의 산업과 산업유산 자료를 정리·발간하여 인천의 문화유산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

○ 각 군구 문화원의 경우, 일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지』, 『동지(洞誌)』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나 근대 및 일제강점기로 시대를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는 특별히 없음

7)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

❖ 지역자료 발굴·정리 작업과 시사의 연차적 편찬, 주제에 따른 세부 내용과 평가는 학술토론의 장을 통해 수렴되고 정리되어야 할 과제임

○ 현재까지 진행된 인천 지역사 조사·연구의 결과로 근대 및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음

○ 지역마다 '향토사'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역사를 정리해 두는 작업은 자칫 묻혀버릴지도 모르는 지역자료를 발굴·정리해 보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

○ 한정된 지면에 발굴, 또는 정리된 자료를 모두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편찬을 진행하면서 대개 10년을 주기로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증보(增補) 작업을 해야 함

○ 편찬된 각각의 주제에 따른 세부 내용과 평가는 연구자의 논문을 통해서나 대학 및 학계의 학술 토론 장(場)을 통해 수렴되고 정리해야 할 과제임

❖ 인천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록으로 남겨야 할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수집·관리 방안 마련

○ 현재 인천시 관할 군·구마다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지역 문화원과 문화재단 등에서도 인천 지역사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음

○ 시립박물관이나 분관, 각 구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 및 유물구입을 통해 축적한 자료들도 상당하며 시나 군구에서 발간하는 행정 현황을 정리한 『백서』 등도 수집 대상 자료임

❖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재 집적되고 있는 이런 결과물들을 비롯해 인천 관내·외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만 하고 다듬고 정리하여 엮어 내지 않는다면 역사 자료 수집의 의미를 반감함

○ 자료 활용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수집된 원자료나 정리·편찬된 자료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고 사진을 비롯한 원문 형태의 여러 유형의 수집자료가 분류를 거쳐 제공된다면 더욱 효용성이 있음

각 연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네트워킹 원활

○ 특히, 자료 수집에 있어 다양한 학문 간 공동연구와 상호 협력이 요구되며, 발굴과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서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

○ 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이슈화할 수 있는 주요 사건, 문제점이나 이론 등을 때때로 제안하고 공동 개최의 담론장을 포럼, 혹은 학술회의 형식으로 마련하면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지역사 편찬을 위한 아카이빙 논의 필요

○ 근래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등 지역문화 선도기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의 양이 많아지고 있으며 인천학, 학산학, 서구학 등 지역학으로 확장하고 있음

○ 인천 지역사 편찬을 위해 수집할 분야와 자료량도 방대해졌으므로 아카이빙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각 지역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신중한 성찰 필요

○ 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중요한 바탕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 이에 기반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이해하는 일임

○ 아직 지역마다의 특성이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언어, 문화, 경제, 정치, 관혼상제 등 생활풍속, 관습, 건축, 동시대에 유행되는 트렌드, 습득된 교육, 삶의 방식 등이 별달리 차별화되지 않는 유사한 상황에서 지역마다 어떤 독특한 문화를 지역의 정체성으로 내놓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더구나 2026년 7월 행정권역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보다 신중한 성찰이 요구됨

○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군·구지(誌)』 편찬 작업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역사적 연원이나 배경에서 볼 때 현재의 시군은 하나의 단위로 엄연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근대의 지역적 특성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면이 있음
- 근현대 이후로도 많은 행정구역의 변천이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의 행정구역 단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며, 행정구역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의 지역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은 향후 『시사』 및 『향토사』 편찬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임

4. 현대사 주요 연구 현황

○ 인천 현대사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인천 내 각 공공기관 발행의 논문집 및 연구서를 대상으로 현대사를 정리함

○ 시사 및 군·구사 편찬 연혁에 관한 일반 현황은 근대 및 일제강점기 인천사 연구 현황과 내용은 같으나 축약하여 기술함

1) 인천광역시사 및 군·구사 주요 연구 현황

○ 인천시사 편찬 작업은 1956년 출발해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작되어 1973년 첫 번째 『시사』를 발간한 이래, 10년 단위로 증보 사업을 진행해 1983년, 1993년, 2002년, 2013년, 2023년까지 6차례 편찬함

○ 특히, 2013년 이후부터 매년 주제별 시사편찬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15호의 결과물이 축적되었고, 현재 16호 사업이 진행 중임

○ 연속적인 시사 증보 편찬 작업을 위해 인천사 자료를 꾸준히 발굴·조사·정리하여 2003년부터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 총 101권을 기획·발간함

○ 『군·구사』 편찬도 지자체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일환으로 일찍부터 이어져 옴

- 중구는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부터의 역사를 2010년 『중구사』 편찬으로 정리한 바 있고, 동구는 2019년 『동구사』를 간행함
- 남동구는 1988년 분구된 이후의 기록을 『남동구 20년사』에 담아 2010년 발간했고, 『연수구사』는 2014년에 출판함

- 『서구사』는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 걸쳐 편찬된 바 있고, 『계양구사』 역시 2001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함
- 강화군은 1976년, 1983년, 1994년에 이어 2003년 및 2015년 『신편 증보 강화사』를 편찬했으며 옹진군도 1990년에 이어 2010년 『옹진군지』를 편찬함
- 특히, 인천 역사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찾아 2018년 7월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구명(區名)을 변경한 미추홀구 역시 2015년~2019년에 걸쳐 동(洞)별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시마을생활사』 학술총서를 바탕으로 2022년 『미추홀구사』를 편찬함
- 부평구 역시 1997년과 2007년 편찬에 이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 동의 역사적 환경을 조사한 학술총서를 집적해 2021년 『부평사』를 간행함

(1) 인천시사의 현대사 연구 현황

○ 1973년 『시사』의 인천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과도기적 성격이었다면, 1983년 편찬된 『인천개항 100년사』 이후, 1993년, 2002년에 이르러 仁川史의 체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 『시사』에 서술된 인천 현대사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통사체제에서 시대별 특징에 맞춰 인천지역의 연구가 반영되는 형태임

- 광복과 미군정 실시, 정부수립과 인천지역사회 동향, 6·25전쟁과 이북 5도민 이주, 구제(區制) 실시 등 광복과 6·25전쟁, 9·15 인천상륙작전 등 현대사의 생생한 현장으로서 인천의 공간적 경험이 바탕이 됨

○ 2013년 총 3권으로 구성된 기사본말체 방식의 『인천시사』에서는 각각의 주제 속에 전근대와 근·현대사에서 전개된 사실들을 통섭적으로 정리함

- 제1권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편에서는 인천에서 전개되었던 근·현대사를 포괄하여 제물포 개항장의 공간 구조, 근대문화의 수용,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조선인 사회의 자각, 식민지 수탈의 현장, 근대 이행기 인천의 도시경관 변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큰 범주를 대신해 생활사적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소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미시사'라는 역사 연구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서술함
- 제2권과 제3권은 주로 현재의 삶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2권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편에서는 1945년 이후 인천 현대사의 흐름을 정치와 행정, 경제 외에

노동자 운동, 교육과 복지, 문화, 시민사회 운동, 도시계획 변화 등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그 변화 과정을 서술함

- 제3권 『인천의 삶, 도시의 변화』 편에서도 현대사의 발자취를 13인의 구술을 통해 일상에서 경험했던 현대사의 흔적을 채록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정리함

○ 2013년 이후부터는 인천사에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매년 테마를 기획하여 편찬했는데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 체육의 발전 과정을 사진과 구술을 통해 정리한 『인천의 체육』(2014),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기술한 『인천전쟁사(하)』(2022) 등이 있음

○ 제2권 총 18장으로 구성된 『역사편』(2023)에 수록된 인천 현대사는 6·25전쟁과 인천(제13장), 해방 후 인천의 정치, 경제(14~15장), 인천의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제16장) 등 4장으로 압축되어 주로 해방과 6·25전쟁 이후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 및 특히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목하여 서술함

○ 인천역사문화총서에 수록된 현대사 관련 자료는 『미군정기의 인천자료』(2004), 『역주 현대 한국의 마을』(2009) 등이 있으나, 일제강점기 자료에 비해 현대사 자료는 발굴의 한계가 있음

○ 현대사 자료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 역사를 통섭적으로 엮어 정리한 『근대 문화로 보는 한국 최초 인천 최고』(2005)와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2015), 인천이 경험한 전쟁과 그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을 집성한 『인천의 호국과 현충』(2017), 인천도서관의 초기 설립 과정이 기록된 1960년대 자료를 윤문한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2021) 등 전거(典據)가 되는 현대에 조성된 자료들을 찾아서 정리한 것이 있음

(2) 군·구사 연구 현황

○ 『중구사』(2010) 제4장 광복 이후에 수록된 광복과 미군정의 실시(제1절), 해외 전재동포의 귀환(제2절), 광복 후의 정치와 경제(제3절), 정부수립과 6·25전쟁(제4절) 등이 있음

○ 당시 인천항을 거점으로 인천시청이 자리했던 중구의 현대사는 곧 인천의 현대사였고 광복, 미군정, 전재동포의 귀환, 6·25전쟁을 온전히 경험했던 공간으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종점적으로 설명함

○ 『동구사』(2019)의 제3장 현대의 동구에 수록된 광복, 그리고 6·25전쟁과 동구(제1절), 동구의 탄생(제2절)에서 화수부두와 만석부두의 성쇠, 해안 매립과 주거환경의 변화, 산업의 발전과 지역변화, 인천의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구제실시 등의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동구는 해안매립을 통한 공장지대 조성과 공업화, 화수만석부두의 어업활동과 변화 등의 특징을 기술함

○ 비교적 근래에 편찬된 『미추홀구사』(2022)의 현대 편은 광복과 지역사회의 변화, 도시와 행정구역의 변천, 산업과 경제발전, 민주화운동 등 4가지 항목으로 설명함

○ 광복과 미군정, 6·25전쟁, 도시계획과 도시화, 산업시설의 재건과 주안공업지구 조성,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중심 공간이 되었던 시민회관과 각급학교들이 자리한 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원민주화운동 등도 정리함

○ 『남동구 20년사』의 현대 편(제6장)은 광복기(제1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 변화(제2절), 시민사회의 형성(제3절), 시민사회운동(제4절), 경제개발과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조성(제5절), 농지개혁과 사회경제적 변화(제6절) 등 6가지 항목을 구성하고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시민사회운동을 비중 있게 서술함

○ 『연수구사』(2014)의 현대사 부분은, 갯벌과 바다에 면했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주민생활의 변화, 간척과 개발의 과정, 갯벌의 위기, 그리고 여성 어민들 등의 항목을 통해 간척과 개발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함

○ 가장 최근 간행된 『부평사』(2021)는 현대사를 주제별로 구성된 총 8권의 내용 속에 녹여서 서술하고 있는데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의 변화와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 광복 후 도시 정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부평지역의 도시로의 변화와 역사적 특성을 정리함

- 제1권 『부평의 환경과 역사, 인물』, 제3권 『부평의 산업과 사회』, 제4권 『인천육군부평조병창과 애스컴시티』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함
- 제1권 제3장 부평의 역사지리 중, 광복 직후 애스컴시티의 건설과 캠프마켓(제6절), 제3권 중, 1960~1970년대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평 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제1장), 역사를 만들어 간 부평지역의 노동운동(제3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망의 확충(제4장), 부평시장의 형성과 발전(제6장), 부평의 오래된 가게(제8장), 제4권 제4장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중, 해방과 애스컴시티(제1절), 제5장 캠프와 기지촌

형성 중, 부평의 기지촌(제1절), 부평의 양키시장 형성과 부평의 변화(제2절), 제6장 캠프마켓 반환 운동 등에서 정리함

○ 『서구사』(2014)의 현대사(제6장)는 광복과 대한민국정부 수립(제1절), 6·25전쟁과 전후 복구(제2절), 경인고속도로와 공업단지 조성(제3절), 서구의 탄생과 발전(제4절) 등 4가지 항목을 통해 광복과 6·25전쟁, 경인고속도로와 공업단지 조성 등 서구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서술함

○ 『계양구사』(2001)를 보완해서 한 권으로 정리한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2011)의 현대사 부분은 광복과 인천 그리고 계양(제3절) 속에 지방자치제의 변화, 광역시 승격과 계양구 신설 등 부평 지역과 공유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계양구의 탄생에 관해 서술함

○ 『신편 증보 강화사』(2015)는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의 강화(9편) 편에 해방, 분단과 강화의 변화(제1장), 한국전쟁과 강화(제2장), 강화의 수난과 민간인 학살(제3장), 정부수립 이후 강화의 발전(제4장) 등 총 4장의 내용에 한국전쟁과 강화지구 전황, 유격대 조직과 활동, 강화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배경, 원인, 전개 과정, 진실규명 작업 등과 정부수립 이후 강화의 발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함

○ 특히, 전쟁 와중에 섬 지역이 경험한 피해와 한계 상황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함

○ 『옹진군지』(2010)의 역사(제2편) 편에 정리된 현대사는 6·25전쟁으로 섬 지역인 옹진이 경험한 특수한 상황과 남북분단, 이북 5도민의 이주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함

- 광복과 6·25전쟁(제7장)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제1절), 해방 후 분단에 따른 남북의 대립(제2절), 6·25전쟁과 서해도서의 첩보 유격전(제3절), 현대 옹진의 탄생(제8장) 중에서 현대 옹진의 탄생(제1절), 이북5도민의 이주(제2절), 북한의 영해침범과 서해 교전(제3절), 옹진의 미래(제4절) 등에서 서술함

(3) 대학연구소 학술연구서 연구 현황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동아시아 한국학 교양총서' 중 『인천지역사와 동아시아』(2017)에 수록된 「1960~1970년대 즈웨버Benedict A. Zweber의 덕적도 선교활동과 그 의의」 외에 인천지역사와 관련된 현대사 연구는 거의 없음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의 인천 현대사 관련 연구는 「기억의 젠더정치와 한국전쟁-인천여학생의용대 강분희의 전쟁 경험을 중심으로」(2023), 「한국전쟁 구술사 연구와

인천」(2021), 「대중일보의 이념성에 관한 연구」(2016), 「해방 후 인천의 항만 중심 생산구조의 도시공간 연구:1945~1969」(2015), 「해방 전후기 인천 성냥제조업의 변화」(2015),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2014),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2014), 「해방 초기 인천화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2008), 「해방기 인천 좌익운동가 박남칠 자료 연구」(2007), 「해방 후 이승엽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1945~1953)」(2007), 「해방직후 인천노동운동의 성격」(2006), 「해방 후 인천지역 전재동포 귀환과 사회변화」(2004), 「한국전쟁 시기 인천의 특징과 성격」(2003), 『인천이 겪은 해방과 전쟁』(2018)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있어 인천학의 영역을 더욱 심화·확장함

○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에서는 『기전문화연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 논문들을 집적하는 가운데 인천 관련 연구들도 담론하고 있는데 인천의 현대사 관련 연구로는 〈한말에서 현재까지의 관할구역 변천을 중심으로〉(1990), 〈부평지역 지방행정체제 변천에 관한 연구〉(1994),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고찰- 45회, 59회, 64회를 중심으로-〉(1994), 〈부평의 지역성 고찰〉(1998), 〈근현대 인천의 경관 변화와 공간 구조의 변모〉(2010), 〈196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활동과 조지 오글〉(2019), 〈베트남전쟁이 인천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연구〉(2021), 〈군수산업복합기지로서 인천육군조병창의 특징과 한국전쟁기의 전략적 위상〉(2022) 등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서 인천 체육, 부평지역 행정변천, 도시경관 변화,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한국전쟁기 부평지역 위상을 정리함으로써 인천 연구를 학술적 담론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핵심 연구 성과

시사 및 군·구사

○ 시사에 서술된 인천 현대사는 한국사의 일반적인 통사체제에서의 시대별 특징에 맞춰 인천 지역사 연구가 반영되는 형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큰 범주를 대신해 생활사적 관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소소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미시사' 역사 연구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서술함

- 〈광복과 미군정 실시〉, 〈정부수립과 인천지역사회 동향〉, 〈6·25전쟁과 이북 5도민 이주〉, 〈區制 실시〉 등에서 공통으로 정리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각 『군구사』 편찬사업에서도 적용되어 『도시마을생활사』(미추홀구), 『도시마을 이야기』 또는 『도시마을지』(중구, 서구, 계양), 『학술총서』(부평구), 『학산문화총서』(미추홀구), 『향토문화총서』(연수구) 등의 형태로 자료가 집적되어 『군구사』 증보 편찬의 새로운 데이터 자료가 되고 있음

- 특히, 『부평사』(2021) 광복 직후 애스컴 시티의 건설과 캠프마켓 (제1권 제3장 제6절), 부평 조병창과 애스컴시티(제4권)는 애스컴 시티와 캠프마켓 관련 발굴자료들이 반영되어 있고 『미추홀구사』(2022)의 현대편 「민주화운동」은 시민회관과 각급학교들이 자리한 미추홀구의 특성을 반영해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학원민주화운동 등 그동안 발굴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강화사』(2015) 및 『옹진군지』(2010)에 서술된 현대사는 주로 6.25 전쟁으로 빚어진 섬 지역에서의 특수한 전쟁 상황과 남북분단 현실, 이북5도민의 이주 등 외에 특히, 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관련 사실 확인과 진실규명 작업 등이 정리됨

대학연구소의 학술연구서

○ 대학연구소라는 성격상 다양한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인 연구과제들이 주로 언급되었지만, 그 가운데도 인천지역 〈현대사〉를 담론하는 논문들을 발견할 수 있음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는 「1960~1970년대 즈웨버(베네딕트 A. Zweber의 덕적도 선교활동과 그 의의」 외 인천 지역사와 관련된 현대사 연구는 거의 없음

○ 인천대 인천학연구소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현대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광복 후 인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집적하여 인천학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됨

- 「해방기 인천 좌익운동가 박남칠 자료 연구」(2007), 「해방 후 이승엽의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1945~1953)」(2007), 「해방직후 인천노동운동의 성격」(2006), 「해방 후 인천지역 전재동포 귀환과 사회변화」(2004), 「한국전쟁 시기 인천의 특징과 성격〉(2003), 『인천이 겪은 해방과 전쟁』(2018) 등

○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는 부평지역 행정변천, 도시경관 변화,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한국전쟁기 부평지역 위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을 담론해 왔는데, 특히,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고찰- 45회, 59회, 64회를 중심으로」(1994) 및 「베트남전쟁이 인천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연구」(2021) 등은 인천 체육발전사와 1960년대 인천지역 사회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음

박물관 학술조사연구서

○ 시립박물관은 주로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종합학술조사 형식의 보고서를 간행해 왔는데 주로 근현대 산업유산인 건축물과 유물의 흔적을 조사해 이를 전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도면, 사진, 지도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한 특징이 있음

- 인천 현대사의 학술연구서로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2013), 『극동방송 사옥 및 TEAM 선교사 사택』(2025), 『1944~1950 국외기관 소장 연합군, 미군 생산 인천자료』(2024), 『캠프마켓 1단계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2022), 『미군기지 캠프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유적』(2022),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출간한 조사보고서 『오래된 가게, 인천 노포 1, 2』(2019) 등을 간행함

○ 부평역사박물관은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2019) 등과 같이 부평의 마을이 위치한 공간적 입지와 역사적 흔적을 찾아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학술총서로 연속 발간함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박물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조사연구 대상이 6·25전쟁 이후의 서민생활사로 송림, 송현, 금곡창영, 만석동, 화수화평동 등 동구 지역 법정동의 삶의 흔적과 생활상을 구술 채록을 곁들여 조사한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함

인천문화재단(인천역사문화센터) 및 각 군·구 문화원

○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에서는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 발굴, 『인천의 산업과 산업유산』(2024) 등의 조사를 통해 인천의 산업유산을 재조명하는 자료를 발간하였음. 특히, 2024년 인천문화재단에서는 1981년~2020년까지 인천문화예술의 발전상을 여러 장르별로 분류하여 『인천문화예술 40년사』(총 8종)를 간행함으로써 인천 문화예술사의 현대사를 정리한 바 있음

○ 각 군구 문화원에서는 지역 사람들 이야기, 전통시장, 마을과 지명의 유래 등을 소재로 마을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구술채록을 겸한 『마을지』나 『동지(洞誌)』 형태의 현대사 자료를 연속 발간하고 있음

3) 향후 연구 과제 및 방향

시사 및 군·구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정리 필요

○ 그동안 인천은 발전을 담보로 개발과 변화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음. 인구 면에서도 지리적 입지에서도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외형적 규모가 엄청나게 확장됐으며 행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 옴

○ 시사와 군·구사 편찬을 위한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직할시 이전까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직할시 40여 년, 1995년 광역시 30년의 변화·발전을 증거해줄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진 자료는 특히 부족한 실정임

1945년 이후 생산된 다양한 현대사 자료 수집에 주력

○ 연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이후 생산된 다양한 현대사 자료 수집에 주력 필요

○ 현대사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자료공개법」에 의해 30년이 지나야 대부분의 정부 자료가 공개되고 자료공개 과정에서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현대사 주요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음

지역사에 대한 인식과 기초자료의 수집, 연구 인력의 확충과 활용 문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인천 지역사 자료의 수집과 활용의 문제는 그동안도 여러 차례 학술포럼 등을 통해 논의됨

○ 새로운 인천 지역사 자료의 발굴·조사·수집·정리는 물론, 홍보를 겸한 그 활용 방안까지 확대된 개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인천 지역사 연구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대두하고 있음

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집, 수집 후의 관리 방안 고려 필요

○ 인천의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기록으로 남겨야 할 문화자산들에 대한 관심과 정리가 절실함

○ 현재 인천시 관할 군·구와 지역 문화원 또는 문화재단 등에서 향토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었고 시립박물관과 분관, 각 구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 및 유물구입을 통해 축적된 자료들도 상당함

○ 시나 군구에서 발간하는 행정 현황을 정리한 『백서』 등도 수집 대상 자료임

○ 현재 집적되고 있는 결과물을 비롯한 인천 관내·외의 다양한 자료의 수집 이후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다듬고 정리하여 편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5.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시사점

1)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의 쟁점

(1) 인천 역사 연구 관련

○ 후속 연구 세부 주제 등

- 강화도성 연구 역사 800년의 쟁점과 과제
- '한국 최초, 인천 최고' 개별 주제에 관한 심층 연구
- 1945년 이후 생산된 현대사 자료 수집에 주력 필요

○ 연구 주제 다양화 필요

- 인천 정체성과 한국 근대사
- 인천 문화권역별 특성 연구
- 인천인 생활사와 맥락적 도시 연구
- 시대사와 지역사(군·구사, 주제사)의 접목, 균형 필요

(2) 정책 지원 관련

○ 역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방안

- 대학이나 민간의 인천역사연구에 대한 조사 선결
- 학술토론장을 통한 지역 자료 발굴 및 정리, 시사 연차적 편찬, 주제 세부 내용 평가

- 연구 인력 양성 및 확충, 각 연구기관과의 공조
- 지역사 기초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연구지원 사업

○ 후속 조치

- 도시화로 멸실에 처한 역사문화자산 기록과 체계적인 수집·관리
- 아카이빙을 통한 지역사 편찬에 활용, 시민들과의 공유 및 활용

2)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에서의 접근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토대이자 시작점으로서, 연구사 정리를 선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를 정리함

(1) 인천 역사 연구 관련

○ 인천 역사 연구 및 시사 편찬은 크게 시대사에서 지역사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후속 연구 주제, 주제 다양화 필요성 등 쟁점이 부각됨

(2) 정책 지원 관련

○ 인천 역사 연구 및 시사 편찬은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중 '발굴 및 보존', '기록관리 및 시사 편찬' 두 영역에 걸친 대표적 분야로서 발굴조사를 포함한 기초연구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인천시에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기획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 가치화 사업 1~2차년도 동안 아카이브 관련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 현황 연구」(2024), 「아카이브 운영 기관 협력사업」(2025) 등 사업이 추진됨

(3) 총평

○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를 통해 제기된 쟁점 중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이를 통해 도시계획상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기획'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이에 대한 세부 전략이 필요

○ 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 정리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나가, 문화역사지리학적 접근을 통한 '가치화 기획'을 더해 지역 특성 반영 및 시민들과의 공감대 확대를 도모할 필요

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모범 사례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모범 사례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62)]

1) 포럼 개요

○ 역사 사료와 연구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준 사례로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이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의기 논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사례 발표를 통해 인천시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포럼을 진행함

〔표 4-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 개요

구분	내용
일 시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 소	인천연구원 대회의실
발표자 / 발표 제목	고능석(극단현장 대표) /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채희락(수원문화재단 관광국장)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의 실증과 정책과제)
참석자	인천시, 인천연구원, 인천관광공사, 극단 열정 소속 전문가, 관계자 등

2. 진주: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1) 운영 조직과 연혁

○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는 사단법인이자 전문예술법인 극단 현장에서 운영함

- 1974년 창단되어 현재 이사(9명), 상근 단원(10명), 회원(4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원회원(약 500명), 후원기업체(2곳)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

62) 이 절은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례 공유 포럼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창작팀, 기획팀, 사무 행정팀으로 편성되어 상근 단원의 평균 경력이 15년을 상회함
- 대한민국연극제 최우수 연기상(단원), 대통령상(극단),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대표, 연출) 등 수상 실적을 보유함
- '극단 현장의 단원들은 일상에서의 경험을 무대 위로, 무대 위에서의 깨달음을 일상으로 가져 오는 순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경험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는 운영 원리를 보유함

○ 2002년도 진주논개제부터 해설 중심의 논개 투신 재현극, 논개 순국 재현극, 역사야외극 의기 논개 등 제목으로 참여해 왔음

○ 2023년부터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로 독립 브랜딩함

〔그림 4-1〕 2025년 5월 〈의기 논개〉 웹 포스터



자료(출처): 극단현장 웹사이트(2025.3.26.)

2) 실경역사뮤지컬

(1) 히스토리텔링

○ 역사 속 인물인 논개는 오늘날 대중성을 갖추었음에도 사료에 의한 고증이 부족함

> 진주성이 왜적에게 짓밟힐 때 기녀로서 적장을 유인하여 남강(南江)에 빠져 산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널리 유포되었다. 구전되어오던 논개의 순국 사실이 문헌이나 금석문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620년경부터라고 추정된다. 사회의 멸시를 받던 기녀의 몸으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충성심에 감동한 유몽인(柳夢寅)이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채록하여 문자화된 것이었다. 한편 진주 사람들이 논개의 애국적 행위를 기리고 전하기 위하여, 순국한 바위에 '義巖(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겨넣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논개를 추모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중의 충신·효자·열녀를 뽑아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논개의 순국 사실이 누락되었다. 이는 유교 윤리에 젖은 일부 편집자들이 관기를 정렬(貞烈)로 표창함이 불가하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중략)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논개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설이 제시되었다. 논개는 전라도 장수 출신이며, 양반 가문 출신이고, 성은 주씨(朱氏)이며, 최경회(崔慶會) 혹은 황진(黃進)의 애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문헌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개의 출신 성분에 대한 지나친 미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논개(論介)').

○ 극단 현장은 '주체', '호의', '평등'의 세 가지 진주지역 정신에 입각해 실경역사뮤지컬에 현대적 각색을 가미함

> 극단 현장 고능석 대표는 "논개가 위기에 처한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왜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한다는 설정은 '충절'의 정신을 '의인'이라는 현대적 공동체 철학으로 재해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뉴시스, 2023.5.1.).

○ 의상과 소품, 음향과 조명, 특수효과 등 무대 디자인 또한 고증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각색함

(2) 장소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

① 2025년 5월

○ 2025년 5월 과거 논개가 투신한 것으로 전해지는 진주성 의암 일대에 설치한 수상특설무대와 XR(확장현실) 체험을 통한 야외극 총 10회 진행

- 배리어프리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어통역석 10석, 휠체어석 10석 등

-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서비스: 키 높이 방석 준비, 전 연령대 관람을 위한 공연 언어 순화,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매
- 시민 참여형 공연 모델: 전문 배우 14명, 시민 배우 33명, 검무 6명, 어린이 6명, 무용수 2명, 시민합창단 59명 등
- 안전사고 대책: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수상·육상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전원 구명조끼 착용, 관람객 안전 동선 유도, 안내요원 사전 CPR 교육, 의료지원센터 운영, 구급차 및 잠수부 상시 대기, 수상 안전 전문회사의 안내,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담 진행요원 배치 등
- 탄소중립 실천: 출연진 및 스태프 식사 배식판 사용, 분리수거, 인쇄물 경감을 위한 QR 코드와 온라인 웹 홍보 주력

〔그림 4-2〕 수상특설무대에서 실경역사뮤지컬을 관람 중인 관객들의 모습



경남 진주성 외곽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연출 고능석)를 수상특설객석에서 관람하는 관객들. 만약을 대비해 입장 때 구명조끼를 지급받고 관람 내내 착용해야 한다. '의기 논개'는 (사)극단현장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진주시 후원하는 작품으로 올해 5월 한달간 총 10회 공연이 거의 매회차 매진됐다. 강혜란 기자

자료(출처): 중앙일보(2025.6.2.)

○ 진주문화관광재단 릴스 누적 조회수 130만 뷰 달성 등 홍보 실적

- 진주문화관광 대표 상품 공모(5개 업체 관람객 315명)
- 보도 성과: 총 83회(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114개 언론사 배포
- 광고 신문: 순천광양 교차로(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16회
- 방송 스팟 광고:

- 창원KBS, 부산KBS, 대구KBS 총 94회(송출 기간: 25.4.21.~25.5.16.)
- 서경방송 채널 총 3,026회(송출 기간: 25.3.24.~25.5.23.)

- 인플루언서 광고: 총 4개 계정 172회

❍ 예매율 94.6%로 10회 중 7회 공연이 매진

- 배리어프리석 예매율 39.5%(수어통역석 83.5%, 휠체어석 16.5%)
- 관람객 지역별 분포: 진주시(63.2%), 진주시 외 경남 지역(17.7%), 6개 광역시(9%), 서울·경기(4.6%), 기타(5.5%)
- 관람객 연령별 분포: 40대(45%), 30대(27%), 20대·50대(각 11%)
- 재관람률: 25.9%(2회 16.3%, 3회 3.6%, 4회 3.6%, 5회 이상 2.4%)
- 자체 만족도 조사: 만족 이상(98.3%)

〔그림 4-3〕 〈의기 논개〉 언론보도 화면 1



자료(출처): 중앙일보 유튜브(2025.6.2.)

② 2025년 8월

❍ 2025년 8월에는 진주성 안으로 자리를 옮겨 실경 무대 크기 구현, 현대적 미감의 디자인, LED 영상 및 특수효과를 활용한 공연 총 3회 진행

- 기후 변화 대응을 사유로 육상에서 진행
- 총 3회 전석 매진

〔그림 4-4〕〈의기 논개〉 언론보도 화면 2



자료(출처): 진주시청 유튜브(2025.9.23.)

3.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1) 정조대왕, 기록유산, 활용 축제 및 행사

○ 조선 22대 국왕 정조(1752~1800)

- 뛰어난 학식과 개혁 리더십, 조선 후기 문화부흥, 아버지 사도세자 죽음의 비극적 가족사
- 정치적 개혁: 탕평책 강화, 규장각 설치(1776년), 장용영 설치(1785년)
- 경제 및 사회개혁: 신해통공(1791년, 자유로운 상업활동 촉진), 서얼 등용, 민생안정
- 문화부흥: 수원화성 건설(1974~1976년), 문예진흥(서적 편찬, 출판 인쇄기술 발전)
-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기록유산을 남김
  - 『화성성역의궤』에 정조 18년 1월부터 20년 8월까지 수원화성 축성설계 도명·기계 도구 그림, 사용 재료·수량·경비, 참여자 명단, 절차 문서, 공문, 상전 등 공사 과정이 기록됨(10권 9책)

○ 기록유산 활용 축제 & 행사: 수원화성문화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세계유산 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문화유산 야행,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2) 기록유산 기반 도시브랜딩

(1) 기록유산 기반 고증

○ 『원행을묘정리의궤』에 1795년 2월 9일부터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 총인원 약 6,000 명의 백성과 함께 창덕궁에서 출발해 수원화성에 행차하고 환궁한 8일 동안 행사 일정·행사 절차·문서·그림·반차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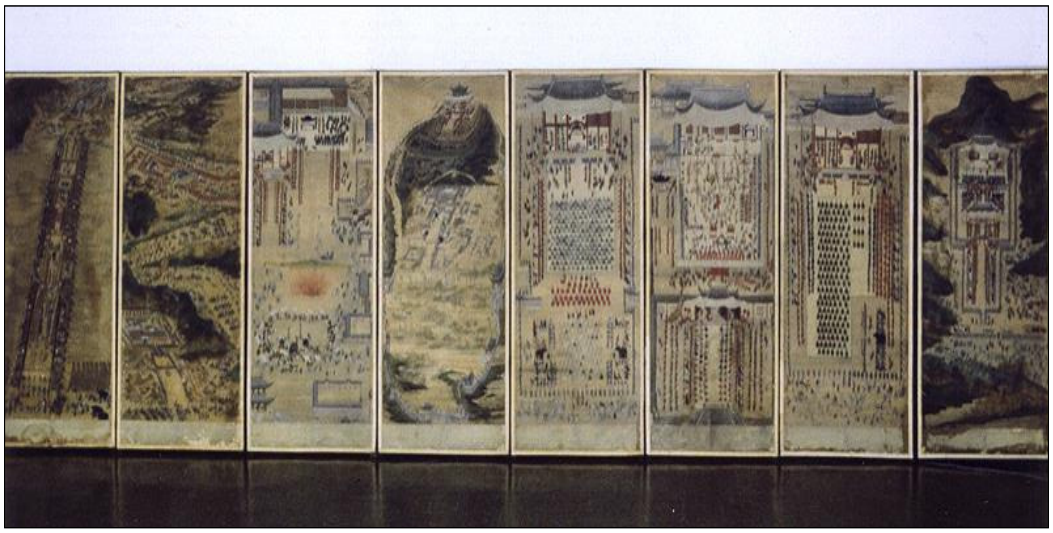
- 단순 행렬이 아닌 왕권·민본·효·도시정책이 집약된 역사문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음
- 오늘날 도시 브랜드화 가능성 높은 기록 기반 문화유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근거

〔표 4-2〕 1795년 정조대왕의 8일간 화성 행차 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8일차
창덕궁 출발, 시흥행궁 어침	사근참 행궁, 화성행궁 도착	향교 참배, 문무과 별시	현륭원 참배, 군사훈련	진찬연	양로연, 화성 시찰	환궁, 창덕궁 도착

○ 『조선열성조 능행반차도』의 핵심 부분을 요약해 구성한 반차도로 1975년 10월 당시 화홍문화제(현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수원시 4개 고등학교 학생 각 60명씩 240명과 말 5필, 제작 의상과 기구 등으로 정조대왕 화성 능행차 연시(演示) 시작

〔그림 4-5〕 화성행행도 병풍



자료(출처): 국가유산포털

(2) 장소마케팅

① 경과

- 1975년 화홍문화제 당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능행차 연시가 처음 시작되며 수원 지역 특성과 전통적 의미의 축제로 공감대 형성
- 2003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화성행궁(현 정조로)까지 확장되며 수원화성문화제의 핵심 콘텐츠로 부상
- 2016년 서울시와 공동 추진하여 서울 → 안양 → 의왕 → 수원 행차 경로를 구성
- 2017년 경기도 및 화성시 참가로 창덕궁 → 융릉의 약 59km 경로 재현하여 수도권 범 지자체 행사이자 국내 대표 역사문화 콘텐츠로 성장

〔그림 4-6〕〈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웹 포스터



자료(출처): 수원특례시 행사 축제 포털

② 성과

○ 역사문화 재현과 교육적 가치

- 정조의 원행 스토리 발굴 및 조선 후기 의식문화 복원을 통한 역사학습 제공
- 최대 규모 역사문화 퍼레이드 축제로 독특한 볼거리 제공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지자체 협업 문화관광축제 성공 모델

- 서울, 경기, 수원, 화성시가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문화 콘텐츠 공동 기획·운영
  -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등 기록유산 발굴 및 고증 기반 재현
  - 축제 콘텐츠화(시민과 관광객 체험으로 확산), 광역 및 기초지자체 연계(브랜드 가치 제고)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
- 2018년 한국관광혁신대상 종합대상 수상 등 관광상품 개발 성공 사례

○ 관 주도 축제로부터 시민이 함께 참여·제작하는 축제로 변모

- 정조대왕, 혜경궁 홍씨 등 주요 배역 시민 공모 및 선정
- 시민 원행단, 외국인 여행단, 지역단체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시도

○ 문화관광 콘텐츠 및 관광자원으로 가치 인정

-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문화관광축제, 경기 대표 축제로 지속 선정(행정적·재정적 지원)
- 외국인 관심도 증가, 외국인 초청 특별관람 프로그램 진행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축제로 격상 노력 중

③ 한계 및 발전 방향

○ 콘텐츠 정체성의 유지 및 강화

- 동일한 경로와 내용이 재현됨에 따른 정형화 및 반복 지적
  - 충실한 고증이 갖는 장점과 상반됨
- 효심·애민 테마 유지하되 스토리텔링 및 현대적 재해석, 시민 참여 퍼레이드 고도화 필요

○ 시민 참여도·관심도의 지속성

- 일부 참여 지자체보다 전국적 관심 유도 및 관심층 저변 확대 필요
- 시민 참가자 확대에 따른 역량 및 안전관리 등 강화 필요

○ 지역 연계성 한계

- 핵심 콘텐츠는 서울, 수원, 화성시 등에 집중되어 체감도가 낮은 중간 경유지가 존재
- 지자체 연합 축제 취지에 따라 경로에 참여한 지자체 핵심 콘텐츠 개발 및 지역주민참여 유도 필요

○ 환경 및 기반 시설 측면 한계

- 도보 행렬 100% 재현 불가(서울 한강 배다리 미디어 대체, 의왕 도로공사 구간 제외 등)
- 참여 지자체, 경찰, 자원봉사자 등 지속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문화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부족

- 세계무형유산 등재 시도 중 → 보존·지원체계 마련
- 정치 및 예산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축제 개최 필요

3) 결론 및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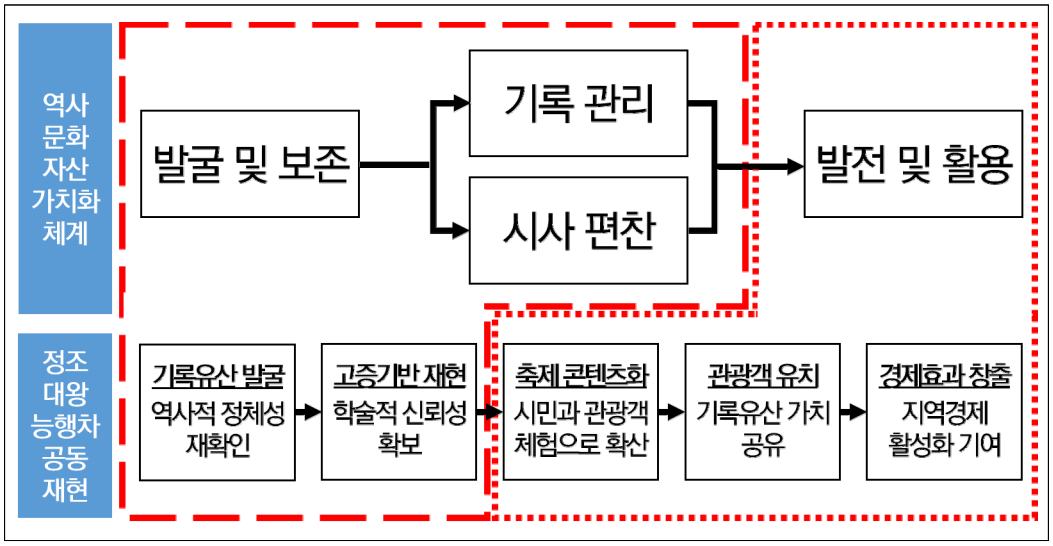
(1)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의 핵심 프로세스는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의 '발굴 및 보존', '기록관리 및 시사 편찬', '발전 및 활용'에 대입할 수 있음

○ 현대에 들어 기록유산 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원형 보존과 고증을 중시하는 관점과 창의적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중시하는 관점 사이에 갈등관리 방안이 요구됨

- 사전협의와 공동 기획모델: 역사·고증학자와 콘텐츠 기획자 사이의 학술대회 형식의 의견 교환, 공동 목표에 대한 초기 합의, 역할 문서화 등
- 협약 기반 민·관 협력 모델
  - 2019년 돈의문 디지털 복원 사례: 서울시·문화재청(이상 관), 건설사·광고기획(이상 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현장 협업과 참여적 보존 모델
  - 안동 병산서원의 서원 스테이: 역사·예절을 고려한 활용방안 자문, 숙박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운영 등

〔그림 4-7〕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에 따른 〈정조대왕 능행차〉 절차



(2)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 단순 행사 재현이 아닌 도시 정체성 강화 프로젝트로 접근할 필요

- 기록과 유산에서 콘텐츠로, 콘텐츠에서 도시브랜드로

○ 시민의 적극적 참여 또는 시민 주도형 모델 개발 필요

○ 정부(지방정부 포함)·시민·학계의 거버넌스 구축

○ 지정 유산 등재 노력(시도 → 국가 → 세계) 및 예산 타당성 확보

5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및 선정

제5장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및 선정

1.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개요

○ 역사 전문가 10인으로부터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을 추천받아 후보군을 구성

- 후보 역사문화자산은 시대-장소-자산 형태로 구성
- 개별 후보 역사문화자산은 유적, 건축물, 음식, 사건, 인물·가문·학파 등 다양한 주제, 시기, 장소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 대표 역사문화자산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을 시행

- 계층화 분석은 역사 전문가와 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7인이 진행
- 본 연구에서는 평가를 위해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1) 역사문화자산의 공간적 범위

○ 인천시의 1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1차 평가를 진행

2) 역사문화자산의 시간적 범위

○ 역사문화자산의 시기를 단일 시대에 고정하여 특정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근대식 우편제도와 같이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전개된 자산도 다수 존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한 시대 구분의 실용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기를 구분하고자 함

-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 고대(삼국시대): 마한소국, 비류온조의 미추홀 등
- 고려시대(936~1392): 고려시대의 인천 호족과 강도시기 등
- 조선시대(1392~1876): 조선왕조 건국 이후 부평도호부 설치, 강화도 군사적 재정비 등
- 개항기(1876~1910): 강화도 조약과 제물포개항 이후 개항장 근대시설 도입
-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하의 행정구역 개편, 철도·항만 등 근대 기반 시설 설치
- 현대(광복 이후): 해방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재편 및 개발

3)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과정 및 주요 결과

① 대표 역사문화자산 후보군 구성

○ 역사 전문가 10인으로부터 서면 자문을 통해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후보 총 56가지를 추천받음

○ 이후 계층화 분석 단계에 참여한 자문위원들로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2가지를 추가로 추천받음

○ 서면 자문을 통한 56가지와 이후 추가된 2가지를 더해 대표 역사문화자산 후보 총 58가지로 후보군을 구성하여 1차 평가를 진행

②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구성

○ 기존 인천연구원 연구 성과 중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도시자원에 대한 계층화 분석을 수행한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자원 활용방안』(김창수·홍승연, 2017)에서 활용된 평가지표에서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을 본 연구의 평가지표로 반영

○ 제2장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현황에서 밝혔듯 본 연구가 '역사성'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역사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며, '장소성'의 경우 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역성'의 세부 고려 사항으로 반영

○ '역사성',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의 총 네 가지를 평가지표로 구성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참고로 하여 지표별 세부 고려 사항을 정리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와 차이가 있음

- 2022년 중앙정부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환 당시 유네스코를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삼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과 분류체계를 참고함
- 이 전환은 본 연구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쳐 밀접한 배경인 점에서(서봉만, 202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본 연구의 평가지표 고려 사항 정리에 참고함

〔표 5-1〕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항목	평가지표	고려 사항
역사성	한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역사문화자산	1. 구체적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가 2.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3. 사료로서 탁월한 가치를 갖는가
지역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인천시의 특성을 드러내는 역사문화자산	1. 인천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2. 인천의 장소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대중성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를 지닌 역사문화자산	1. 다양한 시민계층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인가 2. 인천시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3. 외부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활용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 가능성이 높은 역사문화자산	1.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이 가능한가 – 웹툰, 연극, 뮤지컬, 영화, 게임, 박물관, 둘레길 조성 등 2.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한가

출처: 김창수·홍승연(2017);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③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에 따른 전문가 평가

○ '역사성',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의 총 네 가지 평가 지표별 배점은 각각 최대 10점씩 설정

○ 역사 전문가 4인, 문화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7인의 자문위원이 대표 역사문화자산 후보 총 58가지를 평가 지표별 고려 사항에 따라 서면 평가 진행

④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중요도 가중치 산출

○ 7인의 자문위원이 '역사성',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의 총 네 가지 평가지표 간 쌍대비교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의 가중치를 산정
- 역사 전문가의 평가 항목별 중요도는 역사성(0.41), 지역성(0.27), 활용성(0.18), 대중성(0.14)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 역사 전문가를 제외한 평가 결과로는 대중성(0.36), 역사성(0.24), 지역성(0.23), 활용성(0.17)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가 존재함

○ 계층화 분석의 일관성 비율(C.R)은 0.011로 수용 가능한 기준인 0.1 이하로 평가되어 신뢰성 있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전문가 7인의 종합 계층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종 중요도 가중치는 역사성(0.31), 활용성(0.28), 지역성(0.25), 대중성(0.16) 순으로 나타남

⑤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 1차 평가

○ '③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에 따른 전문가 평가' 점수에 '④ 역사문화자산 평가지표 중요도 가중치 산출' 값을 대입하여 평가를 진행

- 대표 역사문화자산 후보 총 58가지를 '역사성', '지역성', '대중성', '활용성' 네 가지 평가지표와 고려 사항에 따라 10점씩 평가
- 평가 지표별 가중치 역사성(0.31), 활용성(0.28), 지역성(0.25), 대중성(0.16)을 대입

○ 평가의 주요 결과로 〔표 5-2〕와 같이 상위 15개 역사문화자산의 분포가 개항장을 포함한 제물포구, 강화군과 부평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결과는 부록 참조

〔표 5-2〕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결과(상위 15개)

구분	자산명
중구	일본조계지, 성공회·천주교·개신교 성당, 선린동 음식문화(1880년대), 응봉산, 물포구락부, 청국 조계지, 경인철도, (구)인천우체국(중동우체국 1923~2019), 인천항갑문(1918), 애관극장
강화군	해양 관방 시설, 고려왕릉(홍릉, 석릉, 가릉, 곤릉)
부평구	캠프마켓, 미쓰비시 줄사택
기타	고인돌

4) 역사문화자산 1차 평가 시사점

○ 역사 시기별로는 고려시대, 개항기, 일제강점기 자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사·고대나 현대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표 5-2〕의 결과는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의 우선적인 추진 대상이나,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정책상 활용 잠재력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시공간 자산 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통합적 해석 접근이 필요하며,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접근법 기반 재분류를 통해 가치 확장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2.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통합적 해석 및 재분류

1) 통합적 해석

○ 다양한 시공간 자산 간의 연결성을 고려한 통합적 해석 필요에 따라 인천의 주요 시대-장소-자산을 〔표 5-3〕과 같이 간추림

- 중구: 개항기부터 현대에 걸친 건축자산의 분포가 두드러짐
- 강화군: 시대적 범위가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폭넓게 걸쳐 있고 강도시대 역사문화자산의 분포가 두드러짐
- 동구·부평구: 일제강점기와 현대에 걸친 산업유산의 분포가 두드러짐
- 인천 전역: 향교와 도호부 관아, 종교 건축물 등이 분포해 있음

〔표 5-3〕 역사문화자산 통합적 해석

연번	시대	장소	연결 자산(계층분석 순위)
1	선사시대~고대	강화군, 미추홀구	• 인천의 고인돌(6) • 비류의 유적(31)
2	고려	강화군	• 고려궁지(삼별초 주둔지)(20) • 고려대장경(41) • 홍릉, 석릉, 가릉, 곤릉(고려왕릉) (13)
3	조선	강화군	• 해양관방 시설(4)·영종진(40)·화도진 터 및 논현포대(38) • 강화학파(46) • 외규장각 의궤(16) • 고대섭 가옥(18)
4	일제강점기~현대	동구	• 산업유산(순위 평균 21.3) – 동일방직-동양방적(24)·조흥상회(21)·(직물, 철강, 유리 등)산업박물관(19)
5	일제강점기	미추홀구	• 근대 스포츠 유산: 문학야구장(53)
6	고려~조선	인천 전역	• 인천·부평·강화·교동 향교(30) • 인천·부평 도호부 관아(33)
7	개항기~현대		• 성공회 성당·천주교 성당·개신교 교회(3)
8	일제강점기 이후	부평구	• 미츠비시 줄사택(12) • 캠프마켓(1)
9	개항기~현대	중구	• 건축자산(순위 평균 21.4) – 개항기~일제강점기: 인천애집(29)·덕흥호(22)·의선당(17)·애관극장(15)·인천항갑문(14)·(구)인천우체국(중동우체국)(11)·인천중화회관(10)·제물포구락부(9) – 근대: 개항장 이음 1977(45)·개항장 상상플랫폼(42)
10	한국전쟁		• 음식(호텔음식, 경양식, 누들문화)(5)
11	삼국시대	연수구	• 인천상륙작전(26) • 이민사박물관(정책동향)
12	고려시대		• 능허대(27)

2) 접근법 기반 재분류

(1) 재분류

○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표 5-3〕을 〔표 5-4〕로 재분류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이자 연구대상으로 확정함

○ 강화군의 연결 자산들은 고대, 고려, 조선시대까지 여러 시대에 폭넓게 걸쳐 있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강화도라는 장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고려시대 황도로서의 장소마케팅 및 정책현안과의 연계가 필요함

- 문옥현(2024.9., 2025.2.)에 따르면 최근 발굴조사 성과로 강화도성의 흔적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강화도가 고려시대 수도, 즉 당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지로서 의미가 더욱 부각되어 장소마케팅 여지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음
- 2024년 12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중 '전략 2-1. 지역을 살리는 지역 박물관·미술관 확충'에 의한 국립중앙박물관 지역 분관 건립 추진에 따라, 강화군은 이를 유치 성사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함
  - 강화군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포함하였으며, 건립 용역비를 포함한 2026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강화군, 2025.9.2., 2025.12.4.)

○ 중구, 부평구와 동구, 미추홀구의 연결 자산들은 각각 '음식문화 및 건축자산', '산업유산', '근대 스포츠' 관련 특색이 있어, 이 세 가지를 아울러 '한국 근대화의 기점, 인천'으로 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및 정책현안과의 연계가 필요함

- 인천은 부산(1876년), 원산(1880년)에 이어 1883년 당시 세 번째로 이른 시기에 개항하였고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인천광역시, 2015)에 수록된 것과 같이 한국 근대화의 주요 계기들이 풍부해 이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가능함
- 2025년 7월부터 인천시 「제2차 건축자산 진흥계획」이 시행되어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 지원, 활용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중구에는 제물포구락부를 비롯한 다양한 개항기~근대 건축자산이 남아있음. 또한 각종 면 요리 발상지로서 기념을 위한 짜장면박물관·누들플랫폼, 여기에 더해 경양식과 호텔음식 등 음식문화 역시 부각됨

- 인천 부평구와 동구는 과거부터 직물, 철강, 유리 등 산업이 활성화하였고 캠프마켓, 미츠비시 줄사택(이상 부평구), 동일방직, 조흥상회(이상 동구) 등 건축물이 남아있는 점에서 군수 및 산업도시로의 장소마케팅 여지가 있음
  - 미군으로부터 2023년 반환된 캠프마켓의 경우 계층화 분석 결과 가치화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현재 인천시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가 2025년 새롭게 도입한 '인천지역유산' 공모는 역사, 산업, 도시,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 인천 시민의 공통 기억과 감성이 담긴 유·무형 자산을 국가와 시에서 기지정한 대상을 제외하고 시민제안 공모를 접수해 지역유산위원회가 심의·선정함
  -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제조업 도시로 부상한 안산이 산업역사박물관 등을 통해 산업사를 자산화한 사례를 참조
-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의 경우 계층화 분석 결과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도출되었지만, 야구 도입지로서 '구도(球都) 인천'(황희정, 2017) 등 근대 스포츠 관련 스토리텔링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함
  - 웃터골공설운동장(현 제물포고등학교), 사라진 숭의야구장 등에 비해 인천 야구사에서의 중요성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거론되곤 하나, SSG 랜더스 야구단이 홈구장을 2028년 청라돔으로 이전 계획함에 따라 문학경기장의 향후 활용 방안이 화두로 부상함

❍ 인천의 고인돌과 비류의 도읍지 미추홀은 선사시대~고대에 걸쳐 인천 역사 대내외에 중요성이 있고 실효성 있는 스토리텔링과 장소마케팅이 요구됨

- 고인돌은 대표적인 선사시대 거석문화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는 특히 강화군 밀집한 160여 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한국사적 가치와 세계사적 가치, 대중적 인지도를 모두 갖춰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장소마케팅이 요구됨
- 미추홀구의 문학산 일대는 백제 초기 비류가 미추홀 건국의 도읍지로 삼았다는 전승을 통해 인천 역사의 시작으로 지역에 자긍심과 정체성을 부여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술조사 성과와 사료가 부재해 스토리텔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5-4〕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주요 연구대상

연번	시대	장소	테마
1	고려, 조선	강화군	• 고려시대 황도 • 한국사에서 강화도의 중요성
2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동구, 부평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산업유산
3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중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건축자산, 음식문화
4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미추홀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스포츠
5	선사시대, 고대	강화군, 미추홀구(문학산 일대)	• 세계문화유산 • 인천 역사의 시작

(2) 전문가 의견 교차 검토

○ 연구 진행 과정에서 〔표 5-4〕와 관련성이 언급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음

① 고려, 조선시대 / 강화군 / 고려시대 황도, 한국사에서 강화도의 중요성

고려대장경 판당 및 대장도감 복원, 고려궁지, 고려왕릉, 갑곶나루와 승천포를 묶어 고려시대 이야기 테마로 발전시켜야. 고려시대 '황도'로서의 강화도는 '고려'라는 남북 공동의 역사로도 더없이 귀중한 분야. 해양관방 시설, 외규장각 의궤까지 더하면 '국가 보장처'로서 강화도 이야기 완성. 지리적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인천의 옛이야기는 '해양도시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과 연관성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 전통시대 간척사업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포함. 화도진 터 및 논현포대, 영종진까지 포함해 개항 직전까지의 이야기 반영할 수 있음(2025. 5. 9. 서면 자문).

고려궁지 단일유적보다는 현존하고 있는 강화도성과 최근 인근에서 발굴되고 있는 당대 유적들과 연계하여 강화가 13세기 고려 도읍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025. 5. 7. 서면 자문).

②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동구, 부평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산업유산

일제강점기부터 실과 섬유를 생산한 동일방직은 한국의 초기 방직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임.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1960년대에 수출 전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산업유산으로 간주함. 또한 만석동 및 화수부두 일대에는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공장들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특히 철강, 석유정제, 유리제조 등의 산업이 발전한 지역임.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공장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으며 이 공장들은 노후화된 산업시설들이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곳도 다수 있음. 이 공장들의 역사와 노후화되어 사용되지 않는 시설과 장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후략)(2025. 3. 25. 서면 자문).

근현대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조성된 군 산업시설로 부평의 도시형성에 근간이 되었고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며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로 남아있던 공간이 최근 인천시에 매입되어 시민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캠프마켓은 근현대의 역사·문화·정치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었으나 한국으로서는 힘없는 시기이기도 하였기에 개입의 여지가 없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겨우 우리의 관점에서 오롯이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천에 남겨진 유산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하므로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유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평의 도시 조성을 주도했던 산업시설은 현재에도 상당한 범위에 분포해 있고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의 맥락을 꿰어내는 시작이 되기에 완결성, 현재성, 확장성 측면에 있어 주요한 유산으로 보입니다(2025. 5. 11. 서면 자문).

③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중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건축자산, 음식문화

짜장면은 인천에서 현지화된 음식으로 시민들도 공감대가 큼. 중구에서 짜장면박물관을 운영하고 누들로드를 만들 만큼 지역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청국 조계지와 함께 연계하여 활용하면 좋을 듯함(2025. 4. 30. 서면 자문).

건축물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인천은 우편, 전신, 전화 등의 근대 문물 도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인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 규명이 필요함(2025. 5. 2. 서면 자문).

④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미추홀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스포츠

한국 야구의 본산지라는 인천의 특징을 살려 2028년 SSG랜더스 필드의 청라 돔 이전을 계기로 문학야구장에 인천 야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 건립(2025. 3. 23. 서면 자문).

역사성 측면에서는 사라진 도원 야구장이 더 긴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경기장만으로는 역사 및 활용 명분이 빈약함. 추후 청라 돔구장이 들어서면 인천 야구 역사를 정리한 기념관 조성 정도는 고려할 만함(2025. 5. 22. 서면 자문).

⑤ 선사시대, 고대 / 강화군, 미추홀구(문학산 일대) / 세계문화유산, 인천 역사의 시작

인천지역은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고인돌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 특히 강화도는 150여 기의 고인돌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의 대표적 역사문화자산을 향후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더욱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2025. 5. 7. 서면 자문).

비류 전승과 더불어 '미추홀'이라는 지명을 인천의 시작과 연관하여 볼 때 대중성이 있고, 잘 활용한다면 지역의 자긍심을 배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비류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음. 제의 유적이 발굴되긴 했으나 비류와 연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문학산성 또는 비류 관련 전승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후략)(2025. 4. 30. 서면 자문).

6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전략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전략

1.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 현황

1) 고려, 조선시대 / 강화군 / 고려시대 황도, 한국사에서 강화도의 중요성

(1) 기획

○ 강화군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포함한 것은 역사문화자산 관련 강화군 군정 사업의 연간 추진 전략 마련으로(강화군, 2025.9.2.), 가치화 체계의 기획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유치 성공 시 조사, 전시 등 강화군 박물관 기능의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발굴 및 보존', '편찬 및 기록', '활용' 등 여러 가치화 체계 영역과의 연계가 기대됨
- 국회 토론회, 인천문화정책포럼 개최 등 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한 공론화 진행 중

〔그림 6-1〕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방안 토론회〉 국회 토론회 장면



자료(출처): 강화군 유튜브(2025.9.11.)

○ 강화군은 보존 원칙을 최우선 적용하되 지역성과 공공성을 고취해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누리는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 '열린 유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첫 사례로 2025년 10월 고려궁지에서 야외 결혼식이 개최됨(강화군, 2025. 10. 24.)

- '열린 유산 프로젝트'가 추후 다양한 사례를 쌓고 발전한다면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체계의 기획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2) 발굴 및 보존

○ 공공기관으로서 강화군 내 발굴조사는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의 성과가 있음

- 고려시대 황도의 도성, 교통 등 문화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연구함
- 발굴조사와 해당 보고서 집필 이후 성과가 활용 영역으로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행정력과 예산, 토지 등 재산권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임
  - 발굴조사 체험 행사, 시민강좌 등을 운영하나 확장 폭이 크지 않은 상황임

〔그림 6-2〕 2021 강화중성 발굴조사 온라인 설명회 영상 화면



자료(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2021.12.3.)

○ 인천시립박물관 또한 '강화 창후리 문화유적', '건평돈대' 등 발굴조사를 수행해 왔음

- 출토 유물의 고려~조선시대 일반민들의 매장문화, 조선시대 해양관방시설 내부 조사와 불랑기 수습 등

(3) 편찬 및 기록

○ 인천시립박물관은 2009년 학술총서 제4집 『고려시대의 강화』를 집필해 당시까지의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유적의 존재와 내용을 정리하였음

○ 인천시립박물관과 강화고려역사재단(현 인천문화유산센터)는 2016년 공동학술회의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를 개최하여 강도사 학술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음

(4) 발전 및 활용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신문리, 남산리 일원에 2016 ~ 2022년 간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및 완료되었음

- 강화도령 철종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 거닐었던 길을 고증 및 지정하여 테마로 활용

○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유산센터는 2020년 〈강화와 개성, 고려의 왕릉〉 전시를 박물관 한나루 갤러리에서 개최하고, 가상현실로 구현해 인천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에 공개하였음

- 석릉, 홍릉, 곤릉, 가릉, 능내리 석실분(이상 강화), 현릉, 명릉군, 현·정릉(이상 개성) 등을 소개하였음

○ 인천문화유산센터는 2020~2022년 당시까지의 조사·연구성과 및 발굴자료를 바탕으로 고려 강화도성의 현대 지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모습을 디지털로 구현하였음

〔그림 6-3〕 13세기 고려 강화도성(강화경) 궁궐 디지털 재현 영상 화면



자료(출처): 인천문화재단 유튜브(2022.9.8.)

❍ 강화역사박물관은 2025년 말~2026년 초 동안 〈강도江都 39년 1232-1270, 고려 보물〉 기획전시를 개최함

- 선원면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청동 향완, 강화여고 기숙사 부지에서 출토된 금동삼존불상, 인화-강화 도로구간 부지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 등이 주요 유물임

〔표 6-1〕 주요 연구대상 ① 가치화 체계 현황

단계	제목	주최/주관
기획	국립고려박물관 건립 추진	강화군 외
	열린 유산 프로젝트	강화군
발굴/보존	『강화중성 제1~3차 발굴조사보고서』, 『강화도성의 구조와 운영』, 『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등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강화 창후리 문화유적 대룡리유적』, 『건평돈대』 등	인천시립박물관
편찬/기록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강화고려역사재단, 인천시립박물관
	『고려시대의 강화』	인천시립박물관
발전/활용	'13세기 고려 강화도성(강화경) 궁궐 디지털 재현'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강화와 개성, 고려의 왕릉 전시〉 VR 전(2020)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인천시
	〈강도江都 39년 1232-1270, 고려 보물〉전(2025)	강화역사박물관

2)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동구, 부평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산업유산

(1) 기획

❍ 캠프마켓은 인천 역사문화자산 계층화 분석 결과(부록 참조)에서 최상위이고, 활용 계획이 인천시와 부평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가치화 체계의 기획단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주한미군 군수기지로 활용되었던 부평 캠프마켓이 2019년 12월 A·B 구역과 2023년 12월 D 구역이 한국에 반환되어 현재 토양정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완료 후 인천시가 매입하여 자연·문화·역사적 경관을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그림 6-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웹사이트 메인 화면



자료(출처): 캠프마켓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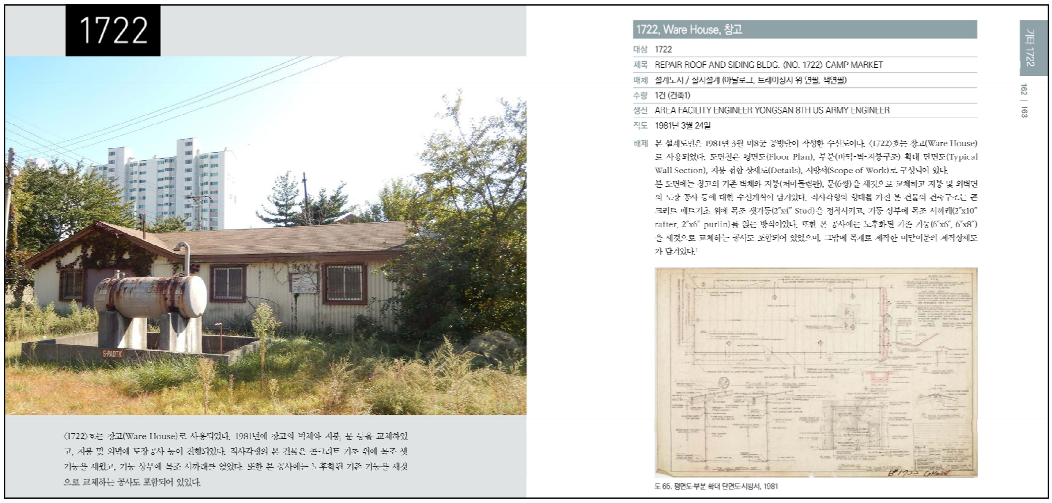
○ 인천연구원 정책연구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 방안』은 동일한 제목으로 2건 간행되어 전년도는 동일방직(최영화, 2021), 후년도는 일진전기(민경선·이선정, 2022)를 중심으로 함

- 동일방직과 일진전기 공장부지가 모두 동구에 소재해 있음

(2) 발굴 및 보존

○ 인천시립박물관은 부평 캠프마켓 반환 절차에 맞춰 2020년 2월~2021년 10월 간 A·B·D 구역의 건축학적 조사와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으로 집필하였음

〔그림 6-5〕 캠프 마켓 반환구역 건축도면 해제집 내지



자료(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21 : 162~163)

(3) 편찬 및 기록

○ 2021년 발간된 부평사는 총 7권으로 그중 『부평의 산업과 사회』 3-2권이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라는 부제로 부평구의 산업도시 성격을 조망함

- 1960~1970년대 인천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부평 제1수출공단 조성 과정(제1장), 부평의 오래된 주요 기업(제2장), 역사를 만들어 간 부평 지역의 노동운동(제3장),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망의 확충(제4장), 공동주택의 변화: 아파트의 등장과 정착, 확산(제5장)으로 구성됨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인천 동구 도시생활사 조사의 일환으로 2021년 『인천의 산업 거점: 만석동』을 발간함

- 인천개항 이후 동구 지역은 조선인 마을로서 공업지역으로의 발전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가운데 특히 만석동을 배경으로 동일방직 관련 시대별 노동운동 양상 등에 주목함

- 조사 개요(Ⅰ장), 만석동의 입지와 현황(Ⅱ장), 만석동의 산업(Ⅲ장), 만석동 사람들의 삶과 공간(Ⅳ장)으로 구성됨

○ 부평역사박물관은 2010년대 중반부터 학술총서를 꾸준히 발행해 오고 있음

- 오늘날 부평은 전근대와 달리 신도시 개념의 공업도시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유산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 학술총서 여러 권에 걸쳐 드러남

-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2015), 『이주민의 마을, 부평 신촌』(2015),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2016),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 청천동』(2016), 『열우물마을 부평 십정동』(2017), 『부평 도심의 재발견, 만월산과 경인가도』(2017),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1』(2019), 『상이용사의 보금자리 부평 화랑농장2』(2019),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 부평 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 이야기』(2020), 『삶의 터전 부평시장 1』(2020), 『삶의 터전 부평시장 2』(2020), 『도쿄제강 사택에 담긴 부평의 시간』(2021), 『영단주택 1권』(2022), 『영단주택 2권』(2022), 『한국 최초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2024) 등임

(4) 발전 및 활용

○ 캠프마켓 C 구역은 부평미군기지 정화조 부지로 부평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임

- 2019년 8월 조기 반환되어 부평구가 매입, 2021년 기록화 조사와 철거를 마침

○ 동구는 2021년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일환으로 화도진 문화원과 협업하여 '노동자의 길 문학이야기'를 조성함

- 동인천 북광장, 양키시장, 미림극장, 인천공작창, 도시산업선교회, 도쿄시바우라전기 인천공장, 조선기계제작소 사택, 조선기계제작소 인천공장,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1978), 만석부두, 한국판유리공장, 『인간 문제』(강경애, 1934), 동일방직 인천공장, 도쿄시바우라전기 사택, 「남생이」(현덕, 1988), 다카스키장유공장, 삼화제분 인천공장, 화수자유시장으로 구성됨

〔그림 6-6〕 노동자의 길 문학이야기 소개 화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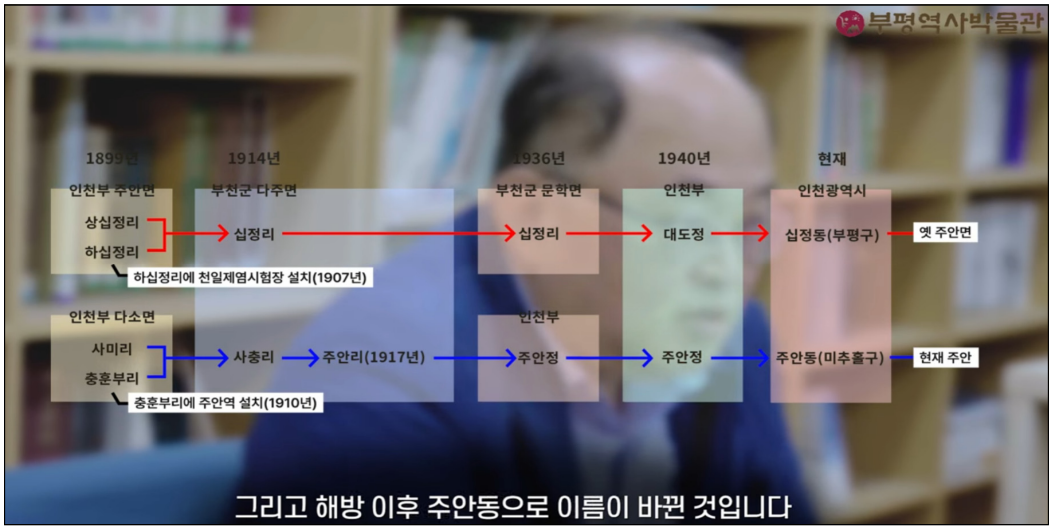


자료(출처): 동구문화관광 웹사이트

○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인천의 산업 거점: 만석동』(2021)을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 동안 기획 전시 〈인천의 산업거점 만석동〉을 개최함

○ 부평역사박물관은 소설가 이규원의 자전적 작품 「해방공장」(1948)을 바탕으로 2018년 특별기획전시 〈해방공장, 1945년 군수기지 부평의 기억〉을 개최, 또한 동명의 자체 학술총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2025)를 제작함

〔그림 6-7〕 부평천일제염시험장 다큐멘터리 화면



자료(출처): 부평역사박물관 TV 유튜브(2025)

❍ 제2차 법정 문화도시(2021~2025)로 지정된 부평구는 내발성, 시민성, 장소성, 창조성, 연대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가운데,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2022년 『만화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를 발간함

〔표 6-2〕 주요 연구대상 ② 가치화 체계 현황

단계	제목	주최/주관
기획	캠프마켓 반환	인천시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동일방직을 중심으로』(2021)	인천연구원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일진전기를 중심으로』(2022)	
발굴/보존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인천시립박물관
편찬/기록	『부평사 제3-2권: 부평의 산업과 사회_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부평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산업 거점: 만석동』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헬로우 애스컴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 -부평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 이야기』, 『도쿄제강 사택에 담긴 부평의 시간』, 『영단주택(1~2권)』,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 등	부평역사박물관
발전/활용	『만화 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문화도시 부평
	〈인천의 산업거점 만석동〉 기획특별전(2021)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노동자의 길 문학이야기	동구, 화도진문화원
	〈해방공장, 1945년 군수기지 부평의 기억〉 특별전(2018)	부평역사박물관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시험장〉 다큐멘터리(2025)	

3)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중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건축자산, 음식문화

(1) 기획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2019년 제1차에 이어 지난 2025년 6월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수립됨

- 1차년도 건축자산 총 492개 선정 당시 중구 소재는 총 195개로 약 39.6%에 달하였음
- 2차년도 신규 건축자산 총 50개 선정 결과 중구 소재는 총 20개로 40%에 달함
- 2차년도 건축자산은 1차년도 492개와 2차년도 신규 50개를 더한 뒤, 멸실 28개와 문화유산 등록 9개를 제외한 505개로 확정함

〔표 6-3〕 2019, 2024 인천시 건축자산 자치구별 선정 수

건축자산 수(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계
2019	195	59	53	49	24	26	16	23	33	14	492
2024	20	5	5	2	2	2	-	7	7	-	50

출처: 인천시(2019 : 142; 2025 : 78~79) 바탕으로 재구성

- 2차년도 계획의 비전으로 '시민 공감과 민관협력으로 활성화하는 일상에 친숙한 인천시 건축자산'을 제시하여 2개 목표와 4개 전략 및 각각의 세부사업을 제시함

〔그림 6-8〕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출처): 인천시(2025: 132)

(2) 발굴 및 보존

❍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2012)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법정동별 도시유적을 개항기~1960년대 시대별, 7가지 종별로 조사하였음

- 시대는 개항기(1883~1909년), 일제강점기(1910~1944년), 광복 이후(1945~1960), 미상으로 구분함
- 7가지 종은 한식 주거, 기타 주거, 사무·상가, 공장·창고, 종교, 교육, 기타로 구분함
- 총 530개 도시유적 중 중구가 304개로 약 57%에 달함

〔표 6-4〕 시대별 도시유적 현황

(조사 기간 : 2012년 4~8월)

도시유적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합계
개항기	49	5	0	0	0	0	1	0	5	60
일제강점기	137	37	8	2	2	3	0	2	3	194
광복 이후	81	70	9	3	5	0	2	2	2	174
미상	37	30	5	23	0	3	4	0	0	103
계	304	142	22	28	7	6	7	4	10	530

출처: 인천시립박물관(2012), p.7.

〔표 6-5〕 종별 도시유적 현황

(조사 기간 : 2012년 4~8월)

도시유적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합계
한식 주거	16	65	3	3	1	1	7	2	1	99
기타 주거	117	30	8	11	2	0	0	0	1	169
사무·상가	95	21	3	10	0	0	0	0	1	130
공장·창고	28	11	2	3	0	0	0	0	0	44
종교	15	7	2	0	1	1	1	1	6	33
교육	7	5	1	0	0	0	1	1	1	15
기타	26	3	3	1	3	4	0	0	0	40
계	304	142	22	28	7	6	4	4	10	530

출처: 인천시립박물관(2012), p.7.

❍ 인천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중화루의 얼굴 – 간판』(2021)은 1915년경 개업해 1978년 철거된 대불호텔 건물에 위치하였던 중화요리점 중화루의 간판 8점을 소개해 음식문화, 건축자산 두 가지 테마에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9〕 '중화루(中華樓)'명 간판(1922)



자료(출처): 인천시(2025 : 132)

(3) 편찬 및 기록

○ 인천중구문화원의 발간 도서인 향토지 '인천 중구 도시마을 이야기' 시리즈 중 『신흥동·연안동』(2016), 『신포동』(2018), 『송월동·북성동』(2019) 편이 중구의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을 소개함

○ 한국근대문학관에서 발행한 총서 중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2019),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2018), 『화교 문화를 읽는 눈 - 짜장면』(2012) 등이 인천의 건축자산 및 음식문화를 소개함

(4) 발전 및 활용

○ 인천시 중구는 2012년부터 대표 맛집을 발굴하고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등 외식산업 활성화와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개최 중이며 우수업소를 선정해 공개하여 2025년 기준 총 38곳임

〔표 6-6〕 인천시 중구 음식경연대회 우수업소

기준일자	목록
2025.7.25.	꾸지뽕 삼계탕, 맛고을, 풍미, 달큰철판두루치기, 월아천, 향원, 2층 다복집, 누나홀닭 동인천점, 장수삼계탕, 장터활어회집, 인정나라삼치, 참한에프앤비, 단골식당, 해저회집, 미미진, 마더파더, 경기호, 전주맛집, 한옹가, 체나콜로, 달쭈꾸미, 황산(운서점), 대풍꽃게맛집, 원조벤댕이, 본가낙지와족발, 정원한우소머리국밥, 금촌집, 월미도회집, 신포동집, 신항면, 산행, 마시안제면소 칼국수 영종도 본점, 명태혁명, 금바다식당, 영종미담, 해상궁, 싱싱막회, 속초항(총 3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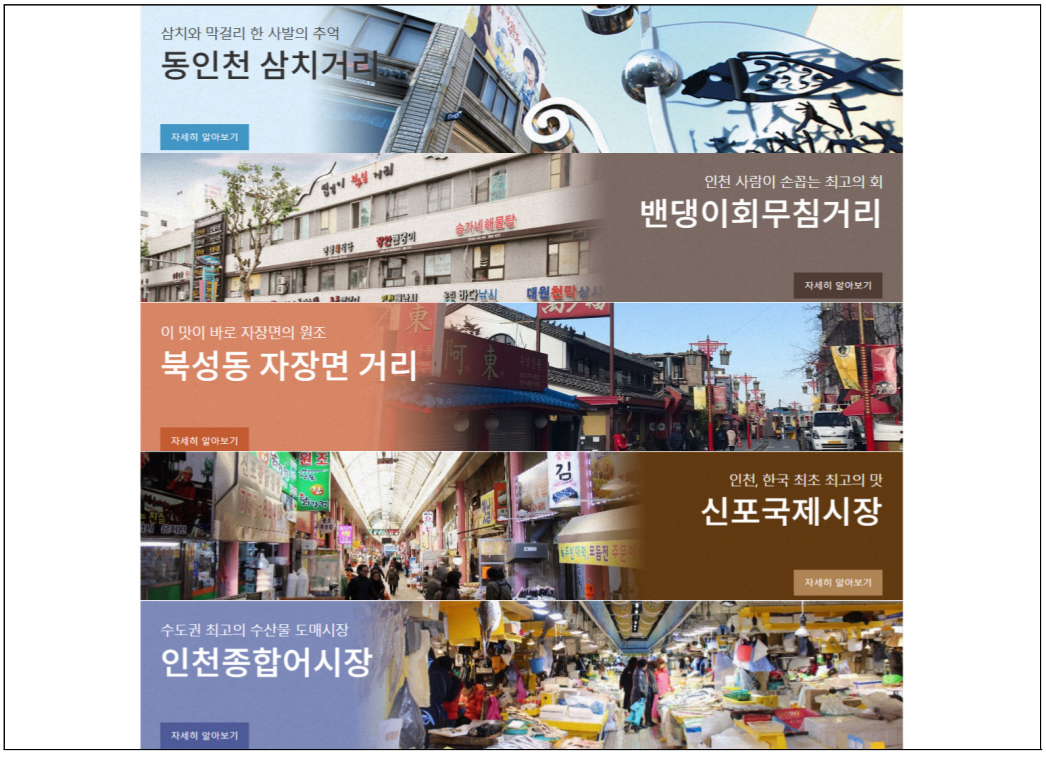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인천중구문화재단에서 짜장면박물관과 누들플랫폼을 운영해 중구의 음식문화, 건축자산을 소개하고 있음

- 짜장면박물관은 국가등록유산 제246호 '선린동 공화춘' 건물을 활용한 테마박물관으로 개항기 무역상들의 숙식처, 일제강점기~1980년대 대형 연회장을 갖춘 중화요리점 공화춘 폐업 후 방치된 건물을 중구에서 매입해 보수하고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조성, 총 6개의 상설전시관과 1개의 기획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음
- 누들플랫폼은 인천 누들(짜장면·쫄면·바지락칼국수·냉면)을 테마로 인천 누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전시·교육·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1층(누들광장, 누들 소극장, 제1전시실, 수유실), 2층(제2전시실, 컵누들 체험장, 제2전시실), 3층(희망 조리실, 오픈 요리실, 강의실, 사무실)이 구성됨

○ 인천시 중구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테마여행 가이드를 제공하는 가운데, '맛있는 식도락 여행' 페이지에서 동인천삼치거리, 밴댕이회무침거리, 북성동 자장면 거리,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을 선정해 공개함

〔그림 6-10〕 중구 테마여행 '맛있는 식도락 여행' 화면



자료(출처): 인천 중구 문화관광 웹사이트

○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의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원도심 문화재생 발판을 마련하고자 근대건축자산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시민들에게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 재생사업 '근대건축자산 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표 6-7〕 인천도시공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3호 개요

기준일자	1호	2호	3호
매입년도	2020년	2023년	2024년
주소	신포로39번길 66	선린동 25-2 (옛 해안성당 교육관)	송학동 1가 23 주택
역사적 가치	근대 개항장 유산인 조계지와 자유공원을 잇는 지역역사 중심지이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산책공원으로서 근대 역사의 중심지	1910년대 서양잡화 판매점, 1980년대 인삼판매영업소와 주거공간, 1995년 이후에는 해안성당 교육관으로 사용	근대 개항장 유산인 조계지와 자유공원을 잇는 지역역사 중심지이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산책공원으로서 근대 역사의 중심지
건축적 가치	현대건축의 1세대로 꼽히는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 철학이 담긴 단독주택	서양근대건축양식의 석조구조(외관) 형태로 개항기~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중국주택	1970년대 공일곤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 중정을 도입하여 모든 실이 연결된 구조가 특징
문화적 활용	개항장 이음1977 조성	백년이음 조성	수립 중

출처: 인천시 보도자료

〔표 6-8〕 주요 연구대상 ③ 가치화 체계 현황

단계	제목	주최/주관
기획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인천시
발굴/보존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중화루의 얼굴 - 간판』	
편찬/기록	『인천 중구 도시마을 이야기 1 - 신흥동·연안동』 『인천 중구 도시마을 이야기 3 - 신포동』 『인천 중구 도시마을 이야기 4 - 송월동·북성동(1)』	인천중구문화원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 - 근대 유산과 함께하는 도시 탐사』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 『화교 문화를 읽는 눈 - 짜장면』	한국근대문학관
발전/활용	중구 음식문화축제	인천시 중구
	동인천삼치거리 밴댕이회무침거리 북성동 자장면 거리 신포국제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인천시 중구 문화관광 중구투어
	짜장면박물관 누들플랫폼	인천중구문화재단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 - 이음1977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 - 덕흥호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3호 - 송학동 1가 23주택	인천도시공사

4)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미추홀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스포츠

- ❍ 인천 대표 역사문화자산 평가 원자료 목록(부록) 중 스포츠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자산은 문학야구장이 유일한데 2002년에 지어져 비교적 역사가 짧음
- ❍ 체육시설로 보면 인천에서 한국 근대 스포츠의 기점 또는 지역 체육사의 중요 계기로 기록된 것들은 주로 다음과 같음(인천광역시사 제4호; 인천학연구총서 24호)
  - 인천 최초의 종합운동장이었던 웃터골 공설운동장(1920~1935, 중구)
  - 월미도 공설운동장(1924~1945, 월미도)
  - 도산정(도원동) 인천공설운동장(이후 숭의종합경기장, 1936~2008, 중구)
  -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건립한 선인체육관(1973~2012, 남구)
  - 인천실내체육관(이후 인천시립도원체육관, 1978, 중구)
  - 무덕정과 인천무도관(이상 중구)
- ❍ 이 중 미추홀구(남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선인체육관이지만 이미 철거되었고, 이밖에 「인천시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2019)도 인천시 차원의 계획으로 자치구별 계획이 세밀하지는 않음

〔그림 6-11〕 선인체육관(1973)



선인체육관(1973)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2014). 인천 체육의 발자취, p.133.

○ 인천은 축구, 야구, 테니스 등 스포츠 도입지로 알려져 있고 한용단, 전인천군, 인천고·동산고를 주축으로 한 야구 돌풍을 바탕으로 '구도(球都)'라 불림(황희정, 2017)

- 스포츠는 한국 근대화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이며, 구도(球都)의 가치는 지역의 역사문화이자 인천의 정체성으로 실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님

○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SK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모기업인 SK텔레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환으로 시장 내부 한켠에 야구박물관을 조성하여(경인일보, 2021.5.4.), 민간 영역에서 수행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활용 사례로 볼 수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구 청라동 6-14 일대 건립 예정된 스타필드 청라에 21,000석 규모 돔 구장 연계 건립을 2024년 승인하여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 SSG 랜더스가 2028년부터 이를 홈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에 따라 현재 홈 경기장인 문학경기장의 활용 방안이 화두로 부상함(동아일보, 2024.11.5.)

○ 문학경기장의 향후 활용 방안에 2002년 이후 프로야구 홈 경기장으로 기능해 온 상징성 및 인천 내 근대 스포츠 정체성의 중요성을 반영해 미추홀구에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로서 스포츠 테마 기획을 구현할 수 있음

〔표 6-9〕 주요 연구대상 ④ 가치화 체계 현황

단계	제목	주최/주관
기획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	인천시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구도(球都) 인천』(2017)	인천연구원
편찬/기록	『인천 체육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발전/활용	신기시장 야구박물관	신기시장·SK 텔레콤

5) 선사시대, 고대 / 강화군, 미추홀구(문학산 일대) / 세계문화유산, 인천 역사의 시작

(1) 기획

○ 인천시와 국방부는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그동안 국방부가 점유해 온 문학산 정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19,800㎡를 개방하였고, 2020년 10월 17일부터 개방 시간이 오전 8시~오후 7시에서 오전 5시~오후 10시로 6시간 확장함(오마이뉴스, 2015.10.16.; 경향신문, 2020.10.11.)

○ 인천시는 2020년 시 지정 문화재 기념물 1호인 문학산성의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일괄적 복원보다는 구간별 성곽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성벽 유지관리, 잔존성벽 보존, 복원 정비, 형상화, 가상 복원 등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비용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적정성 검토를 통해 문학산성의 지정 구역 확대 및 보존 구역 축소함(한겨레, 2020.12.21.; 경기신문, 2024.10.16.; 기호일보, 2025.8.12.)

(2) 발굴 및 보존

○ 인천시립박물관은 2017년 집필한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학산성에서 수습된 유물의 시대적 배경이 주로 삼국시대 후기에서 조선시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면서도 주로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기능과 주요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3) 편찬 및 기록

○ 미추홀 학산문화원의 학산문화총서 제2권 『문학산 속으로 걸어가기』(2005) 중 김상열의 「역사 속의 문학산」이 문학산의 유래, 인천의 시작으로서 미추홀, 인천의 관문으로서 문학산, 고려시대의 문학산, 조선시대의 문학산, 문학산의 시련과 희망 등을 다룸

(4) 발전 및 활용

○ 인천시는 문학산 정상부에 문학산 역사관을 운영하여 ▲문학산 역사 탐방 프로그램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문학산 관련 자료 수집 및 전시·교육 프로그램 ▲문학산 역사관 해설사 활동 지원 ▲문학산 역사관 야외 전시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함

〔표 6-10〕 주요 연구대상 ⑤ 가치화 체계 현황

단계	제목	주최/주관
기획	문학산성 종합 정비계획	인천시
발굴/보존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인천시립박물관
편찬/기록	『문학산 속으로 걸어가기』	남구학산문화원
발전/활용	문학산 역사관	인천시
	문학산 개방	강화군

2.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추진 방향

가치화 전략 체계 마련이 중요

○ 지자체 차원에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자산의 활용을 넘어서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가치화 사업의 틀과 추진 체계의 마련이 중요

○ 강화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강화도 왕의 길'이라는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장소성을 기반으로 가치화 사업의 틀을 제안한 모범 사례

- 강화산성 남문안길에서 중앙시장, 고려궁지까지 이어지는 500미터 구간을 왕의 길로 규정하고 고려의 천도와 강화도령 철종의 일화 등 역사적 스토리를 엮어서 하나의 테마로 제안

○ 역사문화자산의 창의적인 활용을 중요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가치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장소 혹은 역사적 사실과 연계하여 가치화 사업의 틀을 구상하는 것이 시민들의 호응을 효과적으로 유도 가능

가치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4가지 구성요소 간 균형이 중요

○ 가치화 사업은 기획, 발굴 및 보존, 기록관리 및 시사 편찬, 발전 및 활용의 4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데, 각 요소의 충실한 수행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

○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는 기획 과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적인 가치화 사업의 시작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가능한 콘텐츠로 역사문화자산을 재창조하는 발전 및 활용 단계는 가치화의 끝단에 해당

○ 가치화 사업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기획, 발전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재료가 되는 역사문화자산의 발굴과 개별 자산에 얽힌 스토리의 기록과 편찬이 필요

가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유연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구축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은 기관별로 고유한 역할과 강점이 있으며, 각 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구조가 효과적임

○ 현재 가치화를 구성하는 요소별로 전문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발굴 및 보존: 인천시립박물관이 전시와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
- 기록관리 및 시사 편찬: 역사편찬위원회와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 담당
- 발전 및 활용: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천관광공사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발휘
- 기획 및 정책연구: 인천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가 주도하며, 인천연구원이 정책 기획과 연구로 보완
  - 인천연구원은 문화, 관광,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정책사업 기획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서 문화유산과의 파트너 기관으로 적절한 조직으로 평가
  - 향후 인천시 시사편찬원이 설립되면 가치화 사업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다만 기관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필요함

- 연말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올해 수행한 연구 주제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부족한 연구 분야나 협업 가능 지점을 파악하는 교류 기회 마련
- 거대한 제도나 조직 신설보다는 실무적 차원의 정기적 소통과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이 현실적임

가치화 전략의 대상은 시민의 체험 가치

○ 가치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사문화자산을 다양한 콘텐츠로 재창조함으로써, 시민이 자산이 담고 있는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 기존 역사문화자산 관련 정책은 유산의 보존과 유지에 초점을 두면서, 시민을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대상화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치화 사업은 수요자로서 시민의 체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시민이 역사문화자산을 스토리와 영상 그리고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소비하고 이를 통해 가치화의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

○ 시민의 체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과정에 새로운 행위자의 유입이 필요. 최근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창의적으로 선도하는 로컬크리에이터와 문화기획자 등이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역사문화자산의 콘텐츠화를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역량을 가치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

3.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사례 : 강도시기 강화[63)]

1) 기획: 역사성과 장소성에 기초한 테마 선정

○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가치

- 고려 강도시기(1232~1270, 39년간)는 몽골 침입에 맞서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한 시기로, 대외 항쟁과 문화적 저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기
- 이 시기 강화도에는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3중 방어체계(내성·중성·외성)와 돈대를 구축하였는데, 산성과 돈대는 고려의 도성 계획과 축성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산

○ 강화중성의 장소적 특성 : 자산으로서의 고유한 가치, 활용도

- 강화중성은 1250년(고종 37) 축조된 둘레 약 9km의 토성으로, 고려궁지와 주변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성곽
- 내성과 외성이 조선시대에 수차례 개축된 것과 달리 원형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높은 학술적·역사적 가치 보유
- 발굴 조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으며, 일부 구간은 도로 및 산책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활용에 용이

63)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가치화 대상 장소 중 강화군에 관한 가치화 전략 추진 방안을 예시로 소개하고, 나머지 4개 사례에 관한 가치화 추진 방안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김

○ 가치화 테마 설정 : 다양한 자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하나의 테마로 연결

- 주제: 왕도 강화도를 배우다
- 핵심 스토리: 몽골 침입이라는 국난 상황에서 고려가 강화도를 요새화하며 보여준 축성 기술과 방어 전략, 39년간의 항전 역사
- 공간적 범위: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대문고개 치성(지혜의 숲 도서관 인근)을 우선 거점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확장
- 전략적 목표: 강화중성을 강도시기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관련 자산을 포괄하는 가치화 선도 모델을 전략적으로 기획
- 사업 추진의 핵심 선결 과제인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또는 사용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강화군과 인천시의 역할 분담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함

2) 발굴 및 보존

○ 발굴 대상 지역 우선순위 설정

- 강화중성의 문화유산은 대부분 지표에 남아 있으며, 발굴 완료된 지역 중 우선순위 대상 구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단계적 발굴 사업 기획
- 현재 강화중성은 발굴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복토한 상태로 보존 중
- 1단계 우선 사업대상지: 대문고개 치성은 발굴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이미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성과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
- 치성의 구조적 특징과 고려 축성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교육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

○ 핵심 선결 과제

-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또는 사용 협의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강화군-인천시 간 역할 분담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발굴 후 복토가 아닌 상시 공개를 전제로 한 보존 관리 계획 수립

○ 보존 전략

- 발굴 완료 구역은 복토 대신 '열린 발굴 현장' 모델 적용하여 상시 공개

- 토성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시설(캐노피, 데크 등) 설치로 훼손 방지와 관람 편의성 동시 확보

3) 기록·편찬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국가유산청의 지리정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되, 인천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중간자 역할 수행 필요
- 강화중성 전체 구간에 대한 GIS 기반 디지털 지도 구축하고, 발굴 진행 상황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시민과 소통

❍ 시각화 콘텐츠 제작

- 강화중성 치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시각 자료 개발
- 고려 수도 개경의 나성(羅城) 치성과의 구조 비교 분석 인포그래픽
- 독특한 토성(土城) 축조 방식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3D 모델링
- 강도시기 3중 방어 체계(내성·중성·외성)의 전체 구조 시각화
- AR/VR 기술을 활용한 강화중성 복원 콘텐츠 개발로 시민 체험 가치 제고

❍ 학술 연구의 장기적 추진

- 강화중성은 이미 상당 부분 발굴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복토한 상태로 보존 중인데, 장소 기반의 발굴은 단시간에 학술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
- 따라서 학술 연구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복토 구간의 재개방 및 사업화 단계에 맞춰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

4) 발전 및 활용

❍ 기본 방향

- 사유지 문제 해결 및 콘텐츠 구축을 바탕으로, 단순 탐방로 조성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구체적인 활용 프로그램 추진
- 시민을 수동적 관람자가 아닌 역사문화자산 가치화의 능동적 주체로 설정

❍ 대문고개 치성 역사생태 탐방로 조성

- 기존 데크 산책로와 연결하여 치성 발굴 지역을 조망하고, 지혜의 숲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순환형 코스를 설계함
- 탐방로 곳곳에 강도시기 역사 스토리와 축성 기술을 설명하는 해설판 및 체험형 전시물 설치

❍ 열린 발굴 현장' 모델 도입

- 경주 월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문고개 치성 발굴 현장 일부를 상시 개방, 발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직접 활용

❍ 발굴 체험 교육 프로그램

- 학생 및 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모의 발굴 체험, 유물 복원 체험 운영
- 발굴 과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체험을 통한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 학습 프로그램 개발
  - 현장 투어 프로그램
  - 발굴 참여 연구원과 전문 해설사가 발굴 과정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정기 현장 투어 운영
  - 주말 및 공휴일 정기 투어, 사전 예약제 특별 투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협력 모델 구축

- 프로그램의 매력도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적극 협력하여,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운영
- 지역 청년 기획자, 디자이너, 유튜버 등과 협력하여 발굴 현장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투어 코스, 체험 키트, 온라인 콘텐츠 등 공동 개발 및 운영
- SNS 친화적 포토존, 인스타그램 챌린지 등 젊은 세대의 참여 유도

❍ 강화중성을 주제로 한 웹툰,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강화도 특산물 활용 '고고학자 도시락', '발굴 현장 카페'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수익 모델 창출

- 강화읍 중앙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강화중성 관련 기념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지역 작가 및 공방 지원

○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계획과 연계

-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계획에 따라 강화중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필요

7

결론 및 정책 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필요

○ '가치화'란 개별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과정으로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의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

○ 인천 역사 연구 현황과의 접점,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의 모범 사례 검토, 인천시 대표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의 평가 및 선정 필요

가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 분야 연구 성과 검토 중요

○ 역사학계가 인천 역사 연구의 주제를 다양화해야 하며, 역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됨

○ 인천시 도시계획상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역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실경과 장소 기반 가치화 사업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진주의 〈의기 논개〉는 대중성을 갖추었으나 고증이 미비한 역사적 소재를 히스토리텔링 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결합한 장소 특화 콘텐츠로 제작한 사례임

○ 수원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은 기록 기반 문화유산에 근거하는 가운데 지자체 협업 기반 장소마케팅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임

장소 기반 가치화 사업 대상 5개 역사문화자산 선정

○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의 대표 후보군(총 58개)과 평가지표(지역성, 대중성, 활용성, 역사성) 구성, 전문가 평가(7인이 총 58개에 대해 4가지 지표 각각 10점씩) 및 중요도 가중치 산출(역사성 0.31, 활용성 0.28, 지역성 0.25, 대중성 0.16), 평가 점수와 가중치 값을 통한 1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를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해석으로 시대·장소·테마로 구성된 주요 연구 대상 5건 선정

- 고려, 조선시대 / 강화군 / 고려시대 왕도, 한국사에서 강화도의 중요성
-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동구, 부평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산업유산
-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중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건축자산, 음식문화
-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 / 미추홀구 / 한국 근대화의 기점: 스포츠
- 선사시대, 고대 / 강화군, 미추홀구(문학산 일대) / 세계문화유산, 인천 역사의 시작

가치화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 강화군, 동구와 부평구, 중구의 경우 시대·장소·테마에 걸맞는 기획·발굴 및 보존·편찬과 기록·발전 및 활용 체계의 성과가 풍부하게 축적됐지만, 미추홀구와 문학산의 경우 현황이 다소 미비해 가치화 기획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가치화 전략 방향:

- 가치화 전략 체계 마련이 중요
- 추진 과정에서 4가지 구성요소 간 균형이 중요
- 기관별 특화 역할과 협력 체계 구축
- 가치화 전략의 대상은 시민의 체험 가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예시: 강화중성 '왕도 강화도를 배우다'

- 선정된 5개 테마 중 강화군의 '고려시대 왕도' 테마를 대표 사례로 구체화함. 고려 강도시기(1232~1270) 항전 역사를 담은 강화중성을 중심으로 '왕도 강화도를 배우다'라는 가치화 테마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

2. 정책 제언

1) 기관 간 성과공유회 정례화

- ❍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관련 기관들이 연구 주제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협업 가능 지점을 파악하는 사업계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함
-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여 매년 수행한 연구과제와 사업을 발표하고 공유함
  - 기관 간 중복 사업과 투자를 방지하고, 가치화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도출함
- ❍ 성과공유회를 통해 각 기관의 고유한 역할과 강점을 존중하면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인천관광공사는 관광 프로그램 운영, 인천연구원은 정책 기획과 연구 등 기관별 특화 역할을 기반으로 협력 구조 설계
- ❍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을 강조하는 가치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제작 분야의 민간 역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도 중요
  - 공공 영역의 전문 기관들과 로컬크리에이터와 문화기획가 등 민간 전문가 간의 협업의 촉진이 필요

2)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시범 사업 추진

- ❍ 거대한 제도나 조직 신설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함
  -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제물포 일대 건축자산을 하나의 주제로 연계하는 가칭 ‘인문 로드’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치화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치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경험치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 사업 추진 시 큰 목표를 갖되 사업 단위는 짧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함

- 단기 목표와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여 참여자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실무자가 2개월에 1회 정도 모여서 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함
- 시범 사업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강화, 부평 등 다른 지역으로 사업 확산을 위한 틀을 구축함

3) 민간 공모를 통한 창의적 활용 방안 발굴

○ 역사문화자산 활용 아이디어를 기획 주제 또는 자유 주제로 공모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청년 기획자 등 지역의 새로운 행위자들이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 강화중성 탐방로, 돈대 마라톤·자전거 코스, 역사 테마 캠핑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공모 과제를 통해 발굴함

○ 선정된 공모 과제를 2~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평가·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활용 모델을 구체화

-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제와 연계를 통해 수익 모델 창출을 유도

4) 인천역사문화자산 아카이브 통합 접근 체계 구축

○ 가치화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활동 내용과 성과물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성공적인 가치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

○ 또한 가치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 영역의 조직과 참여자에게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에 관한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에 필요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은 중요함

○ 인천문화재단의 '인천기록담길'과 같은 모델형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능은 공유하되 콘텐츠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협력 방식을 적용함

- 아카이브 담당자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상호 정보 공유와 기술 지원을 제공함

- 담당자 교체에 따른 업무 단절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예: 분기별 컬렉션 10점 구축)를 설정하고 달성함으로써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함

5) 테마와 스토리 중심의 통합적 접근

❍ 개별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아닌,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테마와 스토리로 연결하여 시민이 쉽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제물포 일대의 경우, 개별 건물(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이음1977 등)의 활용을 넘어 이들을 하나의 인문 로드로 엮는 시도가 인천문화재단 주도로 시도되고 있음

❍ 강화는 고려 강도시기 항몽 유산(강화중성, 고려궁지, 돈대 등)을, 부평은 근현대 산업유산(캠프마켓,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표 테마를 구축하고, 테마별로 다양한 자산의 발굴, 기록/편집, 그리고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인천시의 가치화 노력은 제물로 르네상스와 같이 개항장과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장소 기반 가치화 사업을 통해 강화, 부평 등 장소별 특성에 맞는 가치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주제어 ▶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가치화 전략

참고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

강옥엽·강덕우. (2018). 문답으로 엮은 인천 역사. 인천: 미소.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 신편 강화사: 上·中·下. 강화문화원.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15). 신편 강화사 증보: 上·中·下. 강화문화원.

강화군·강화문화원. (2009). 조사보고: 강화 고려궁지. 강화문화원.

강화역사박물관. (2021). 강화역사박물관 기획전시 도록: 고려 황도 강화.

강화역사박물관. (2025). 강화역사박물관 2024 기획전 도록: 시간을 잇는 유산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 유물.

강화역사박물관. (2025). 강화역사박물관 상설전시 도록.

강화전쟁박물관. (2025). 강화전쟁박물관 2024 기획전 도록: 강화에서 피어난 독립의 불꽃.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72~2025). 기전문화연구: 제1~46호.

계양문화원. (2018). 계양산이야기.

계양문화원. (2019~2025). 계양마을이야기: 제1~3권.

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 (2001). 계양사. 계양구.

계양사편찬위원회. (2011).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 계양문화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특별전 도록: 강도 고려왕릉전.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인천직할시. (1990). 조사보고: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1). 공동기획특별전 도록: 수중유물 – 고려 바다의 흔적.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14). 조사보고: 인천 옹진군 영흥도선 수중발굴조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나라. (2023). 인천문화유산센터 역사의 길 총서: 제11권. 근대를 짜다: 강화 직물산업의 기원과 역사. 서울: 이데아.

김락기. (2019). 인천문화유산센터 역사의 길 총서: 제3권.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인천의 투사들, 항일을 기치로 식민의 거리를 누비다. 서울: 글누림.

김창수(2005). 인천공부. 인천: 다인아트.

김창수·홍승연. (2017).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자원의 활용 방안. 인천연구원.

남동구20년사편찬위원회. (2010). 남동구20년사: 상·하권. 남동문화원.

동구사편찬위원회(편). (2019). 인천광역시 동구사: 上·中·下. 화도진문화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강화전사유적 보수정화지.

미추홀구사편찬위원회. (2022). 미추홀구사: 제1~5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민경선. (2021). 인천 시사편찬 기구 설립 방향과 기능 연구. 인천연구원.

민경선. (2022).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방안: 일진전기를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박계호. (2022). 히스토리텔링 차이나. 서울: 파람북.

부평문화원. (2001). 부평인물사: 부평을 빛낸 인물.

부평문화원. (2021). 부평과 "굴포천" 이야기.

부평사편찬위원회. (2021). 부평사: 제1~7권.

부평역사박물관. (2024).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제11권.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 부평 천일제염 시험장.

새얼문화재단. (2001).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인천: 진원 출판 인쇄.

서구사편찬위원회. (2004).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

서봉만. (2024).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인천연구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17~2023). 인천 동구 도시생활사 조사(2017~2022).

연수구사편찬위원회. (2014). 인천광역시 연수구사: 상·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문화원. (2020~2024). 연수구향토문화총서: 제7~11권.

옹진군 편찬위원회. (2010). 옹진군지: 상·하.

옹진문화원. (2024). 옹진 섬마을 역사 문화 이야기 북도면편.

유중하. (2012). 화교 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 서울: 한겨레출판.

윤용혁. (1991). 고려대몽항쟁사 연구. 서울: 일지사.

윤용혁.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서울: 혜안.

이연경·문순희·박진한. (2019).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한국근대문학관). 서울: 북멘토.

이형구. (2017).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파주: 새녘출판사.

이형구·김진국. (2011). 고려왕조의 꿈 강화 눈 뜨다, 인천: 이너스

이희인. (2016). 고려 강화도성. 서울: 혜안.

인천광역시 남구. (2015~2017). 인천광역시 남구 역사문화총서 도시마을생활사: 제1~3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19~20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역사문화총서 도시마을생활사: 제4~5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2019). 인천 서구 도시마을지: 제1~3권.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편). (2014).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下.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2016~2023). 인천중구문화원 향토지: 제1~8권.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2021). 사진으로 보는 중구 어촌계 이야기 영종·용유·무의.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2022~2024). 월미문화: 제35~37호.

인천광역시 중구사편찬위원회. (2010). 인천광역시 중구사: 상·하권.

인천광역시. (2003~2024). 인천역사문화총서: 1~101호(2003~2024).

인천광역시. (2018). 인천시사편찬원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인천광역시. (2019).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인천광역시. (2023). 인천시사편찬 50주년 기념 인천광역시사: 제1~3권.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2025).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 제2집. 덕적군도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 제5집.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 제8집.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2015). 인천문화연구: 제1~12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조사보고: 제11집.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4집. 고려시대의 강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5집.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6집. 강화의 국방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 보고: 제28집. 인천항 사람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 보고: 제30집. 인천 외국인 묘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 보고: 제34집.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인천육군조병창 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1883~194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년도 연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천광역시 남구. (201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 보고: 제29집. 문학산성 정밀 지표 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편저). (2002). 인천광역시사: 제1~6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인천정명600년기념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제1~2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제1~3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4~2024). 인천광역시사: 제4~14권.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2025). 인천학연구: 제1~42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2024). 인천학연구총서: 제1~57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2024). 인천학자료총서: 제1~38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2025). 역주 구한국외교문서 청안: 제1~11권.

인천부. (1933). 仁川府史.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2008~2009). 인천서구 향토지: 제5~7권.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73). 인천시사: 上·下. 인천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82). 우리고장 인천. 인천직할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82). 인천시사: 70년대편. 인천직할시.

인천시사편찬위원회. (1988). 향토 인천. 인천직할시.

인천중구문화재단 영종역사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근대 이전 영종역사의 전개양상과 쟁점. 영종역사관.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3).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사.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3). 인천개항100년사.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3). 인천시사: 上·中·下. 인천직할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2023). 동아시아한국학 연구총서: 제1~34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2017). 동아시아한국학 교양총서: 제1~9권.

정연학. (2018). 니하오, 인천 차이나타운. 서울: 글누림.

최영화. (2021). 인천 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 방안: 동일방직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탁영호. (2022). 만화부평사: 1945, 부평 조병창 이야기.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홍승용. (2004). 인하50년사편찬위원회(편), 인하50년사 上. 인천: 인하대학교.

화도진문화원(기획). (2018). 화도진문화원 향토사 기록사업: 제1권. 화수동과 만석동의 기억.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황희정. (2017). 지역역사문화로서의 야구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구도(球都)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학술지/학위논문

강동석. (2021). 고려 강도(江都)의 성곽과 궁궐 재고찰. 문화재(국립문화유산연구원), 54, 174~191.

강호선. (2013). 13세기 江都 및 開京의 사찰 운영. 대구사학(대구사학회), 110, 35~72.

구동회. (2004). 도시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 마케팅과 삶의 질, 38(3), 215-226.

김기덕. (2000). 고려시대 강화도읍사 연구의 쟁점. 사학연구(한국사학회), 61, 89~114.

김기덕. (2011). 고려시대 江都 宮闕의 풍수지리적 고찰.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31, 313~335.

김도연. (2022). 물품사여를 통해 본 강도(江都) 시기 최우의 권력. 역사와 현실(현국역사연구회), 126, 165~201.

김병곤. (2003). 사적 제259호 강화 禪源寺址의 가람 배치에 대하여 - 예불 공간을 중심으로 -. 불교미술(동국대학교 박물관), 17, 25~683.

김병인. (2001). 고려 예종, 인종대 정치세력 비교연구. 전남사학(호남사학회), 17, 1~20.

김상기. (1948). 삼별초와 그의 란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을유문화사).

김성환. (2020). 江都時期 고려 왕실의 假闕 조영과 延基業. 민족문화연구(민족문화연구원), 89, 205~242.

김아네스. (2024). 고려 중기 왕실과 혜덕왕사 소현. 한국고대사탐구(한국고대사탐구학회), 103~144.

김유식. (2003). 선원사지 출토 고려후기 기와의 검토. 불교미술(동국대학교 박물관), 17, 107~1226.

김윤곤. (1976). 李資謙의 勢力基盤에 대하여. 대구사학(대구사학회), 10, 33~52.

김종근. (2015). 한국 역사지리학의 경향과 과제. 역사와현실(한국역사연구회), 95, 299~325.

김창현. (2004b).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고찰. 한국사연구(한국사연구회), 127, 143~176.

김창현. (2007). 고려 江都의 문수신앙과 관음신앙.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23, 191~230.

김창현. (2016). 고려 왕실 외척의 등장과 왕위계승 방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46, 47~97.

김호동. (2003). 桂陽都護府使 李奎報의 활동을 통해 본 고려 군현통치의 실상.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14, 187~215.

김효섭. (2025). 11~13세기 성씨로 표현된 부계 혈통과 친족 범위 - 경원이씨(慶源李氏)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59~95.

남달우. (2002). 仁川의 邑號 陞降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인천학연구원), 1, 325~346.

노명호. (1987). 李資謙一派와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 高麗中期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7, 167~225.

문경호. (2010). 1123년 徐兢의 고려 항로와 慶源亭.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28, 485~519.

문경호. (2021). 고려 강도(江都)시기 강화도의 주요 포구와 물자 유통. 지방사와 지방문화(역사문화학회), 24(2), 183~214.

문옥현. (2021). 강도시기 강화읍 외곽 토성의 구조와 성격. 한국중세고고학(한국중세고고학회), 10, 45~82.

박성우. (2010). 강도시대 성곽의 현황과 성격. 역사와 실학(역사실학회), 42, 229~250.

박정언. (2025). 〈히스토리텔링〉 개념으로 본 유교문화콘텐츠 재해석 사례연구. 전시디자인연구, 43, 171-178.

박지선·임주희. (2010). 出土 紙類유물의 보존에 관한 연구: 사적 259호 禪源寺址 유물을 중심으로. 불교미술(동국대학교 박물관), 17, 127~157.

박지영. (2021). 개경(開京)과 강도(江都)의 청자. 인문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2, 37~71.

박지영. (2025). 고려 상형청자 조형의 상징성과 문화사적 의미: 開京·江都의 상형청자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한국미술사학회), 325, 31~60.

빈경민. (2021). 고려 강도궁궐 위치 연구.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136, 55~66.

서영대. (1999). 강화도의 塹城壇에 대하여. 한국사론(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41·42, 205~240.

서영대. (2008).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고조선단군학(고조선단군학회), 19, 121~150.

서재인. (2001). 인천녹청자도요지 제작편년에 관한 연구. 경기사학(경기사학회), 5, 265~276.

서지영. (2025). 고려 강도시기 수창궁의 입지 범위와 위치 비정. 야외고고학((사)한국문화유산협회), 53, 135~171.

신수정. (2005). 고려시대 慶源李氏 家門의 정치적 변화에서의 혼인망: 이자의·이자겸난과 관련하여. 한국사학보(고려사학회), 21, 261~298.

신안식. (2010). 고려 江都時期 도성 성곽의 축조와 그 성격. 군사(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76, 29~59.

안영. (1977). 韓國綠靑磁에 關한 考察 :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를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정석·허의행. (2023). 고지형 분석 기반 강도 궁궐 배치 구조 시론.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72, 81~120.

윤경자. (1965). 高麗王室과 仁州李氏와의 關係. 淑大史論(숙명여자대학교사학회), 2, 55~66.

윤용이. (2003). 江華 禪源寺址 出土 高麗靑瓷의 性格. 불교미술(동국대학교 박물관), 17, 69~106.

윤용혁. (1990). 고려 대몽항쟁기의 불교의례. 역사교육논집(역사교육학회), 13·14, 437~462.

윤용혁.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역사와 역사교육(웅진사학회), 7, 1~38.

윤용혁. (2010). 고려 도성으로서의 江都의 제문제. 한국사학보(고려사학회), 40, 75~104.

윤용혁. (2015). 고려 강도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역사와 역사교육(웅진사학회), 30, 3~18.

윤용혁. (2017). 강도사(江都史) 연구의 쟁점.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1, 9~31.

윤한택. (1992). 高麗前期 慶源 李氏 家의 科田支配. 역사연구(역사학연구소), 1, 7~53.

이경성. (1960). 仁川博物館藏 元大德二年銘 鐵製梵鐘. 고고미술(현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3, 28~29.

이무용. (2003).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1(1), 39~57.

이민열. (1980). 高麗 慶源李氏 家門의 展開過程. 한국학보, 21, 2~29.

이병하. (2009). 경서동 녹청자 재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용인.

이상규. (2020). 강화도 출토 고려 후기~조선 전기 막새의 성격. 선사와 고대(한국고대학회), 63, 199~227.

이상선. (1997). 고려시대 강화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 누리와 말씀(인천가톨릭대학교 겨레문화연구소), 2, 55~80.

이상준. (2014). 고려 강도 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 문화재(국립문화유산연구원), 47, 108~127.

이상준. (2017). 강화 고려왕릉의 피장자 검토. 중앙고고연구(중앙문화유산연구원), 63~90.

이세우·조일묵. (2013). 인천 경서동 녹청자 태토 및 유약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한국도자학회), 18, 101~116.

이순자. (2018). 역사문화자원의 정비·활용과 지역발전. 백제문화(국립공주대학교 백제문황녀구소), 59, 111-141.

이제원. (2021). 고려 江都 長峯宮의 위치 비정 -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숭실사학(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 47, 71~103.

이종민. (2024). 고려왕릉 출토품으로 본 부장용 도자의 종류와 특징. 고고학(중부고고학회), 23(3), 33~60.

이종철·조경철·김영태. (2001). 강화 선원사의 위치 비정. 한국선학(한국선학회), 2, 25~47.

이한상. (2009). 現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6, 65~68.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이희인. (2014). 고려 강도 해안 외성에 대한 검토. 사림(수선사학회), 49, 217~256.

이희인. (2015). 고려 강도 성곽의 체제와 위치 고찰. 동양학(동양학연구원), 60, 123~148.

이희인. (2018). 고려시대 강화의 고고 유적과 공간 구조. 한국중세고고학(한국중세고고학회), 4, 59~81.

이희인. (2019). 고려 강도의 건설과 공간구성.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59, 167~199.

이희인. (2024). 고려 강도 성곽과 본궐에 대한 최근 논의의 검토. 백산학보(백산학회), 128, 5~31.

임영희. (2023). 고려 예종대 이자겸의 정치적 성장과 성격. 歷史學硏究(호남사학회), 91, 39~69.

장상주. (2019). 12세기前半 王弟의 정치동향.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59, 203~237.

정선모. (2019). 李子淵의 北宋使行考一『破閑集』 수록 甘露寺 시문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06, 225~252.

정재은. (2010). 강화 선원사지 출토 고려 청자연구. 동악미술사학(동악미술사학회), 11, 189~219.

정해득. (2018). 강화 고려왕릉의 조사성과와 과제. 한국중세고고학(한국중세고고학회), 4, 83~98.

채상식. (2009). 강화 선원사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4, 135~170.

채웅석. (2014).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38, 335~372.

최순우. (1966).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 發掘調査 槪要. 考古美術(현 美術史學硏究, 한국미술사학회), 7(6)

추만호. (1985). 李資謙의 軍事基盤 理解 上 -「僧軍基盤」說 檢討를 중심으로. 사향(공주사범대학교 역사교육과), 2, 31~55.

태지호. (2019). '히스토리텔링' 개념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의 사회문화적 의미. 글로벌문화콘텐츠, 40, 125-143.

태지호. (2025). 역사문화콘텐츠의 미디어별 현황과 장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서인문학, 68, 99-127.

한나래. (2019). 고려왕릉 출토 '봉황문 장식'의 상징과 강화 능내리석실분의 피장자 검토. 지역과 역사(부경역사연구소), 45, 81~115.

한혜선. (2021). 고려 강도시기 건물지 출토 도자기의 양상과 사용.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121, 67~102.

허우범. (2022). 高麗圖經에 보이는 慶源亭의 위치 고찰. 島嶼文化(도서문화연구원), 60, 43~75.

홍영의. (2017). 강화천도의 배경과 의의.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1(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34~54.

홍영의. (2023). 고려시대 강도(江都)의 공간 영역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중세사연구(한국중세사학회), 72, 121~204.

황향주. (2024). 이자겸의 집권 배경과 인종초 이자겸 권력의 공식화. 中央史論(중앙사학연구소), 62, 5~54.

E. J. Shultz. (1983). 韓安仁派의登場과 그 役割: 12世紀 高麗 政治史의展開에 나타나는 몇 가지 特徵. 역사학보(역사학회), 99·100합집, 147~183.

今西 龍. (1917). 京畿道廣州郡·利川郡·驪州郡·楊州郡·高陽郡·加平郡·楊平郡·長湍郡·開城郡·江華郡·黃海道平山郡遺蹟遺物調査報告書. 大正5年度古蹟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67~260.

藤田亮策. (1933). 李子淵と其の家系 上. 靑丘學叢 13.

藤田亮策. (1935). 李子淵と其の家系 下. 靑丘學叢 14.

법률과 특허

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75호). 2017.2.28. 〔일부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14호). 2025.10.9. 〔일부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2.14. 〔타법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일부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2022.12.29. 〔일부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900호). 2017.2.28.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20746호). 2025.5.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7293호). 2024.6.10.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651호). 2021.7.16.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7464호). 2025.3.12.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7427호). 2024.12.30. 〔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18호). 2025.4.8. 〔일부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2024.6.27. 〔타법개정〕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868호). 2025.4.1.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780호). 2022.1.18.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914호). 2017.5.1. 〔일부개정〕

행정자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21.2.25.).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지침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4.11.18.). 202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홍보책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3.17.). 2025년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 목록.

문화체육관광부. (2024.12.26.). 국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박물관·미술관 –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인천관광공사. (2024.2.19.).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2025.6.).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4.12.).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3년도 연보 제35집.

인천광역시의회. (2025.2.3.).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국.

인천문화재단. (2025.1.6.). 인천문화재단 2025년 경영전략체계 및 사업계획.

인하대학교 교육기획팀. (n.d.). 2025 인하 더 배움(비교과) 프로그램 가이드북.

보도자료/신문기사

강화군청. (2025.9.2.). 강화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군민 체감형 사업 추진 로드맵 구체화. 군정뉴스.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MsgDetail.do?msg_seq=20563&bcd=report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강화군청. (2025.10.24.). 강화군, '열린 유산 프로젝트' 본격 가동… 강화 고려궁지서 첫 야외 결혼식 열어. 군정뉴스.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yor/bbs/bbsMsgDetail.do?msg_seq=20930&bcd=report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강화군청. (2025.12.4.). 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용역비 국회 최종 통과. 보도자료.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bbs/bbsMsgDetail.do?msg_seq=21248&bcd=report (2025년 12월 16일)

강혜란·오욱진. (2025.6.2.). 진주 남강에 배우들이 '풍덩'…백년 극단 꿈꾸는 이 남자의 연출론.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854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공승배. (2024.11.5.). 인천 청라에 '스타필드 돔 구장' 짓는다. 동아일보.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3417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김갑봉. (2015.10.16.). 문학산 정상 50년 만에 개방...인천이 한 눈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1779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김다인. (2025.8.12.). 인천시, 문학산성 등 10년 만에 22곳 지정문화재 구역 전면 재조정. 기호일보.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325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김태양. (2021.5.4.). [인터뷰…공감]'인천 야구의 영원한 팬' 김종린 신기시장 상인회장. 경인일보. https://www.kyeongin.com/article/1548491 (검색일: 2025년 12월 2일)

문옥현. (2024.9.). 고려 강화도성의 궁궐을 찾아서. 인천역사통신 2024년 제42호, 15

문옥현. (2025.2.). 고려 강화도성 중심부의 구조와 주요 시설물. 인천역사통신 2024년 겨울 제43호, 10

박용필. (2023.9.10.). 인천중구·동구 사라지고 제물포구·영종구 생긴다. 보도자료. https://www.khan.co.kr/article/202309101201001(검색일: 2025년 5월 26일)

박준철. (2020.10.11.). 인천 문학산 정상 개방시간 확대.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112050015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박지현. (2024.10.16.). 문학산성 보존·복원 150억...인천시, 예산 분담·부족에 4년째 '답보'.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13417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이정하. (2020.12.21.). 인천 대표 문화재 '문학산성' 복원 본격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5182.html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2017.3.1.). 시립박물관, 본격적인 발굴조사 사업 착수. 보도자료. https://press.incheon.go.kr/citynet/jsp/sap/SAPNews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Svp&sido=&matOfYmd=20170301&matSno=7&flag=&viFlag=in (검색일: 202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2025.5.22.). 시민의 눈으로 찾는 인천의 보물! 인천시, 지역유산 시민제안 공모 시작 – 올해 첫 공모,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민 누구나 유·무형 자산 제안 가능. 보도자료.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1243119 4&curPage=68&beginDt=&srchRepTitle=&srchRepContents=&endDt=&srchMainManagerDeptNm= (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천도시공사. (2022.6.13.). iH,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1호(개항장 이음 1977). 보도자료. https://www.ih.c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1806&keyfield=title&keyword=%EA%B7%BC%EB%8C%80&bcd=idtc_press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인천도시공사. (2022.12.19.). iH,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 시동. 보도자료. https://www.ih.c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1874&keyfield=title&keyword=%EA%B7%BC%EB%8C%80&bcd=idtc_press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인천도시공사. (2024.9.3.). iH,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 개장 전시회 개최. 보도자료. https://www.ih.co.kr/main/bbs/bbsMsgDetail.do?msg_seq=2080&keyfield=title&keyword=%EA%B7%BC%EB%8C%80&bcd=idtc_press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인천도시공사. (2024.12.18.). iH,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3호 추진 – 개항장 이음1977(1호) 및 백년이음(2호)에 이어 3호 사업추진. 보도자료. https://www.ih.co.kr/fileviewskin/doc.html?fn=20241218_(dosijaesaengcheo)_ih_geundaegeonchukmunhwajasan_jaesaengsaeop_3ho_chujin.hwpx&rs=/fileview/bbs/idtc_press/2024 (검색일: 2025년 12월 1일)

정경규. (2023.4.11.). 실경역사 뮤지컬 '의기 논개' 공연…역사현장서 본다.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501_0002286346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강화역사박물관. (2025). 2025년 강화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강도江都 39년, 고려보물〉.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bbs/bbsMsgDetail.do?msg_seq=82&bcd=exhibit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강화역사박물관. (n.d.). 박물관소개: 설립목적.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useum_history/introduct/introduce.jsp(검색일: 2025년 9월 29일)

경인교육대학교기전문화연구소. (2021). 연구소소개: 인사말. http://kijeon.org/subList/20000002347(검색일: 2025년 9월 30일)

계양문화원. (n.d.). 문화와 역사: 인물. https://www.igycc.or.kr/history/person.jsp(검색일: 2025년 9월 3일)

공공데이터포털. (2025). 인천광역시 중구_음식경연대회 우수업소_20250725 https://www.data.go.kr/data/15075002/fileData.do?recommendDataYn=Y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국가유산 지식이음. (n.d.). 발간자료: 서울 문화유산. https://portal.nrich.go.kr/kor/originalUsrTotalList.do?menuIdx=1046&bunya_cd=3019(검색일: 2025년 4월 2일)

국가유산포털. (n.d.). 국가유산 검색: 화성행행도 병풍 (華城行幸圖 屛風)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gl=Y&ccbaCpno=1121114300000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n.d.). 연구소소개: 설립목적. https://www.nrich.go.kr/seoul/page.do?menuIdx=810(검색일: 2025년 9월 29일)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n.d.). 조직도, 주요추진업무. https://www.nrich.go.kr/seoul/index.do(검색일: 2025년 4월 2일)

극단현장. (2025). 공연안내: 2025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https://www.ihyunjang.com/hj/sub/sub2_1_view?bbsId=BBSMSTR_000000000075&nttId=1121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동구문화관광. (n.d.). 추천: 노동자의 길 문학이야기. https://www.icdonggu.go.kr/tour/course/coast_literature.jsp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부평문화관광. (n.d.). 역사와문화: 문화인물. https://www.icbp.go.kr/tour/history/person.jsp (검색일: 2025년 9월 3일)

부평역사박물관. (2018). 특별전시: 2018년도 상반기 특별기획전 〈해방공장, 1945년 군수기지 부평의 기억〉. https://portal.icbp.go.kr/bphm/exhibition/special.asp?page=v&gotopage=1&seq=8&keyfield=&keyword=&s_date=&e_date=&eminwon=&dept_idx=&head_idx=&se_dept_idx=&category=&head_idx_cateYN=&listCnt=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021). 기획전시: 인천의 산업거점 만석동. https://www.icdonggu.go.kr/museum/bbs/bbsMsgDetail.do?msg_seq=18&bcd=mexhibition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수원특례시 축제행사포털. (n.d.). 2025 정조대왕 능행차. https://www.suwon.go.kr/culture/ingCultureView.do?ctrSeqNo=1954&listType=main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연수문화원. (n.d.). 연수구 아카이브: 역사와 인물. http://www.yeonsu.or.kr/page/sub3_2(검색일: 2025년 9월 3일)

옹진문화원. (n.d.). 옹진의 향토사: 옹진인물. http://www.ongjincc.or.kr/history/person.jsp (검색일: 2025년 9월 3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n.d.). 세계유산 등재기준.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93%b1%ec%9e%ac/%eb%93%b1%ec%9e%ac%ea%b8%b0%ec%a4%80/(검색일: 2025년 5월 26일)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n.d.). 문화유산: 인천 답동성당 사진자료.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tem/view?pageNum=1&searchData=%EB%8B%B5%EB%8F%99&categoryLargeGroupCode=0001&searchType=TITLE&rowCount=8&search=N&iidx=755(검색일: 2025년 4월 2일)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n.d.). 아카이브 소개: 인천문화유산센터 연혁.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nfo(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문화관광. (n.d.). 테마여행: 중구 인물 여행. https://www.icjg.go.kr/tour/cths0301c01(검색일: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2024). 인천 소개: 시대별역사. https://www.incheon.go.kr/IC040305(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2025). 도시재생사업 현황: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https://www.incheon.go.kr/build/BU0200003/view?bsnsSeqNo=65&srchBsnsSe=&srchBsnsArea=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 (n.d.). 인천 소개: 인천인물. https://www.incheon.go.kr/IC040314(검색일: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n.d.). 캠프마켓 소개: 개요. https://www.incheon.go.kr/campmarket/CA020101 (검색일: 2025년 11월 3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3). 박물관 소개:인사말. https://www.incheon.go.kr/museum/MU010601(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n.d.). 전시, 유물, 교육 및 행사, 조사연구. https://www.incheon.go.kr/museum/index(검색일: 2025년 4월 2일)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n.d.). 연구원 소개: 설립목적 및 의의. https://www.isi.or.kr/study2/info/goal.php(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인하대학교 박물관. (n.d.). 조직 및 업무, 연혁, 사업실적, 공지사항, 학술총서, 조사보고. https://museum.inha.ac.kr/museum/index.do(검색일: 2025년 4월 1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n.d.). 통합검색: 인천 문학동 유적, 인천 당하동유적. https://lib.inha.ac.kr/(검색일: 2025년 4월 2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n.d.). 연구소 소개: 인사말. https://korea.inha.ac.kr/inhakorea/2040/subview.do(검색일: 2025년 9월 30일)

전국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 서비스. (n.d.). 검색: 인하대학교 박물관 발굴조사. https://www.nl.go.kr/kolisnet/index.do(검색일: 2025년 4월 2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논개 (論介).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3009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n.d.). 이자겸(李資謙).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5669(검색일: 2025년 9월 29일)

e뮤지엄. (n.d.). 소장품 검색: 공립, 인천시립박물관. https://www.emuseum.go.kr/headerSearch?detailFlag=true&rows=9&pageNum=1&keywordHistory=%EA%B3%B5%EB%A6%BD%2C%EC%9D%B8%EC%B2%9C%EC%8B%9C%EB%A6%BD%EB%B0%95%EB%AC%BC%EA%B4%80&searchType=1&dq=&location=&mcSeqNo=&author=&culturalHerNo=&tagInfos=&publicType=&ps01Lv1=PS01003&ps01Lv2=PS01003001&ps01Lv3=&ps06Lv1=&ps06Lv2=&ps08Lv1=&ps08Lv2=&ps09Lv1=&ps09Lv2=&ps09Lv3=&ps09Lv4=&ps15Lv1=&ps12Lv1=&gl05Lv1=&gl05Lv2=&facet1Lv1=PS01003&facet1Lv2=PS01003001&facet2Lv1=&facet3Lv1=&facet4Lv1=&facet5Lv1=&facet6Lv1=&fa(검색일: 2025년 4월 2일)

학술행사/심포지엄

강옥엽. (2023). 인천 시사 편찬, 그 역할과 정체성. 인천 시사편찬원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방안 모색(인천광역시), 제25회 인천 역사 학술회의 자료집, 9~14.

강옥엽. (2024). 인천 시사 연구자료의 수집과 활용. 인천 시사편찬 사업의 방향과 과제(인천광역시), 제26회 인천 역사 학술회의 자료집, 3~21.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 강화 고려도성 학술기반 조성 연구: 제1~2권·부록. 강화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수원대학교 박물관. (2021). 학술회의: 강도궁궐 학술포럼.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2016). 공동 학술회의 자료집: 고려 강도의 공간 구조와 고고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시사편찬 업무기능 활성화 및 문화시설 활용방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제18회. 인천시사편찬 회고와 전망.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제20회. 인천사 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2024).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제7회. 근현대 인천의 산업과 산업유산. 인천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인터뷰, 개인소장자료 등

- Interview

강옥엽. (2025년 2월 27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강옥엽. (2025년 9월 16일). 이인재,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강덕우.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곽은비. (2025년 5월 9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김상원.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김상태.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김형우.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남동걸.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류창호. (2025년 4월 18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문옥현. (2025년 10월 22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문옥현. (2025년 11월 6일). 서봉만, 홍승연이 대면 인터뷰.

문용식.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박철현. (2025년 2월 12일). 서봉만,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박철현. (2025년 5월 9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박철현. (2025년 9월 16일). 이인재,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손민환. (2025년 2월 12일). 서봉만,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손민환. (2025년 3월 14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손민환. (2025년 4월 18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손민환. (2025년 9월 16일). 이인재,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송승석. (2025년 3월 24일). 서면 인터뷰.

이의중. (2025년 5월 9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이의중. (2025년 9월 16일). 이인재,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이종범. (2025년 2월 12일). 서봉만,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이종범. (2025년 5월 9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이형우. (2025년 2월 27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이희인. (2025년 4월 18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정학수. (2025년 2월 27일). 서봉만, 홍승연,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홍영의. (2025년 7월 10일). 서봉만, 김태윤이 대면 인터뷰.

시청각자료

- **Video**

강화군. (2025). *강화군, 국회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발표*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Atd5pW_cyxA?si=LObBtpUaWfBCU5Ye

국립문화유산연구원 NRICH. (2021). *2021 강화중성 발굴조사 온라인 설명회 |고려시대|도성|대문 고개구간|치성|*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2fVzJ1q7slY?si=0o0XsjhRcBRpNMtX

부평역사박물관TV. (2025). *부평천일제염시험장 다큐멘터리*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OhvnDICa8BA?si=WEF3hat_G-RCI1Ky

인천문화재단. (2022). *13세기 고려 강화도성(강화경) 궁궐 디지털 재현 영상*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cwDORfT7xhc?si=aQ9QzQ-0NJQ0uer7

중앙일보. (2025). *진주 남강에 배우들이 '풍덩'…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UkpQjAzLadg?si=_TtgeSTXIkpK1T4n

진주시청. (2025). *실경역사뮤지컬 '의기 논개' 인기 실감* [YouTube] Available from https://youtu.be/qySQkrQSshw?si=14JWx6_ZIeJJcQf1

- **VR exhibition**

인천문화재단·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20). *고려의 왕릉* [VR] Available from https://iharchive.ifac.or.kr/archives/item/view?pageNum=1&searchData=&categoryLargeGroupCode=0002&searchType=TITLE&rowCount=8&search=N&iidx=1180

부록

부록

역사문화자산 평가 원자료[64]

순위	항목	A	B	C	D	E	F	G	평균
1	캠프마켓	10	8.18	8.72	10.00	10.00	8.95	7.37	9.03
2	일본-조계지	9.45	8.86	9.04	8.00	9.06	7.81	8.76	8.71
3	성공회 성당, 천주교 성당, 개신교 교회	8.86	8.27	10	10.00	7.70	7.70	8.30	8.69
4	해양관방 시설(강화도)	8.13	9.59	9.54	8.61	8.94	8.06	7.23	8.59
5	음식(1880년대 선린동)	10	8.09	8.91	7.61	8.56	7.56	7.92	8.38
6	인천의 고인돌	9.36	8.59	8.27	7.43	9.47	8.05	7.42	8.37
7	경인철도	9.23	7.77	9.04	10.00	6.81	8.81	6.11	8.25
8	응봉산	7.36	7.86	8.31	7.52	9.64	9.12	7.76	8.22
9	사교장 제물포구락부	8.68	7.68	8.86	10.00	7.34	7.17	7.23	8.14
10	청국 조계지-인천중화회관	9.45	8.5	9.04	6.94	9.06	6.57	7.22	8.11
11	(구)인천우체국(중동우체국)	9.41	8.18	8.45	8.48	6.65	7.78	7.24	8.03
12	부평 미츠비시 줄사택	9.86	7.68	7.99	6.94	8.60	8.03	6.30	7.92
13	홍릉, 석릉, 가릉, 곤릉 (고려 왕릉)	9.41	7.36	9.54	6.25	10.00	6.17	5.30	7.72
14	인천항갑문	7.5	8.68	8.86	10.00	7.70	6.34	4.76	7.69
15	애관극장	7.82	7.82	8.18	7.54	7.12	7.89	7.23	7.66
16	차이나타운-의선당	7.36	7.68	8.54	6.48	8.40	8.19	6.82	7.64
17	외규장각 의궤	9.19	7.68	6.73	7.69	9.01	7.42	5.64	7.62
18	고대섭 가옥	8.45	7	7.68	7.67	7.29	7.96	7.21	7.61
19	차이나타운-덕흥호	7.36	7.5	8.13	7.44	7.87	7.95	6.47	7.53
20	조흥상회	7.68	7	7.72	7.18	8.12	7.96	6.83	7.50
21	인천의 산성	7.54	8.41	8.27	6.94	7.42	6.36	7.36	7.47
22	직물, 철강, 유리 등 산업	9.73	7.86	2.91	7.67	9.47	9.19	5.42	7.46
23	월미도의 역사	9.36	7.64	7.49	7.67	8.40	5.34	5.96	7.41
24	동양방적(1934), 동일방직(1955)	8	7.86	7.54	7.33	9.35	6.46	4.94	7.36
25	(고려 강도시기) 고려궁지	7.32	7.5	7.9	5.89	10.00	5.63	7.23	7.35
26	인천상륙작전	7.04	7.73	8.67	6.82	7.17	7.56	6.46	7.35

64) 평가자 7인 A~G로 표기, 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표기

순위	항목	A	B	C	D	E	F	G	평균
27	능허대	9.36	7.27	6.77	7.43	9.67	5.54	5.29	7.33
28	인천애집	7.68	7.18	8.27	8.00	6.06	6.45	6.70	7.19
29	염전(주안, 남동, 소래)	9	8.68	8.54	6.22	5.11	7.89	4.76	7.17
30	인천·부평·강화· 교동 향교	7.68	8.41	7.45	6.71	6.23	6.89	6.67	7.15
31	외국인묘지	7.36	7.68	8.31	6.94	6.34	5.93	6.55	7.02
32	비류의 유적	10	9.18	6.5	5.40	5.71	5.64	6.29	6.96
33	인천·부평도호부	7.59	6.68	7.45	7.43	5.70	6.89	6.67	6.91
34	백제 사신길	9.36	8.13	4.82	5.40	10.00	4.95	5.29	6.85
35	갑곶나루, 승천포	8	7.82	7.31	6.37	8.60	5.70	3.53	6.76
36	인천기계제작소 도크	8	7.73	7.54	5.89	6.87	7.19	4.01	6.75
37	화도진 터 및 논현포대	6.68	7.59	8.58	7.28	7.06	6.17	3.83	6.74
38	소래역 수인선	7	7.68	7.86	6.94	8.47	4.07	5.06	6.73
39	6·25 전쟁	6.64	7.86	5.32	6.46	8.35	6.88	4.70	6.60
40	영종진	9.36	7.45	7.17	5.43	5.35	5.71	4.46	6.42
41	경서동 녹청자요지	7.04	6.36	7.27	4.94	8.23	4.99	5.95	6.40
42	개항장 상상플랫폼	6	7	5.5	6.72	4.35	6.81	7.52	6.27
43	고려대장경 판당 및 대장도감 복원	8.64	6.59	6.77	4.94	8.77	4.47	3.51	6.24
44	개항장 이음 1977	6.69	6.32	5.5	6.26	4.71	7.94	6.00	6.20
45	전통시대 간척사업(강화도)	8.08	7.68	7.81	5.89	6.35	4.24	3.25	6.19
46	강화학파	7.22	7.09	8.17	6.61	6.27	4.14	3.17	6.10
47	글로벌 차이나타운축제	6	7	3.77	7.67	4.45	5.56	7.52	6.00
48	원인재	9.04	7.22	7.04	4.94	5.34	4.06	3.73	5.91
49	주인선	6.68	5.82	5.18	6.94	5.53	7.13	4.01	5.90
50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과	8.22	6.95	7.54	6.37	2.53	5.24	4.42	5.90
51	문학야구장	4.1	6.41	5.28	7.06	5.70	6.09	5.18	5.69
52	항구(송도 신항 등)	7.81	7	4.09	4.94	5.44	5.06	5.38	5.68
53	목재산업	5	6.95	5	6.46	6.34	6.17	3.76	5.67
54	건축물 기록 (소실된 존스톤별장 등)	7.04	6.64	7.45	5.74	2.35	5.87	4.04	5.59
55	국제도시 형성과 발전	6.77	6.27	4.18	5.67	3.99	4.99	5.14	5.29
56	해안산책로	5	6.68	2	5.18	7.15	5.70	5.18	5.27
57	(구)홈링거 양행	7.04	6.09	5.9	6.85	1.71	2.93	2.92	4.78
58	청원선	5	5.68	4	4.94	2.66	6.70	3.76	4.68

2025년도 센터기획연구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연구

발 행 인 최계운
발 행 일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 디자인
ISBN 979-11-6870-353-7 9353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